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2020. 01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2020. 1.

한국국제협력단

연 구 자 료
동아프리카 2020-01-006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2020. 1.

한국국제협력단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아프리카연구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책임연구원인 권유경 외 5인(최혜진, 강지현, 서정연, 임유정, 김지연)의 참여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I. 연구개요	II.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의 합의와 시사점	III. 국외 및 국내환경 분석	IV.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 분석 및 필수고려사항	V.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 전략
• 목적과 필요 • 방법과 내용 • 기여와 한계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 개요 • 평가와 합의	• (국외) -아프리카 개발 환경, AU 및 지역기구, 공여국 및 국제기구 전략, 동향, 시사점 • (국내) - 한아프리카포럼, 정부의 신 아프리카전략 및 국내개발협력 관련 법	• 2012-2017년 아프리카지원 분석 •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분야별 중기전략	• (아프리카공동) Fill the GAP • (북/중서/동남 아프리카) 권역별 4P 맞춤형 전략
• 질적연구 (문헌연구 및 정책전략,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회,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 양적연구 (사업종료평가보고서 빅데이터분석)		

I. 연구의 개요

목적 및 필요성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 이후, 변화된 아프리카개발 환경 및 국내·외 ODA 환경을 고려한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립의 필요
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 동시 수행 • (연구 내용)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분석 및 평가,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KOICA 아프리카지역협력 경험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한 아프리카지역 공동 및 권역별(북/중서/동남) 맞춤형 전략 제시
기여와 한계	• (기여) 변화한 아프리카협력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고 국내 및 KOICA 추진전략과의 연계 강화 • (한계) 권역별 세부사업 모듈의 구성, 단계별 실행방안 수립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

II.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 합의와 시사점

개요	• KOICA 내부자료로서 수립된 첫 지역지원전략이며 'Hope WITH Africa'라는 비전 아래, 섹터를 중심으로 한 4개의 필라로 구성
평가와 합의	• 전략수립 당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이행 일치도 평가 • 2차 전략에서는 아프리카통합이 아닌 아프리카지역 내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권역별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특별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이 보완되어야 함

III. 2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수립을 위한 국외 및 국내환경 분석

아프리카의 개발환경	• '현황진단-변화하는 환경과 도전과제 분석-권역별 특성과 국가별 우선순위' 3단계 분석프레임을 두고, KOICA의 설립목적에 근거, 경제와 사회 분야의 개발환경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자료들을 활용, 분석 • 권역별(북/중서/동남) 상이한 경제구조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 양성이 필요하며 소득과 연계된 공공서비스(보건, 교육) 접근에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특히,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한 집중된 고려가 필수
아프리카연합과 지역기구	• 아프리카연합은 아젠다 2063 비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기본적 인권이자 지역통합,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의 필수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 아프리카 개발 아젠다에 여성개발을 강조

	• 각 지역기구는 경제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가는 가운데, 동아프리카지역의 2기구(EAC, IGAD)는 상대적으로 타 기구 대비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지원전략 동향 및 시사점	• 전 지구적 과제로 SDGs가 추진되는 가운데, UN은 SDGs 설정 시, 아프리카연합의 아젠다 2063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지역의 주인의식 강조 및 공동의 목표 달성을 강화하고자 노력 • 주요 공여국은 최근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체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주인의식과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징을 보임
한-아프리카포럼, 정부의 新아프리카전략 및 국내 ODA환경	• 2021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포럼에서는 4차 협력내용을 기본으로 한 확대가 예상 • 정부의 아프리카전략에서는 평화안보증진/상생번영/상호이해와 교류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제개발력 기본법과 종합시행계획안에서는 아프리카 비중에 대한 점진적 확대, 중점협력 4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

IV.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분석과 필수고려사항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현황과 시사점	• 2012~2017년 동안 KOICA의 대아프리카지원은 약 6.6억불로 전체 지원의 약 21.3%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점협력국과 현지사무소 소재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짐 • 분야별로는 교육, 농업수산, 보건의료 순으로 지원이 많았으며 프로젝트가 50%에 육박 • 권역별(북/중서/동남)로 우위 섹터 및 지원유형에는 차별성을 나타냈으며 종료·영향평가보고서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각 분야별 공통된 지적사항이 발생, 향후 사업 수행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KOICA 내 정책 및 전략	• 개편된 중장기 경영목표, 분야별 중기전략을 파악, 같은 맥락에서의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기획을 구상

V.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전략

주요 구성요소 및 특징	• 아프리카연합의 비전 및 KOICA SDGs 추진계획에 일치, 공통추진사항으로 '젠더개발'과 '청년지원'으로 구성했으며 핵심가치 4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와 주요 5대 분야를 연계, 권역별 맞춤형 전략 제시
추진전략	• (공통 추진부분) ①Fill the GAP - 사업확산 측면에서 아프리카연합의 비전 및 KOICA의 SDGs 5 이니셔티브에 일치시킨 전략 추진하며, 소외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여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성과 제고 측면에서 향후 아프리카지역사업들의 '젠더마커 1' 단계적 확대 추진 • (공통 추진부분) ②Youth Build Program - 청년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개발환경 수준에 따라, 기초교육-직업기술교육-취·창업 단계별 지원 • (권역별 맞춤형 전략) '과거-현재-미래' 비교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 권역별 집중영역을 선별, 제시하였으며 KOICA의 비전인 4P에 연계 - 북아프리카지역은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분쟁 예방 차원에서의 청년실업 문제와 삼각협력 및 남남협력 추진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제시 - 중서아프리카지역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 기술교육, 식수위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양질의 필수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 분쟁 발생, 이와 연계된 협력 활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쟁취약국네트워크(INCAF)를 핵심고려사항으로 제시 - 동남아프리카지역은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양질의 필수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제공,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와 향후 동아프리카지역기구와의 협업을 핵심고려사항으로 제시
--	--

Executive Summary

KOICA's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his report aims to reflect up-to-date environment surrounding African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DA since the KOICA's first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5) was published.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report,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were applied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research. For qualitative analysi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by literature review, in-depth and focal group interview. As qualitative analysis, 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s were collected for big data analysis.

The report includes review of KOICA's first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5),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 analysis, analysis of KOICA'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Africa, and KOICA's internal policies toward African region. Thus, KOICA's second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builds on the findings of those review and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wo-track approach was suggested for KOICA's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ne is developing KOICA's flagship program for Africa: that is making a whole continent penetration program considering on development environment in Africa as well as KOICA's own experience. The other is developing a regional program (North/ Central and West / East and South) reflecting each region'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grams targeting the whole continent can be 'gender development' and 'support for the youth' by considering vision of African Union (AU) and KOICA's SDGs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gional programs, the report suggests regionalized strategies in line with the KOICA's core values (4P: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and five major sectors such as health, education, agriculture, governa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 and energy.

Specifically, the report suggests two common programs for the all KOICA's African partners. First program titled 'Fill the GAP' aims to achieve AU's vision and KOICA's SDGs 5 by building safety net for women who are vulnerable and excluded from society. At the same time this program focuses on improving women and girls' quality of life. The second program is 'Youth Build Program' concerned with youth capacity building and job creation in line with AU's vision. The program considers change of industries and African region's distinct characteristics when it is planned and implemented. 'Youth Build Program' is structured with three steps

such as basic educatio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or establishing business.

For regionalized programs, Northern region program is expected to be related with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for future capacity development and governance improvement for public service. When programs are planned for the region, triangular cooperation and south-south cooperation are necessary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modality of cooperation. Also, youth unemployment issue should not be missed to prevent regional conflict in advance. Central and Western region needs programs for inclusive education for the venerable,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for future capacity development, improvement of drinking water quality and accessibility, high-quality health service for mother and children as well as the youth, and sustainability for agriculture production improvement and marketable agriculture products. In addition to that, regarding the modality of cooperation, close working with INCAF and KOICA is expected to cope with continuous conflicts in that region. Lastly, Eastern and Southern region program can be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for future capacity development, high-quality health service for mother and children as well as the youth, and capacity building for climate change. When KOICA plans programs for this region, it is necessary to pay special attention on the region called horn of Africa and cooperate with regional organization and institution.

목 차

요약	i
Executive Summary	v
I.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3. 연구의 기여와 한계	2
II.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합의와 시사점	4
1.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의 개요	4
2.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에 대한 평가와 합의	6
III.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국외 및 국내 환경 분석	14
1. 아프리카의 개발환경	14
2. 아프리카연합(AU)과 지역기구	20
3.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지원전략, 동향 및 시사점	26
4. 한-아프리카포럼, 정부의 신(新) 아프리카전략 및 국내 ODA 환경 ..	61
IV.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분석과 필수고려사항	68
1.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현황 및 시사점	68
2. KOICA 내 정책 및 전략	89
V. KOICA의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94
1. 전략 틀	94
2. 전략의 구성요소	94
3. 추진 방향	96
4. 추진 전략	96
5. 기대 성과 및 국익에의 함의	131
6. 향후 추진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	133
참고문헌	137

표 목차

<표 1-1>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개요	1
<표 2-1>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중점지원프로그램 요약	6
<표 2-2> 권역 및 분야별 1차 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	8
<표 2-3> 권역 내 분야별 1차 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	9
<표 2-4> 부문별 설문조사 항목	11
<표 3-1> Agenda 2063 비전, 전략 목표와 중점분야	20
<표 3-2> AU 10년 이행계획(2014-2023)의 구성과 내용 개요	22
<표 3-3> AfCFTA의 주요 운영기반과 단계별 추진 내용	23
<표 3-4> 아프리카의 8개 지역기구 개요	24
<표 3-5> SDGs 개요	26
<표 3-6> SDGs와 AU Agenda 2063의 비교	28
<표 3-7> 주요 공여국의 대아프리카 ODA 분야 비교(2015-2017년 평균)	31
<표 3-8> 주요 5개 공여국의 최근 3년간 대아프리카 ODA 금액 및 구성	31
<표 3-9> DFID의 다자기구 특유의 역량 인정부분과 다자성양자 활용 방향 개요	32
<표 3-10> USAI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33
<표 3-11> USAID의 대아프리카 지원전략 요약	34
<표 3-12> USAID의 대아프리카 지역별 지원전략 요약	34
<표 3-13> DFI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35
<표 3-14> GIZ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37
<표 3-15> AF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39
<표 3-16> AFD 중점 협력 분야 개요	40
<표 3-17> JICA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41
<표 3-18>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지원 및 전략 특징	42
<표 3-19> UNICEF 아프리카 지원 개요	44
<표 3-20> WFP 전략계획(2017-2021) 개요	46
<표 3-21> UNDP 3가지 개발과제 및 6가지 솔루션 개요	49
<표 3-22> UNFPA 아프리카 지원 개요	56
<표 3-23> UN 기구의 대아프리카지원 및 기타 개요	59
<표 3-24> 4차 한-아프리카포럼 협력 프레임워크	62
<표 4-1> KOICA 대아프리카 협력 상위 10개국 현황(2012~2017년)	69
<표 4-2> KOICA 대아프리카 54개국 협력 추이(2012~2017년)	69
<표 4-3> KOICA 북부 아프리카 협력 추이(2012~2017년)	71
<표 4-4> KOICA 중서부 아프리카 협력 추이(2012~2017년)	72
<표 4-5> KOICA 동남부 아프리카 협력 추이(2012~2017년)	74
<표 4-6> KOICA 아프리카 권역별 프로젝트 건수 분석 개요(2012~2017년)	82

<표 4-7> KOICA 동서아프리카실 내 다자성양자 사업 예산 현황(2019년)	83
<표 4-8>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요약	89
<표 4-9> KOICA 7개 분야 중기전략 2016-2020 개요	91
<표 4-10> KOICA 3개 범분야 중기전략 2016-2020 개요	92
<표 5-1> 아프리카지역 젠더불평등지수에 따른 현황	97
<표 5-2> KOICA, Fill the GAP 3대 사업 부문 및 사업 추진계획	100
<표 5-3> 교육-보건-직업 차원에서 서비스 접근 향상의 예시	101
<표 5-4> 권역별 KOICA 지원액 분야별 비중(2012년~2017년)	107
<표 5-5> 권역별 이브라힘 지수 활용 개발환경 점수	108
<표 5-6> 권역별 국가지원계획(CP)의 분야별 분표와 상대적 비중	109
<표 5-7> 권역별 집중영역 도출 모형	109
<표 5-8> 북아프리카지역 사업유형	114
<표 5-9> 삼각협력과 남남협력 비교개요	115
<표 5-10> 중서아프리카지역 사업유형	119
<표 5-11> 분쟁 취약국 네트워크(INCAF) 활용 사업 추진 방안	121
<표 5-12> 동남아프리카지역 사업유형	125
<표 5-13> Horn of Africa 지역 주요 문제 개요	126
<표 5-14> KOICA 중장기 경영전략방향과 연계한 핵심업무의 전략적 재배치	127
<표 5-15> 중점협력 5대 기구 대아프리카 지원개요	129

그림 목차

[그림 2-1]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	4
[그림 2-2]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의 주제 및 프로그램 구성	5
[그림 3-1] 아프리카 개발환경 분석 프레임	14
[그림 3-2] 아프리카지역 최대 공여국의 아프리카 ODA 변화	30
[그림 3-3] UNICEF 예산의 구성과 흐름	43
[그림 3-4] UNICEF 펀드 기여	45
[그림 3-5] WFP 예산 구성	47
[그림 3-6] WFP 전략적 목표 이행 현황	48
[그림 3-7] UNDP 예산 구성 비교 (2017년 vs. 2018년)	50
[그림 3-8] UNDP 아프리카 프로젝트 맵 (2019년 기준)	51
[그림 3-9] UNHCR 예산 구성의 변화(2012년 vs. 2018년)와 공여국의 증가	53
[그림 3-10] UNHCR 지역과 필라별 지출(2018년)	53
[그림 3-11] UNHCR 집중 지원 아프리카국가	54
[그림 3-12] UNFPA 예산의 구성	55
[그림 3-13] UNFPA 예산에 따른 주요 집행 분야 (2018년)	57
[그림 3-14] WHO 글로벌프로그램 자금 구성과 주요 공여국/기관	57
[그림 3-15] WHO 아프리카지역 활동 국가	58
[그림 3-16] 2018년 WHO 프로그램 예산 지출 구성	59
[그림 4-1] KOICA 아프리카 협력 추이 변화(2012~2017년)	68
[그림 4-2] KOICA 대아프리카 지원 분야별 개요(2012~2017년)	76
[그림 4-3] KOICA 대아프리카 지원 유형별 개요(2012~2017년)	77
[그림 4-4] KOICA 대아프리카 지원 분야별 유형 개요(2012~2017년)	78
[그림 4-5] KOICA 아프리카 권역별 사업유형 분석(2012~2017년)	79
[그림 4-6] KOICA 아프리카 권역 분야별 사업유형 분석(2012~2017년)	80
[그림 4-7] 보건의료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85
[그림 4-8] 교육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86
[그림 4-9] 농림수산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87
[그림 4-10] 공공행정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87
[그림 4-11]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88
[그림 5-1] KOICA의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틀	94
[그림 5-2] 4P와 KOICA 주요 5대분야 및 범분야의 연계	95
[그림 5-3] 4P의 추진 방향	96
[그림 5-4] 권역별 집중 영역 도출 모형	107
[그림 5-5] 4P-아프리카 공통 및 권역별 집중영역	111
[그림 5-6] MENA지역(북아프리카포함)의 청년실업	115

[그림 5-7] 아프리카지역 분쟁	122
[그림 5-8] 우리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에 일치된 아프리카지역전략 개요	132

글상자 목차

[글상자 1] 독일(GIZ)의 AU 협력전략	38
[글상자 2] 일본-UNDP TICAD Process Promotion Support Fund (TPPSF)	51
[글상자 3] UN 기구별 자원 및 다자성양자 자원 표기 구분 정리	60
[글상자 4] 한국 추진 삼각협력 사례 분석(BEAR)	117
[글상자 5] INCAF(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123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 이후 변화된 아프리카 개발환경 및 국내·외 ODA 환경을 고려한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립이 필요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은 아프리카 전역의 수요가 차별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대상으로 전략을 구성, 큰 틀에서 5대 중점분야가 포함된 4개의 필라와 각 분야별에서 중점적인 시행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
 - 이로 인해 급변하는 아프리카의 개발환경 고려와 맞춤형 협력의 어려움이 있었고, 시의성 있게 발굴, 집행되어야 할 사업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이에 최근 AU중심의 국제사회 지원, 글로벌 사회적가치(SDGs) 이행, 정부의 신(新)아프리카전략, 국내외 ODA 규범 등의 종합적인 반영, KOICA의 중장기경영전략, 국가지원계획과 연계, 연동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 전략 추진 필요성 농후

2. 연구 방법 및 내용

<표 1-1>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개요

연구 방법	연구 내용
△ (질적조사) 관련 문헌 및 정책 전략, 전문가 의견수렴회,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 (양적조사) 통계자료 분석, 사업종료평가보고서 빅데이터 분석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분석 및 평가, 함의도출 △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국외환경으로서의 아프리카개발환경, 아프리카연합 비전 및 주요 전략, 지역기구 활동, 최근 이슈와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지원 전략 및 동향 △ 국내환경으로서의 ‘한-아프리카포럼’, 정부의 신(新)아프리카전략,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KOICA의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이후 지원협력 현황 통계분석, 내부 정책 및 전략 분석

자료: 저자 작성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개요, 전략-이행 일치도 분석, 1차 전략 수립 당시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2차 전략에 대한 의견수렴
- (아프리카개발환경) KOICA 비전에 근거, 경제 및 사회 중심의 환경 분석
- (AU·지역기구·SDGs) 아프리카연합의 비전, 주요 추진 전략, 최근 이슈 분석을 통한 아프리카지역의 '주인의식' 고려 및 SDGs 분석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동참 부분 고려
-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지원전략, 동향) 국제사회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아프리카지원 전략,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발굴
- (한-아프리카포럼, 정부의 신(新)아프리카전략,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기본계획) 국내 아프리카 및 ODA 상위전략 및 비전과의 연계 고려
- (KOICA 대아프리카 지원현황) 2012-2017년 전체 사업 분야, 유형, 최근 양상 및 종료·영향평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5대 분야 사업의 시사점 도출
- (KOICA 중장기 전략 및 분야별 중기전략)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과의 연계 강화

3. 연구의 기여와 한계

- ☐ 변화된 아프리카의 개발환경 및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고려하면서 국내 아프리카협력 환경을 포함하고 상위 규범 및 미션인 KOICA의 중장기 전략, 국가지원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협력전략의 수립
- ☐ 특히, 아프리카지역 공통 협력 분야 및 권역별 맞춤형협력의 제시 및 필수고려사항에 대한 분석,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 방향 등 정책적 협력 방향 및 중점 추진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제공
- ☐ 그러나 본 내용이 KOICA의 중장기 전략과 국가지원계획의 bridge로

서 정책적 방향과 틀을 제시한 만큼, 본 전략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심층 조사 및 연구를 통한 권역별 세부 사업 모듈의 구성, 단계별 실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추가 작업이 시행되어야 함

II.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합의와 시사점

1.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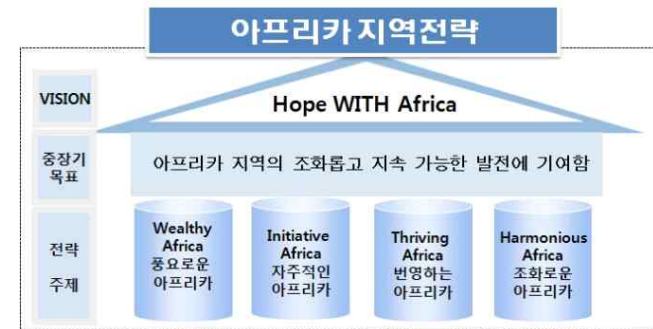
□ 전략수립 배경, 과정

- 1차 전략수립 당시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한-아프리카개발 협력 기본구상’등 대내외적 변화의 맥락에 맞춘 KOICA 내부의 아프리카지원 비전, 전략 등의 필요성이 농후
- 특히, KOICA는 ‘11년부터 지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본부 차원에서 신생 사무소가 많고 광범위한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방향, 주제 및 프로그램 등 사업 방향 제시 차원의 내부자료로서 수립
- KOICA 본부 아프리카부 국별사업 담당자, 지역연구원, 분야별 전문관 등 총 14명의 TF(Task Force Team)를 구성, 약 6개월 동안 작업

□ 전략의 내용

-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 및 ‘KOICA 선진화계획(2010-2015)’,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간 등을 고려, 전략의 이행 기간을 2012-2015로 설정
- (비전) KOICA가 아프리카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성을 인정하며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Hope)’을 전파하는 진정성을 담은 원조예의 의지를 나타냄. 또한 희망을 전파하는 방식에 있어 한국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아프리카가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불어(WITH)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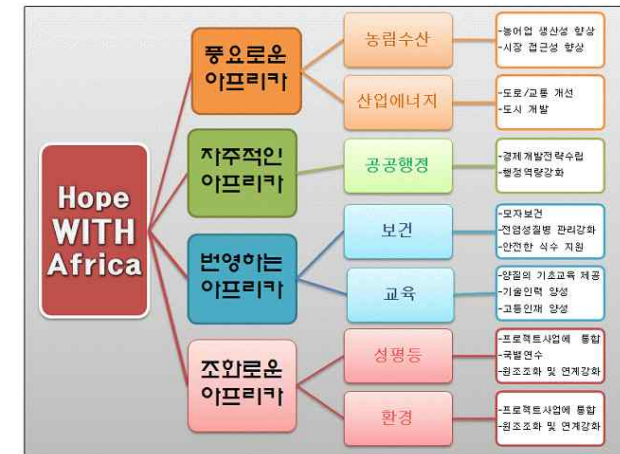
[그림 2-1]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



자료: KOICA 제공

- (전략주제 및 프로그램) ‘WITH’로 구성된 4가지 필라는 KOICA의 5대 중점분야와 범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내용들에 중점지원 프로그램을 명시함

[그림 2-2]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의 주제 및 프로그램 구성



자료: KOICA 제공

□ 전략의 특징 및 한계

- 1차 전략 이전 KOICA 내부에서 수립되었던 <對아프리카 지원계획(안) 2006-2008> 및 <對아프리카 지원정책(안) 2008-2010>이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각기 다른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했던 반면,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은 북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주요 분야가 더 이상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 전체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삼음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에서는 기존 북아프리카가 거버넌스, ICT와 관련한 수요가 높았으나 이는 점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도 필요로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집중해왔던 농어촌개발분야에서도 북아프리카지역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음

- 세부적인 수준의 전략 상세내용, 지원프로그램 언급은 CPS 수준의 국가별 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에서는 큰 틀에서 5대 중점분야가 포함된 필라와 각 분야별에서 중점적인 시행이 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작성됨
- 한계점으로서 KOICA에서 기존 실행했던 사업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틈새 분야에 대한 제안이 미흡한 점, 내부 자료로 작성되었음에도 예산 배분이 나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이 지적됨

2.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2012-2015)에 대한 평가와 함의

1) 중점지원프로그램과 사업의 시행

□ 분석대상 및 내용

- 2012-2015년 사이 시행된, 아프리카지역 총 89개 사업*을 중심으로 각 필라 별로 제시된 중점프로그램과의 일치 정도를 분석
- * 사업 수행 기간이 전략 기간 내(2012-2015)에 속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발굴, 종료된 사업의 수는 매우 한정적으로 사업의 수행 기간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조사

□ 각 필라 별 중점지원프로그램 요약('표 2-1' 참조)

<표 2-1>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중점지원프로그램 요약

필라	세부 분야	중점지원프로그램
1. 풍요로운 아프리카	농림수산	■ 농어업 생산성 향상 • 생산인프라 확충: 관배수 시설 확충, 농지개발 및 정비 • 농어업기술 지원: 신제품 개량 및 보급, 농어업기술 교육훈련,

		농어업 연구기관 지원 • 농어업정책 역량강화: 농어업, 농어촌개발정책수립, 농어업 통계 정비
	산업에너지	■ 국가교통인프라 개선 • 도로인프라 구축지원, 철도, 공항, 항만 인프라:개발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 국토관리 기반 조성 및 종합개발 • 종합수자원 개발, 신도시 및 단지 개발, 송배전망 기초등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 역량강화 • 상하수도 관리 개선: 상하수도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 구축, 상하수도 체계 개선 마스터 플랜
2. 자주적인 아프리카	거버넌스	■ 경제개발 전략수립 •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및 산업정책개발 운영 역량 배양: 중단기 연수생 초청, 중장기 자문단 파견,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수립, 산업개발정책 수립, WTO 가입 준비 지원 등 자문 • 시장경제 이행 지원: 정책자문 결과와 연계한 증권시장 개설, 산업단지 개발 ■ 효율적 투명한 행정 역량 • 공무원 역량강화: 공무원 인사관리, 조직관리, 공무원 교육 • 부패방지 및 효율적 제도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기관설립(감사원 제도 도입), 공정한 선거관리 제도 도입, 정부 혁신 및 행정규제 간소화 • 행정서비스 개선: 중장기 공공부문 혁신정책 수립 지원, 공무원 역량강화, 지방행정 능력 배양 계획을 위한 공동 연구
3. 번영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 모자보건 • 가족계획, 안전한 임신 및 출산 관리, 조산사 양성 및 산파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생식보건 ■ 전염성 질병 관리 강화 • 질병관리 체계강화, 말라리아 역량강화, 결핵 역량강화, 소외 열대질환 역량강화 ■ 안전한 식수 지원 • 안전한 식수 개발
	교육	■ 양질의 기초교육 제공 • 교육기회의 양적확대, 교육환경 개선, 교원 증원, 역량강화 및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보급, 기초교육 정책/제도 개선 ■ 기술인력 양성 • 직업훈련 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직업교육 기자재 및 교보재 확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직업훈련 기회 촉진, 직업훈련 정책/제도 개선
4. 조화로운 아프리카	범분야 (성평등, 환경)	범분야로서 기존프로그램에 통합화 확대 추진

자료: KOICA 제공자료 활용, 저자 작성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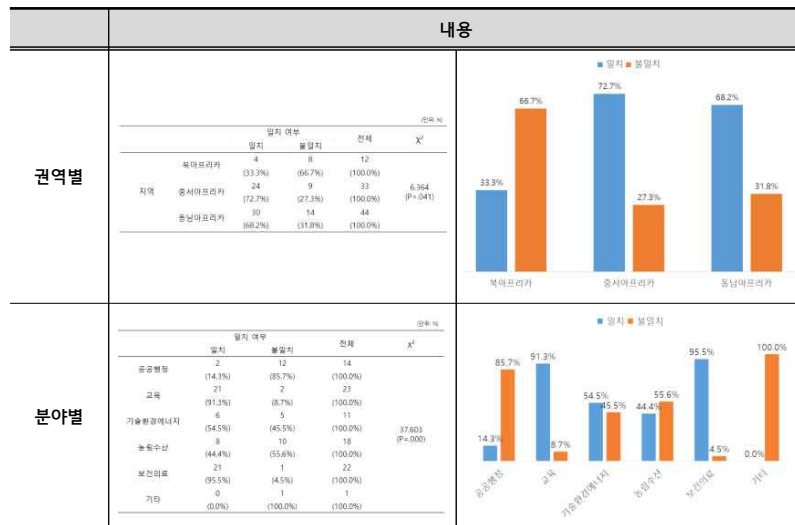
- 권역별

- 카이제곱 검정결과, 지역에 따른 1차 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남과 중서아프리카지역은 전략에서 제시한 중점프로그램에 대한 일치율이 각각 68.2%, 72.7%에 해당, 중점프로그램에 맞춘 프로젝트가 상당수 시행
- 그러나 북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남과 중서지역에 비해 시행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가운데, 전략에서 제시한 중점프로그램과는 다소 거리가 먼 프로젝트 위주로 시행한 것(66.7%)으로 나타남

○ 분야별

- 5대 분야에 따른 1차 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95.5%)와 교육(91.3%)에서 가장 높은 일치율을 나타낸 반면, 공공행정(85.7%)은 가장 높은 불일치를 보임
- 이는 당시 전략에서 제시한 보건의료분야의 중점프로그램 내용이 해당 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높은 일치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반면, 공공행정의 경우, 중점프로그램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실제 시행 또한 주류내용이 없어, 파편화되어 가장 높은 불일치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

<표 2-2> 권역 및 분야별 1차 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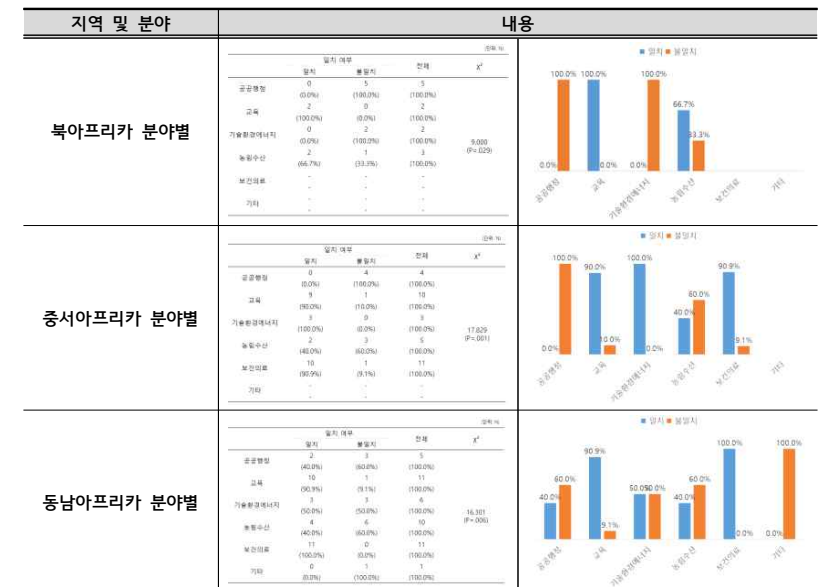


자료: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7) 활용, 저자 작성

○ 지역 및 분야

- 카이제곱 검정결과, 지역 내 분야에 따른 1차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아프리카 분야별) 북아프리카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자체가 저조하였으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과는 구분된 특성을 보임. 또한 전략에서 제시한 중점프로그램의 일치율에 있어 교육 분야에서 완전 일치, 공공행정과 기술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완전 불일치를 보이는 등 일치율의 편차가 두드러짐
- (중서아프리카 분야별) 기술환경에너지에서 완전 일치를 나타냈으며 동남아프리카지역과 유사하게 보건의료(90.9%), 교육(90%)에서 전략의 중점프로그램과 일치율이 높았음. 반면, 공공행정에서는 완전한 불일치를 보임
- (동남아프리카 분야별) 보건의료(100%), 교육(90.9%)로 두 분야에서 전략의 중점프로그램 일치율이 높았으며 공공행정과 농림수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치도를 나타냄

<표 2-3> 권역 내 분야별 1차 전략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



자료: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7) 활용, 저자 작성

□ 함의

역전략 수립 방향에 관한 의견

〈표 2-4〉 부문별 설문조사 항목

구분	설문 항목
1차 지역전략에 대한 이해	- 1차 지역전략 인지도 - 1차 지역전략 정독 여부 - 1차 지역전략 미정독 사유 - 1차 지역전략 미정독에 따른 불편정도
현장에서의 1차 지역전략 활용도	- 1차 지역전략의 사업 반영도 - 1차 지역전략의 사업 집행의 도움 정도 - 1차 지역전략의 아쉬운 점 - 1차 지역전략의 유용성 - 1차 지역전략의 이행률
2차 지역전략 수립 방향에 관한 의견	- 2차 지역전략 이행을 제고를 위한 의견 - 향후 2차 지역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의견

자료: 저자 작성

○ 분석 방법

-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실시
-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하여 $\alpha=.05$ 의 유의수준을 사용함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현황 및 성과

- 근무자들에게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은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현장에서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을 실제 사업에 반영, 전략에서 아프리카 현황 및 내용, 분야별 정보 획득에 대한 유용성을 드러냄. 이와 더불어 1차 전략을 대외홍보용, 선언적 의미로서 의의를 부여

○ 문제점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해당 전략에 대한 열독률은 낮았으며, 전략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이 사업 발굴과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드러냄
- 특히 현실과 유리된 전략, 구체적인 이행계획의 부재 등을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의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의 이행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식됨

○ 북/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구분된 접근 필요

- 분석 결과, 북아프리카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다수로 진행된 보건 의료분야가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등 사업 분야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 1차 전략에서 아프리카지역을 전체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구분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특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이 부족

- 높은 일치율을 나타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중점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적절했다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중점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략과 일치된 시행을 한 것으로 평가받음
- 그러나 기후변화 혹은, 재난 대응 등 긴급하게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내용은 1차 전략에서 다루지 않아 이 분야와 관련해 시의성 있게 발굴되고 진행된 사업은 오히려 전략에 대한 시행사업 일치율을 낮게 만들도록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전략에서는 분야(섹터)에 국한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여 전략 수행기간 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전략에 대한 사업 이행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해 보는 것이 필요

2) 이해관계자의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평가

□ 분석 개요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 항목에 따른 심층 인터뷰

○ 조사 규모 : 7명

○ 조사 기간 : 2019년 7월 ~ 8월

○ 조사 대상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수립 당시, 본부 근무자 및 해외사무소 근무자

○ 조사 항목 : 1차 지역전략에 대한 이해, 현장에서의 1차 지역전략 활용도, 2차 지

- 기타 및 2차 전략에 대한 의견
 - 기존 KOICA 對아프리카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시사점 발굴에 대한 내용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이 외 실제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명확한 전략 목표와 전략 시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 계획 등이 금번 2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수립 후 내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향후 2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의 이행을 제고를 위해 사업의 강제성 부여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이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더불어 아프리카지역전략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권역별/국별 차별화된 접근,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략안 등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냄

3)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립 시 보완 필요사항

□ 변화된 아프리카개발환경 및 국내외 ODA 환경에 대한 분석과 반영

- 기존 1차 전략은 2012년 수립. 이에, 최근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지역과의 개발협력 수행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아프리카연합(AU)의 ‘Agenda 2063(2013년 발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이에, 2차 전략에는 아프리카지역 내 55개 회원국을 지닌 AU가 발표한 ‘Agenda 2063’의 내용에 일치시켜 이를 통한 아프리카의 주인의식 강화, 공동의 목표 달성, 조화와 공동번영, 개발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 농후
- 또한 정부의 신(新)아프리카전략, 국내에서 5년마다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6-2020)’ 및 매해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안’등을 반영, 국가적 차원에서 ODA를 추진하는 방향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수립 필요

□ KOICA의 개편된 중장기 경영목표 및 분야별 중기전략 반영

- KOICA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미션과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협력전략을 새롭게 추진
- 또한 주요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1)을 통해 신규사업 형성, 발굴, 기획, 평가

의 기준으로 사용 중

- 이에 이와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려, 2차 지역전략을 설정할 필요성 농후

□ 전략의 현장 이행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 제시

- 아프리카지역 내 권역별 구분되는 특성, 1차 전략 이후 KOICA 아프리카지역사업의 평가, 종료보고서 분석 등을 통한 섹터별 사업의 경험, 함의 등을 포함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이행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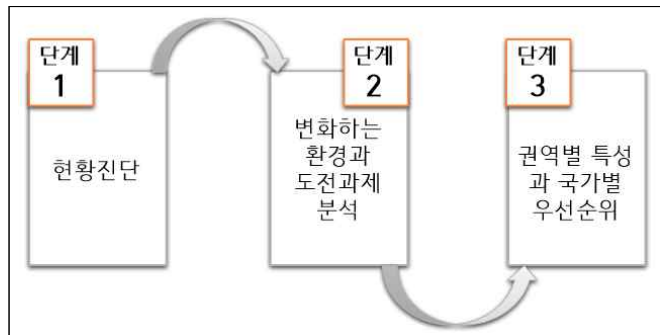
III.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국외 및 국내환경 분석

1. 아프리카의 개발환경

□ 분석 프레임

- KOICA의 설립목적*에 근거, 경제·사회 분야의 개발환경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자료들을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제시
- *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

[그림 3-1] 아프리카 개발환경 분석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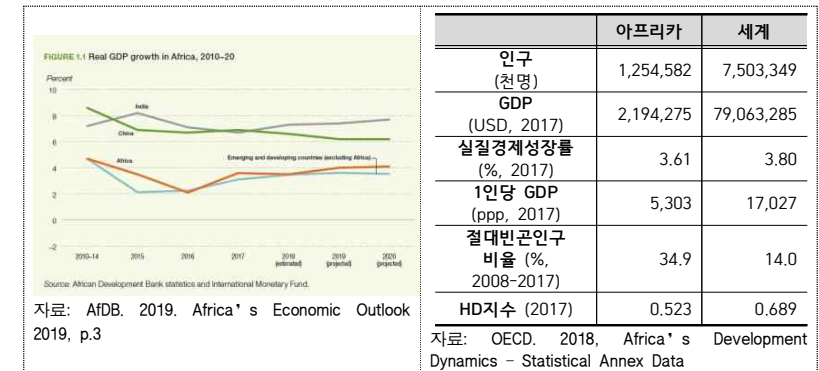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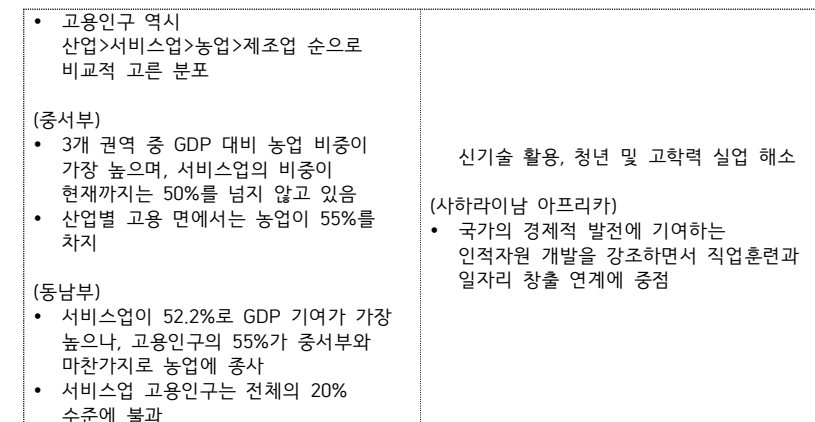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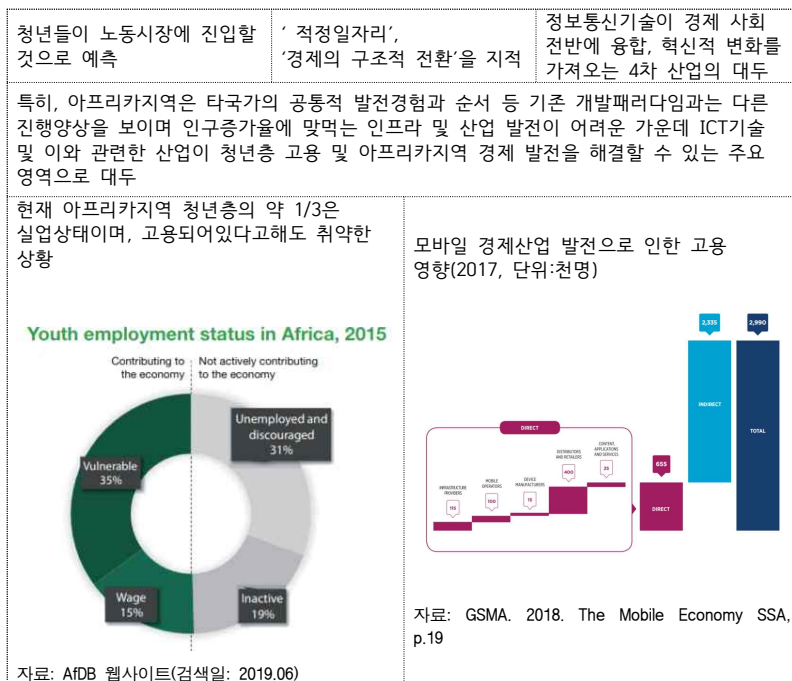
[Step 1] 현황진단

아프리카,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실질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이하	세계인구의 15%, 아프리카지역이 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지역은 전세계 GDP의 2~3% 해당
---------------------------------------	--



[Step 2] 변화하는 환경과 도전과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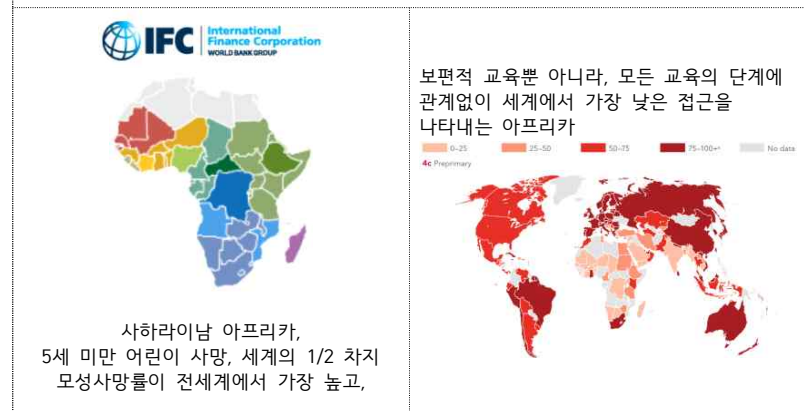
현재 수준의 성장으로는 대륙 내 급증하는 인구에 대한 시장 대응이 어려움	아프리카 및 세계 모두 '적정일자리와 경제적 취약성 극복'을 아프리카의 최대 현안이자 당면과제로 언급	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접근 필수
자료 : OECD. 2018,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p.69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yper-connectivity(초연결) Super-intelligence(초지능)	
향후 30년 동안 약 1.5~2천만 명의 교육받은	이들 모두 지금, 아프리카의 급선무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2) 사회 분야

[Step 1] 현황진단

아프리카,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된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Step 3] 지역적 특성과 국가별 우선순위

권역별 상이한 경제적 특성					국가별 우선순위				
권역	농업/임업/어업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	특성			
구분	% of GDP	전체고용 분야 고용률(%)	% of GDP	전체고용 분야 고용률(%)	북부	- 고중소득국 전임과 산업 다변화/발전해와 같은 목표 설정 - 향년 및 고학력 실업 해소에 주력 - 선진화된 주류에 적합한 기술인력 양성 - 산기술, ICT 활용, 기술혁신 주도적 경제성장률에 관심 - 이민의 노동취미를 증가할 필요 고려			
북부 (중개국)	11.4	21.3	29.3	32.6	중서부 (나이지리아, 세네갈, DR콩고, 가나, 코트디부아르, 케냐)	- 선진국 선진, 경제적 변화와 같은 목표 설정 - 기술 역량과 일자리창출 연계 강조 - ICT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중서부 (중개국)	24.9	59.0	24.1	11.9	동남부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 케냐)	- 국가발전과 기여하는 인적자원개발 강조 - 향년층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지용주요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양성, TVET 시스템/정책 강화			
동남부 (중개국)	17.0	55.1	21.5	14.0	세계	고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 다변화,			
아프리카	15.8	50.4	28.3	14.5					
세계	6.2	28.4	28.5	22.2					

자료: OECD. 2018,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 Statistical Annex Data (Excel)

자료: KOICA 내부자료,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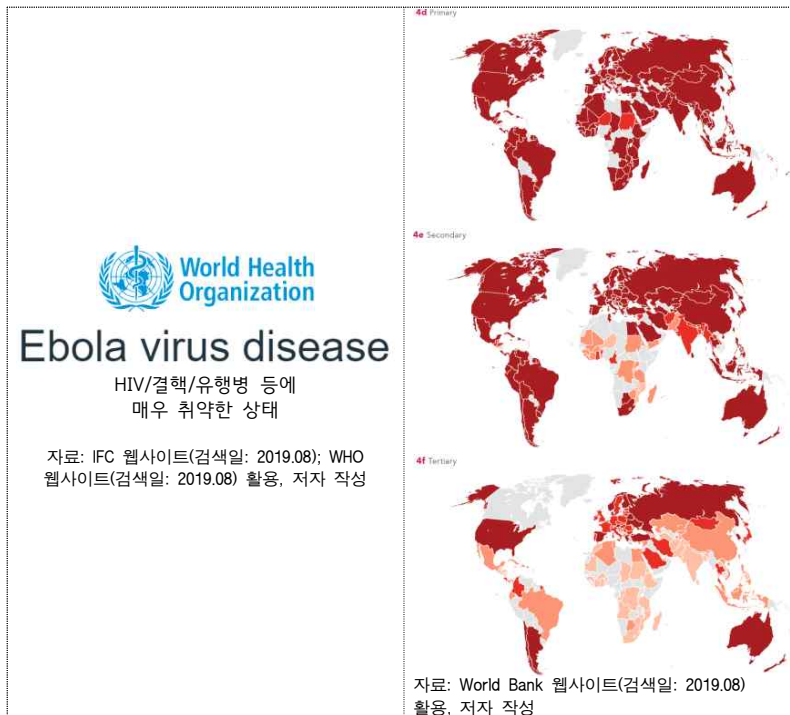
(북부)

- 중소소득국 이상이 다수 포진
- 서비스업(52.8%)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나, 산업(29.3%), 제조업(20.1%)도 고루 분포

국가별 개발 현안과 우선순위(16개국 CP 분석) 분석결과

(북부)

- 고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 다변화,



[Step 2] 변화하는 환경과 도전과제 분석

MDGs에서 SDGs로 변화되면서도 교육과 보건의 여전히 주요한 개선과제

MDGs
교육(2번)과 보건(4,5,6번)은 전체 목표 8개 중, 50% 차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회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MDGs에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혁신 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들이 우선순위로 SDGs에 포함, 우선해결과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교육(3번), 보건(4번)은 질적 접근을 보다 강조하며 변함없이 우선순위에 포함

특히, SDGs 달성의 촉진제로서 '젠더평등(SDG 5)'이 강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젠더는 SDG의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Stand-alone)인 동시에 다른 10개 목표의 세부목표로서 광범위하게(Cross-cutting) 반영됨. 젠더이슈가 다른 주제와 달리 독자목표와 범분야 세부목표로 이중 구조화된 데에는 MDGs 실행에서 드러난 성평등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었기 때문

자료: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86.

[Step 3] 지역적 특성과 국가별 우선순위

아프리카지역의 보건, 교육과 같은 기초조건 서비스 접근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빈곤을 감소 속도는 역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과 연계된 공공서비스(보건, 교육) 접근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

빈곤과 불평등 지역적 특성							국가별 우선순위	
	절대빈곤 (인구) (2008-17)	LMIC 기준아래 빈곤인구 (\$1.90/일, 2008-17)	LMIC기준 아래 빈곤인구 (\$5.50/일, 2008-17)	차세대 연구의 속도세지 비율 (WB에서, 2008-17)	20% 연구의 속도세지 비율 (SDI 2017 (GB), 2017)	Gender 불평등 지수 (GBI, 2017)		
북부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0.8	7.7	35.2	32.9	41.7	0.979	0.368	- 빈곤층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보호 체계에 노력 -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도,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
중서부 (나이지리아, 세네갈, 앙골라, 가나, 코트디부아르, 리비아)	36.7	63.9	83.3	40.5	47.1	0.981	0.577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초서비스에 대한 (디지털라이징, 세제감, 인프라 구축 등) 재정 당국 노력 - 사회보장제도(사회적 안전망) 추진 - 분형, 조혼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여성의 권리보장, 원시 계층 참여지원
동남부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37.1	57.6	74.7	46.2	52.4	0.941	0.442	- 영양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생식보건, 모자보건 등 - 영양에 교육 서비스 제공 - 교육과정 개편, 교사인수 등 - 적정 세고 노력 - 안전한 처우 및 위험 집단 관리 - 직업인력 및 영양교육 서비스 노력 - 불평등, 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아프리카 세계	34.9	56.5	75.5	42.5	49.0	0.854	0.484	
세계	14.0	26.3	41.3	38.1	45.2	0.887	0.330	

자료: OECD. 2018.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 Statistical Annex Data (Excel)

자료: KOICA 내부자료,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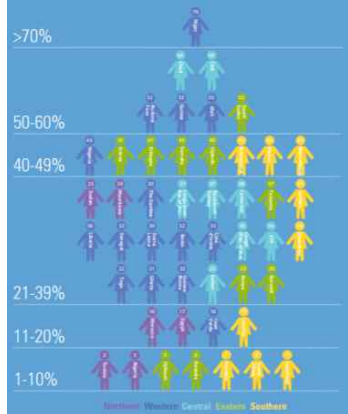
(북부)
• 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하루 \$1.9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인구는 많지 않음

(중서부)
• 아프리카 3개 지역 중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38.7%), 특히 Gender 불평등 지수가 0.5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여성 차별적 문화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추정 가능

국가별 개발 현안과 우선순위(16개국 CP 분석) 분석 결과

(북부)
• 전반적인 빈곤층, 취약층 계층 지원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지역 불균형 해소 지원

(중서부)
• 기초사회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조혼 등 여성 차별적 문화에 대한 접근 강화

(동남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고 상위소득 2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는 등 사회적으로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	(동남부) 사회 불평등, 불균형 개선을 지원하되, 교육, 보건의 질적 향상에 집중
특히, 아프리카지역은 독특한 젠더불평등 요소가 심각히 드러나며 이에 UNDP는 아프리카지역 인간개발로 '젠더평등'이 필수적임을 지적	
 자료 : UNDP. 2016. Af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p.34	 자료 : UNDP. 2016. Af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p.10

2. 아프리카연합(AU)과 지역기구

□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 총 회원국 55개(아프리카대륙 전체 국가, 2019년 기준)로 “세계 무대에서 역동적인 힘을 나타내며 아프리카인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통합되고, 번영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 건설을 비전으로 함
- (Agenda 2063)
 - 향후 50년 동안 아프리카대륙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전략적 틀로 7개의 포괄적 비전, 전략 목표, 중점분야로 구성됨

<표 3-1> Agenda 2063 비전, 전략 목표와 중점분야

비전	전략 목표
A1.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의 번영	A1-1. 모든 시민을 위한 높은 수준의 삶, 질적인 생활과 웰빙
	A1-2. 잘 교육받은 시민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된 기술혁명
	A1-3. 건강하고 영양상태가 좋은 시민
	A1-4. 전환적 경제
	A1-5. 생산성과 생산 제고를 위한 현대화된 농업
	A1-6.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해양경제
	A1-7.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후 대응력을 갖춘 경제와 공동체
A2.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카르네상스 비전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으로 연합되고 통합된 대륙	A2-1.하나된 아프리카(연방 또는 연합) A2-2. 대륙 금융 또는 통화 기구의 설립과 기능 A2-3. 아프리카대륙을 가로지르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A3.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 및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아프리카	A3-1. 견고한 민주적 가치, 관습, 인권의 보편적 원칙, 정의와 법치 A3-2. 가동 가능한 유능한 기구와 전환적인 리더십
A4.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A4-1. 평화, 안보, 안정의 준수
	A4-2.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프리카
	A4-3. 원활히 활동하고 기능하는 APSA (Africa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A5. 강력한 문화 정체성, 공동의 유산, 가치와 도덕성을 지닌 아프리카	A5-1. 탁월한 아프리카 문화 르네상스
A6. 아프리카인, 특히 여성과 청년의 잠재력과 아동 복지를 통해 인간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A6-1.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성평등
	A6-2. 헌신적이고 역량있는 청년과 아동
A7.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파트너로서 강력하고 연합되며, 위기 대응력과 영향력을 지닌 아프리카	A7-1. 국제문제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
	A7-2. 개발을 위한 재정에 모든 책임을 지는 아프리카

자료: AU. 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Framework Document

- (10년 이행계획, 2014-2023)
 - Agenda 2063의 하위전략인 ‘10년 이행계획(First Ten-Year Implementation Plan)’을 통해 Agenda 2063의 단계적 이행과 점검을 추진. ‘10년 이행계획’은 △AU 플래그십 프로젝트/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계획 중점분야 △대륙적 프레임워크(CAADP, PIDA, AMV 등)* △정상회의 결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선정

* 아프리카종합농업발전프로그램(CAADP,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아프

리카산업발전프로그램(PIDA,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in Africa), 아프리카광업비전(AMV, African Mining Vision)

<표 3-2> AU 10년 이행계획(2014-2023)의 구성과 내용 개요

순서	구성	내용 개요
1	통합된 고속열차 네트워크	고속열차로 아프리카의 모든 수도와 상업적 중심지를 연결하여 재화와 인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운송비를 줄이며 현·미래 시스템의 혼잡함을 완화
2	아프리카 가상·사이버대학	여러 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많은 학생과 전문가들에게 다가가며, 적절한 양질의 Open, Distance 및 e-learning 리소스를 개발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대학으로의 접근을 보장해 아프리카의 3차 및 계속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3	상품 전략의 공식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상품을 통해 더 높은 임대료를 얻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 및 로컬 콘텐츠 개발에 기반한 수직·수평 다각화를 촉진
4	연례 아프리카 포럼	아프리카의 정치 지도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가 연 1회 모여 발전 및 제약사항, Agenda 2063의 목표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
5	2017년까지 대륙자유무역지대 설립	2022년까지 아프리카 내 무역을 2배로 늘려 아프리카 내 무역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무역을 효율적/지속가능한 발전의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 무역 협상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와 정책을 강화하며 합의된 일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설립
6	아프리카 여권 및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의 비자 발급 추진을 목적으로 국경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정치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간 이동이 제한적인 아프리카의 법을 바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향상
7	Grand Inga 댐 프로젝트	Inga 댐은 43,200MW의 전력을 생성하여 현 지역 전력 풀을 지원할 것이고, 현 전력풀과 결합된 서비스를 통해 아프리카를 전통적 에너지 기반에서 현대적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여 모든 아프리카인이 청정하고 저렴한 전기에 접근하도록 할 것
8	범아프리카 전자 네트워크	아프리카 내 광대역 지상파 인프라, 사이버 보안 등을 통해 정보 혁명을 바이오 및 나노 기술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의 공간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를 전자 사회로 변화 유도
9	총성없는 아프리카(~2020)	모든 전쟁, 내전, 성폭력 및 폭력 갈등을 종식하고 대량학살을 예방한다. 아프리카 인간 안보 지수(AHSI)를 설립 및 운영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자료: AU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AU, GEWE(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전략)
 - AU는 남녀평등을 기본적 인권이자 지역 통합,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의 필수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프리카개발 아젠다에 여성개발을 강조,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 GEWE를 추진

-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정의, 보호 및 여성의 권리 강화 △여성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성지원을 위한 통합적 젠더 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의 관점이 평화, 예방, 보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화 및 안전 추진 △여성에게 아프리카 미디어에서의 발언권 부여 및 지식 확대를 위한 기술 사용, 특히 미디어 및 ICT분야에서의 개발 촉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

- (아프리카연합 개발기관, AUDA-NEPAD)
 - Agenda 2063의 실현 가속화 및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대륙 및 지역의 개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실현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역할을 확대하여 재탄생
 - △인적자본개발(기술, 청소년, 고용 및 여성 역량강화) △지역통합, 인프라(에너지, 물, ICT, 운송) 및 무역 △산업화, 과학, 기술 및 혁신 △천연자원, 거버넌스 및 식량안보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 55개 회원국 중 53개 국가에서 활동하며 결과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10년 이행계획'에 일치시켜 임무를 수행 중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이하 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의 공식적 출범
 - (추진과정) AfCFTA는 Agenda 2063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18.3월 아프리카 44개국 정상들이 서명하고, 지난 '19.4.29일자로 정식 발효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최초 서명국의 과반인 22개국의 비준)를 충족하면서 30일 후인 '19.5.30일자로 공식적으로 발효됨
 - (시장 규모) AfCFTA는 약 12억 인구(역내 GDP 규모 2.5조 달러)의 시장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탄생한 최대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2050년에는 그 규모가 25억 인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기대효과) 또한, AfCFTA의 형성으로 역내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서 역내 교역이 52.3% 증가하고, 비관세장벽의 감소로 인해 교역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18.05.07 가나와 케냐를 시작으로 하여 '19.04.29 시에라리온이 21번째 비준국으로, 서사하라가 22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정족수를 충족

** '19.07.16 현재, AfCFTA의 서명국은 55개 AU 회원국 중 54개국(에리트레아 제외), 비준국은 27개국임

*** AU는 운영사무국 소재지 후보국을 7개 회원국(이집트,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케냐, 가나, 마다가스카르, 세네갈)으로 발표

<표 3-3> AfCFTA의 주요 운영기반과 단계별 추진 내용

5대 운영기반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온라인협상포럼(online negotiating forum) - 비관세장벽 모니터링과 철폐(monitring and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 전자결제시스템(digital payment system) - 아프리카무역관측소(African Trade Observatory) 설립
1단계(Phase I) 주요 내용	상품과 서비스 교역, 분쟁 해결
2단계(Phase II) 주요 내용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투자

자료: AU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지역기구

○ (개요)

-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이하 ‘지역기구’)는 아프리카지역 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국가 단위로 구성. 최근 들어 경제통합뿐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 개발, 거버넌스 등 아프리카연합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역할 및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추세
- 아프리카지역 내 8개 지역기구*가 활동하고 있음

* △아랍마그레브연합(UMA, Arab Maghreb Union),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중앙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위원회(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표 3-4> 아프리카의 8개 지역기구 개요

지역기구	회원국	설립일	소재지	주요 목적
UMA	5개국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 튀니지	1989년 2월 17일	모로코 Rabat	역내 정치/경제 현안 협력과 공동 정책 수립
COMESA	20개국 남수단,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부룬디, 세이셸, 수단,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코모로, 케냐, DR콩고	1994년 12월 8일	잠비아 Lusaka	- 역내 지역통합과 지속 발전 - 관세 폐지, 공동 대외 관세 시스템 구축 등
CEN-SAD	23개국	1998년	리비아	역내 경제 활성화,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베냉,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	2월 4일	Tripoli	- 경제적 공동체 형성 - 공동 인프라 구축, 사회발전 및 시스템 조화 등
EAC	6개국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2000년 7월 7일 (재창설)	탄자니아 Arusha	포괄적 성장을 위해 ‘관세동맹>공동시장>화폐통합>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역통합 추구
ECCAS	11개국 가봉, 르완다, 부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DR콩고	1983년 10월 18일	가봉 Libreville	- 경제통합을 통한 단일시장 구축 - 역내 평화와 안보, 질서 유지
ECOWAS	15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1975년 5월 28일	나이지리아 Abuja	- 역내 경제 및 화폐 통합, 역내 교역 활성화 -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IGAD	8개국 남수단,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1996년 11월 26일	지부티 Djibouti City	- 역내 평화 질서 유지 - 기후변화 공동 대응 - 역내 지속성장, 무역 협력 등
SADC	16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이셸, 앙골라, 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 코모로, DR콩고, 탄자니아	1992년 8월 17일	보츠와나 Gaborone	- 역내 경제발전과 시장통합 - 빈곤퇴치 - 평화, 안보

자료 : AU, UNECA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지역기구 활동의 특징

- 회원국 수가 비교적 적고, 동부지역에 위치한 기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국제사회의 상당수 원조기관에서 동부지역에서 역내 지역기구와 협력, 역량강화를 지원

-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가 역내 경제통합을 한 단계 더 촉진시키고자 동아프리카통화동맹(EAMU, East African Monetary Union)으로 나가는 로드맵 이행 절차를 논의 중에 있으며, IGAD의 경우, 최근 회원국의 거버넌스, 평화와 안보확립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강화하며 남수단 내 평화협상과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평화협정 중재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3.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지원전략 동향 및 시사점

1)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SDGs 개요

- 2015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현재와 미래 인류와 지구의 평화, 번영을 위한 청사진이자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추진 과제로 인류의 보편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을 다루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
- 전 지구적인 과제로 사람 중심, 포용성, 전환, 보편성, 파트너십 등의 접근을 통한 모두의 발전(Leave No One Behind) 원칙을 강조하며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뤄짐

<표 3-5> SDGs 개요

구분	내용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Goal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5 GENDER EQUALITY 	
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절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Goal 9 	회복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Goal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Reduce incom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by regulating emissions and promoting developments in renewable energy
Goal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UN은 SDGs 설정 시, AU Agenda 2063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지역의 주인의식 강조, 공동의 목표 달성을 강화하고자 노력
- AU의 Agenda 2063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보다 28개월 가량 앞서 수립, 이는 UN의 주도 아래 SDGs가 수립되는 데 있어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 개발목표와 관련하여 UN의 SDGs와 AU의 Agenda 2063의 10년 이행계획은 90% 일치

<표 3-6> SDGs와 AU Agenda 2063의 비교

구분	UN 2030 Agenda(SDGs)	AU Agenda 2063 (First Ten-Year Implementation Plan)
일치	빈곤퇴치	A1-1. 모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생활, 질적인 삶, 웰빙
	기아퇴치와 식량안보	A1-5.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 농업
	건강과 웰빙	A1-3. 건강하고 영양공급을 받은 시민
	양질의 교육	A6-2. 청년 및 아동의 역량 강화 A1-2. 과학, 기술, 혁신에 의한 시민 교육과 기술혁명
	성평등	A6-1.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성평등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A1-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력을 갖춘 경제와 공동체 A1-4. 전환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A2-3. 아프리카 전역에서 세계 수준의

산업, 혁신, 인프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불평등 해소	10. 국가 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A1-1. 모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생활, 질적인 삶, 웰빙
기후변화와 대응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A1-5.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대 농업 A1-6.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해양경제 A1-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력을 갖춘 경제와 공동체
해양생태계 보존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육상생태계 보존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정의, 평화를 위한 제도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A3-1. 민주적 가치, 관행, 인권의 보편적 원칙, 정의, 법치의 실현 A3-2.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기관과 전환적 리더십 A4-1. 평화, 안보, 안정의 유지 A4-2. 안정되고 평화로운 아프리카 A4-3.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구조의 온전한 기능과 활동
글로벌 파트너십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A2-2. 대륙 주요 금융 및 통화기구의 설립과 활동 A7-1. 글로벌 문제의 주요 파트너이자 평화로운 공존의 아프리카 A7-2. 개발 재원 마련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아프리카
불일치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A2-1. 하나된 아프리카 A5-1. 아프리카 문화 부흥

자료 : UNDP. 2017. Africa Policy Brief - Strengthening Strategic Alignment for Africa's Development, p.10.

- 특히, UN과 AU는 두 아젠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 활동과 프로그램 이행에 합의하고 다음의 원칙 하에서 단일화된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 공동 보고 구조를 채택하기로 함(AU-UN, 2018, p.7)
- 운영원칙(Guiding principles) : △포괄성, △상호책임, △투명성과 보완성, △주인의식, △기존의 공헌 및 이니셔티브 활용, △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근거한 파트너십
- 양자는 주요 협력 분야로 아젠다 공동이행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국가개발프레임워크의 일관된 통합, 증거기반 정책 결정 제고를 위한 분석과 연구 역량 강화, 효과적 활동 추적, 팔로업, 회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의 데이터 생

태환경, 통합 모니터링/평가/보고 프레임워크, 무역 및 지역통합 아젠다, 평화 안보-인권개발의 결합, 아프리카의 국제적 위상, 통합된 금융 메커니즘 등을 정하였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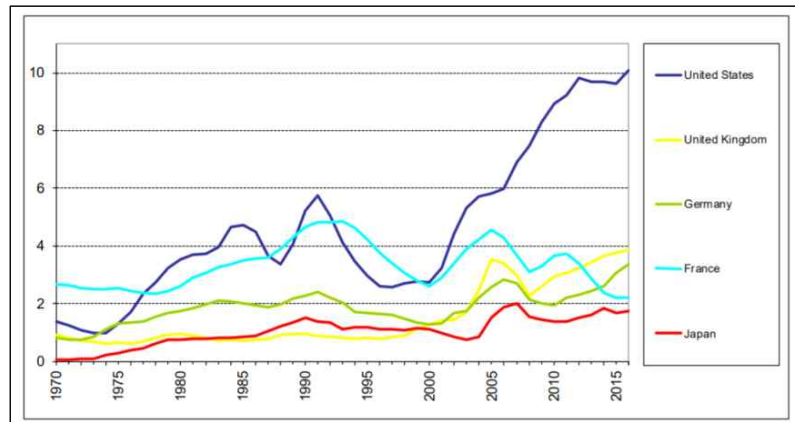
2)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지원현황 개요

□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지원

- 최근(2017년) 아프리카지역의 ODA 금액은 약 518억 불 규모였으며 최대 수원국은 에티오피아(41억 불, 8%), 나이지리아(33억 불, 6%), 탄자니아(25억 불, 5%) 순이었으며 양자 공여국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이, 다자기구로는 유럽연합, 세계은행(IDA), 글로벌펀드 순으로 해당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로는 사회(42%), 경제(20%), 생산(12%)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아프리카지역에서 최대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그림 3-2] 아프리카지역 최대 공여국의 아프리카 ODA 변화

(단위: 십억 불)



자료: OECD. 2019.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Africa. p. 5

1) 권유경·최혜진(2019). KOICA의 동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22-25에서 일부 보완함

□ 주요 공여국의 대아프리카 ODA 분야

- 2017년 OECD 통계 기준, 전반적으로 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평균적으로 높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전체 규모 대비 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 부문에서는 일본이, 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영국의 비중이 높았으며 프랑스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7> 주요 공여국의 대아프리카 ODA 분야 비교(2015-2017년 평균)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참고) 한국
사회(교육, 보건 등)	54	45.4	37.8	39.7	26.4	53.3
경제(교통-통신, 에너지 등)	5.1	7.7	25.3	29.4	42.6	31.7
생산(농림수산, 산업 등)	5.3	5.5	7.7	8.0	18	7.2
인도지원	26.4	28.3	0.3	9.0	7.6	3.2
복합분야 등 기타	9.2	13.1	28.9	13.9	5.4	4.6

자료: OECD. 2019. 2018a. 2017.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Africa 활용, 저자 작성

□ 주요 공여국의 최근 3년간 대아프리카 ODA 금액 및 구성 비교

- 전체적으로 양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다자사업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30%를 상회하며 프랑스는 양자 사업이 99%에 육박, 타 국가들과 구분됨

<표 3-8> 주요 5개 공여국의 최근 3년간 대아프리카 ODA 금액 및 구성

(단위: 백만 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5	양자	7,319.10 (61.8%)	3,518.93 (63.2%)	3,370.17 (93.4%)	3,093.31 (98.7%)	1,824.13 (65.9%)
	다자성양자	2,318.31 (19.6%)	754.8334 (13.5%)	42.0376 (1.2%)	3.030505 (0.1%)	310.4297 (11.2%)
	다자	2,199.64 (18.6%)	1,297.79 (23.3%)	196.601 (5.4%)	36.418 (1.2%)	632.954 (22.9%)
	총계	11,837.051	5,571.555	3,608.806	3,132.756	2,767.518
2016	양자	7,918.17 (64.6%)	3,138.40 (61.1%)	3,928.66 (84.2%)	3,218.88 (99.7%)	1,918.83 (74.3%)
	다자성양자	2,254.30 (18.4%)	756.8492 (14.7%)	78.59513 (1.7%)	3.4535 (0.1%)	308.5087 (12%)
	다자	2,087.76 (17%)	1,239.30 (24.1%)	659.009 (14.1%)	7.49 (0.2%)	353.7 (13.7%)

	총계	12,260.23	5,134.55	4,666.26	3,229.83	2,581.04
2017	양자	9,031.56 (64.3%)	3,025.95 (59%)	4,122.25 (79.1%)	3,492.85 (99.3%)	1,921.36 (71.7%)
	다자성양자	2,520.66 (17.9%)	851.8506 (16.6%)	160.3396 (3.1%)	5,237.29 (0.1%)	194.237 (7.2%)
	다자	2,500.26 (17.8%)	1,254.69 (24.4%)	925.964 (17.8%)	20.48 (0.6%)	564.952 (21.1%)
	총계	14,052.48	5,132.49	5,208.56	3,518.57	2,680.54
평균		12,716.587	5,279.530	4,494.541	3,293.716	2,676.366

자료: OECD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영국의 경우, 위의 5개국 중 다자성양자 활용 방향 및 전략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편*으로 기존에 제기되어온 다자기구에 대한 비지정 기여(core funding)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 비지정 기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여기관이 공개 가능한 수준의 자료에서는 자신들의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총괄적인 논리 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단지, 연차보고서, 혹은 기타 발표 자료에서 유추 가능

<표 3-9> DFID의 다자기구 특유의 역량 인정부분과 다자성양자 활용 방향 개요

구분	내용
다자기구 특유의 역량	- 개별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에서 국제기구의 글로벌 존재감과 정당성을 활용 가능 - 중립적인 플랫폼 제공, 국제협정 또는 관련한 모니터링을 중계할 수 있는 역량 - 활동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 대규모의 원조 자금을 모으고 전달할 수 있는 역량 -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고 이끌 수 있는 정당성 - 광범위한 원조기구들을 활용하여 모든 국가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역량 - 기술적 전문성 보유 - 무슨 일이 왜 국제규모로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
다자성양자 활용방안	- 다자기구의 접근성 활용을 통한 양자사업의 지원에서 소외된 국가 및 취약층 지원 - 평화구축, 난민보호 등 다자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양자사업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수행 - 범분야적 이슈에 대한 대응 -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사업의 수행 등

자료: ICAI. 2015. How DFID Works with multilateral agencies to achieve impact; DFID. 2017a. Multilateral Development Review

3) 주요 공여기관의 대아프리카 지원 및 전략의 주요 특징2)

2) 권유경·최혜진(2019). KOICA의 동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 분석대상 및 개요

- 2017년 OECD 통계 기준, 대아프리카 ODA가 가장 많았던 5대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의 대아프리카협력과 전략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 미국, USAID

- USAI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표 3-10> USAI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표	- 미국 정부는 대외원조 목표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자립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안보 및 번영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USAID의 목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함 -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투자가 자국의 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하며 이에 아프리카지역은 최대 수혜지역임(전체 원조의 약 40%, 2017년 기준)					
분야 및 중점지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교육 및 보건에 속한 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인도주의 및 위기관리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수행.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지역 내에서는 뿔 지역(Horn of Africa)의 핵심국가인 에티오피아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 동향	‘성공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중심의 개발기관(business-focused development agency focused on results)’을 지향하는 USAID는 최근 들어 ‘공동의 이해(shared interest)’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진 경향을 보이며 원조가 어떻게 미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강조하며 ODA를 접근 -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외교 기조는 미국의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정 기여가 다자원조에 대한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 다자성양자(Multi-bi)가 강세를 보이며, UNESC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UNDP에 대한 지원을 급격히 줄임					
기타 (최근 3년 다자성양자 지원기구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5		2016		2017
	1	UNICEF	799.91 (34.5%)	WFP	1140.75 (50.6%)	1,373.6 (54.5%)
	2	WFP	699.202 (30.2%)	UNHCR	342.992 (15.2%)	560.65 (22.2%)
	3	IOM	149.84 (6.5%)	UNICEF	160.993 (7.1%)	240.622 (9.5%)
	4	WHO	141.437 (6.1%)	ICRC	144.25 (6.4%)	78.2447 (3.1%)
	5	UNDP	112.722 (4.9%)	CGIAR	92.461 (4.1%)	46.7827 (1.9%)

자료: USAID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OECD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26-34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용 함

○ USAID 대아프리카지역전략

- 아프리카지역을 단순한 개발 수혜자로서가 아닌 개발 이행자로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
- 안보에 위협을 야기하는 정치적 불안정 감소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정부, 기업, 대학 및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차세대 지도자, 기업가 등과의 파트너십 확대 심화에 중점

<표 3-11> USAID의 대아프리카 지원전략 요약

구분	중점	내용
1	Feed Future Initiative*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풍부한 자원과 경작 가능한 토지 활용을 통해 만성적 기아 및 빈곤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성장 촉진
2	보건시스템 강화	말라리아 감소, 산모의 안전한 출산 도모, HIV/AIDS 등 전염병 대처능력 강화
3	민주주의, 인권, 굿거버넌스 지원	부패 척결, 시민사회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4	Climate Shock에 대한 회복성 향상	기후변화 회복력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지원
5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다양한 형태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황에 복합적 지원

자료: USAID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권유경 · 최혜진(2019), p.27 재인용

* 미국 정부의 세계 기아 및 식량안보 이니셔티브로 전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증진을 위해서 각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활동 및 지원 수행. 전 세계 12개국이 중점 대상이며 이 중 7개가 아프리카지역에 해당

○ USAID 대아프리카지역전략 주요 특징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동/서/남아프리카 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단위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총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 혹은 지역의 특성이 하나로 압축되지 않고 복합적인 경우 각국의 국별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권역별 획일화된 형태가 아닌, 수원지역의 최우선 개발과제와 특성에 최적화하여 유연한 형태로 지원을 수행. 즉, 지역전략보다는 지역 특성에 초점을 둔 광역전략을 강조하는 경향

<표 3-12> USAID 대아프리카 지역별 지원전략 요약

구분	중앙	동	서	남
지역 특성	열대우림지역,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필요성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고 지역통합이	정치적 불안정, 취약한 거버넌스, 문제가 복합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

구분	중점	활발한 특성	지역 전략 및 중점분야	지원 특징
지역 전략 및 중점분야	- 중앙아프리카 지역 환경 프로그램(CARPE, Central Africa Regional Program for Environment) -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관리	- 지역무역촉진 - 식량안보와 회복력 강화 - 아프리카 주인의식 강화 - 건강개선 - 분쟁감소 및 평화지원 - 자연자원 보존 및 관리 - 인도적 지원 - 젊은 아프리카 리더를 위한 기회 창출	농업, 에너지, 무역, 거버넌스, 건강, 환경 및 안정성 복합 지원	- 농업 및 식량안보 -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 경제성장과 무역 - 환경 - 세계보건
지원 특징	자연자원을 지속관리 하고 산림토지 이용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부분 지원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개발을 위한 정부간 기구(IGAD),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기구 역할 활성화 지원	국가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향	무역 및 지역 경제적 유대 강화, HIV/AIDS 감소 및 식량안보, 민주적 이행 지원

자료: USAID 웹사이트 (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재인용: 권유경 · 최혜진(2019), pp. 27-28.

□ 영국, DFID

○ DFI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표 3-13> DFI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표	영국 정부는 '국익 속 글로벌 도전과제(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2015)'를 통해 예전 구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책임감, 유대감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영어권 아프리카 위주로 수행하던 원조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과제와 국익과의 연결성' 측면을 다소 강조하는 양상이며 DFID의 목표도 맥락을 같이 함
분야 및 중점지원 국가	교육 및 보건이 속한 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아프리카지역 전체가 아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 기준 상위국가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순임
최근 동향	'재원의 가치(Value for money)'기조를 내세우며 원조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 다자원조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됨을 강조하며 Multilateral Development review를 통해 다자기구 파트너들을 평가하고, UNIDO, ILO, UNISDR에 대한 지원은 중단

기타 (최근 3년 다자성양자 지원기구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5		2016		2017
	1	UNICEF	181.28 (24%)	UNICEF	179.00 (23.7%)	UNICEF 234.19 (27.5%)
	2	UNDP	109.46 (14.5%)	WFP	124.16 (16.4%)	WFP 164.35 (19.3%)
	3	WFP	105.94 (14%)	IBRD	90.33 (11.9%)	IBRD 69.82 (8.2%)
	4	IBRD	100.15 (13.3%)	ICRC	64.38 (8.5%)	ICRC 58.54 (6.9%)
	5	ICRC	39.27 (5.2%)	EIB	57.27 (7.6%)	UNPF 50.80 (6%)

자료: DFID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OECD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DFID 대아프리카지역전략

- 식민지 역사를 배경으로 과거부터 아프리카지역에서 광범위한 시장지배력을 유지 하던 영국은 점차 신규 세력의 진입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원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지니던 위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낌
- 이에, 영국 총리의 아프리카집중 순방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활동을 하며 영국이 G7 국가 중, 아프리카투자 1순위 국가로(현재는 미국 다음으로 2순위) 도약한다는 입장을 발표
- SDGs에 일치한 공동 목표를 지향하되, '영국세금의 가치있는 사용'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경제개발/기본서비스제공 등에 지원 집중

○ DFID 아프리카지역전략 주요 특징

- **국익에 도움이 되는 원조 지향** : 중점분야 중 하나를 경제발전으로 두며, 영국과 아프리카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꾀함. 이 부분은 기존 빈곤 퇴치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벗어나 영국 자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원조 수행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영국은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두고 민간 인프라개발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
- 또한 아프리카지역의 난민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에볼라 등 전세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경계 및 대비 등은 국익 위주의 원조 수행 강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총 6개의 지역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지역은 아프리카/중동북아프리카/사헬 지역 3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접근하며 33개 양자프로그램 국가 중 아프리카지역은 17개*가 해당
- * DR콩고,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독일, GIZ

○ GIZ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표 3-14> GIZ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표	• 경제 및 외교부처에서 독립된 별도의 경제협력개발부(BMZ)를 통해 독일원조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 등을 총괄하며 GIZ은 실행을 전담하며 BMZ가 추구하는 목표, 방향을 동일하게 이행					
분야 및 중점지원 국가	• 전문기술 전수나 지식 개발 등 협력국의 역량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프리카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 기준 상위국가는 튀니지, 이집트, 케냐 순임					
최근 동향	• 최근 들어 불법이주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부터 미분류 영역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는 추세 •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 기여 증가보다 국제기구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다자 기구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하되, 다자와 양자지원 간의 조화 증진도 추구하고자 하며 UNDP를 통한 남수단과 DR콩고 긴급구호가 두드러짐					
기타 (최근 3년 다자성양자 지원기구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5		2016		2017
	1	WFP	24.06 (67%)	UNICEF	17.03 (16.3%)	UNDP 45.27 (28.2%)
	2	UN	3.33 (9.3%)	WFP	15.92 (15.2%)	OHCHR 28.86 (18%)
	3	UNV	2.78 (7.7%)	UNDP	14.15 (13.6%)	EU 28.18 (17.6%)
	4	UNHCR	2.13 (5.9%)	UN	12.16 (11.6%)	UNHCR 19.39 (12.1%)
	5	UN WOMEN	1.70 (4.7%)	OHCHR	11.06 (10.6%)	IFC 11.27 (7%)

자료: GIZ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OECD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GIZ, 대아프리카 지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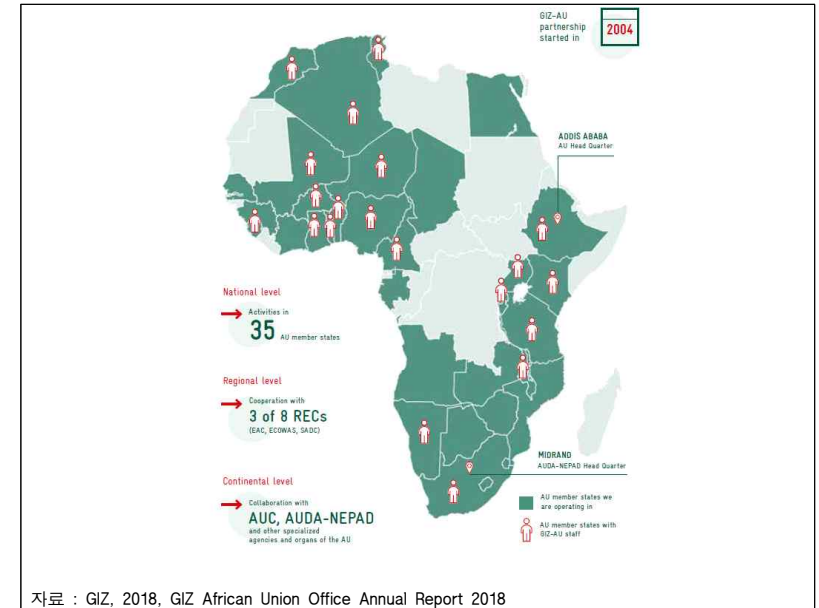
- 최근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가 발표한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미래에 관한 협약(A pact on the future, with Africa)'의 접근을 토대로 아프리카지원전략을 구상
-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미래에 관한 협약(A pact on the future, with Africa)'은 ①경제활동, 무역 및 고용, ②평화 및 안보, ③민주주의 및 법치 확립을 중심으로 ④식량 및 농업발전, ⑤자연자원의 보호, ⑥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⑦보건, 교육 및 사회 보호 영역을 중점으로 지원
- 각 영역에서 아프리카의 필요사항/독일의 지원영역/국제사회의 지원을 구분하여 제시, 아프리카의 수요 및 주인의식과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상당 부분을 ODA 중심으로 해결하던 양상에서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아프리카지역의 자생력 배양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관점이 전환된 것을 변

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음

- GIZ 아프리카지원, 지역별 전략 특징
 - 조직 차원의 수행 단위에서 서/중앙/남/동부/아프리카 뿔 및 초국가(supraregional)로 구분하나 아프리카대륙 전체단위에서 지역개발/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안보, 재건 및 평화/사회개발/거버넌스 및 민주주의/환경 및 기후변화/경제발전 및 고용 분야를 중점으로 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 특히, AU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AU의 8개 부서 중, 7개와 협력하여 5개 분야(평화안보/거버넌스 및 이주/지역경제통합/교육·청소년·고용/농업 및 토지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협력함을 강조
 - 또한 상당수 프로그램이 대륙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도 운용되는데 SADC, ECOWAS, IGAD, EAC 등 지역기구의 중점 계획에 일치시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들을 실현
 - 지원에 있어서는 GIZ 단독 수행보다는 민관협력, 타공여기관과의 협력, 복합협력 등 다차원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다수

[글상자 1] 독일(GIZ)의 AU 협력전략

- (GIZ-AU 파트너십) GIZ은 지난 2004년 AU Agenda 2063 및 SDGs 달성을 위한 아프리카의 대륙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관리, 효율성 및 조정 역량 강화를 공동의 목표로 AU와의 협력 파트너십 체결
- (GIZ AU 사무소 및 전문인력의 파견) 이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AU 본부에 GIZ 사무소를 설치하고 AU와의 협력이 추진되는 주요 기구들(AU집행위원회, AUDA-NEPAD, 아프리카인권재판소, 하위 지역기구 등)에 GIZ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AU와의 협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 중
- (주요 협력 분야) GIZ은 AU와 함께 크게 5개 분야의 프로그램(평화와 안보, 거버넌스와 이주, 지역경제통합, 농업/토지거버넌스/회복력, 교육/청년/고용)이며, 각 분야별 이행을 위해 다층적 접근(multi-level approach)을 추구하면서 관련 기구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파견 배치하고, 관련 연구, 공동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홍보,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지속 지원
- (기타) 통계적으로는 2004년 파트너십 체결 이후, GIZ은 AU 내 35개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8개 지역기구 중 3개 기구(EAC, ECOWAS, SADC)와 협력을 진행 중. 또한 대륙적 차원에서는 AU집행위원회, AUDA-NEPAD 등과 특수협력 관계 및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현재 AU집행위원회, AUDA-NEPAD, IPSS 등에 14명의 GIZ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자료 : GIZ, 2018, GIZ African Union Office Annual Report 2018

□ 프랑스, AFD

- AF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표 3-15> AFD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표	• 5가지 중요한 공유재(Common Goods)*를 보존하고 보호하여 모두가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ODA를 접근 * ‘5P’ 로 People, Planet, Partnership, Prosperity, Peace를 의미
분야 및 중점지원 국가	• 주요 섹터 이외에도 기후,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불평등 변화,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사회 건립, 스포츠와 개발 접목 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전(全) 영역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실행.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원 규모 기준 상위국가는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나이지리아 순임
최근동향	• 기존 구 식민지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아프리카지역의 중요성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 협력의 강도를 강화하는 양상 • OECD DAC 회원국 대비 다자성양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다자성양자 지원이 보건, 교육, 기후변화 관련 다자성양자 사업에서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자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경향

기타 (최근 3년 다자성양자 지원기구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5		2016		2017	
	1	ILO	1.94 (63.9%)	ILO	2.19 (63.4%)	ILO	2.30 (44%)
	2	UNDP	0.44 (14.6%)	UNDP	1.0 (28.8%)	IMF	1.35 (25.8%)
	3	IMF	0.35 (11.7%)	WHO	0.27 (7.8%)	UNDP	1.01 (19.4%)
	4	WHO	0.30 (9.7%)	-	-	UNICEF	0.56 (10.8%)
	5	-	-	-	-	-	-

자료: AFD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Elchenauer - Reinsberg. 2015. The use of multi-bi aid by France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FD; OECD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AFD, 대아프리카 지원전략
 - 아프리카지역 인구가 2050년이 되면 2배로 증가하여 전 세계 인류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지역이 향후 세계에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프랑스가발위(CICID)는 2018년 2월 회의에서 아프리카를 최우선험력지역으로 명명
 - 기존 과거 프랑스 식민지 중심의 접근에서 'Whole of Africa'로 접근을 확대, 북과 서사하라 아프리카지역으로 구분하던 방식을 변경. 아프리카대륙 자체로서 지니는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사며 이는 또는 아프리카지역이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 향상에 일치시키는 전략을 구사
- AFD 아프리카지원, 지역별 전략 특징
 - “전환(Transition)”을 키워드로 한 6가지 영역(에너지/디지털기술/경제/정치 및 시민의식/인구 및 사회/지역과 생태)에 중점 협력하며 자신들의 고유 협력 분야를 강조하면서도 철저하게 SDGs와 일치시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대열에 합류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16> AFD 중점협력 분야 개요

중점 분야	에너지 전환	디지털기술 전환	경제 전환	정치 및 시민의식 전환	인구 및 사회전환	지역과 생태 전환
협력 내용	아프리카에서 추진하기로 한 에너지 관련 약속 (commitment) 재차 강조*	SDGs 실현을 위한 창조 문화 산업 지원**	고부가 가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지원과 협력	- 열린 정부 - 파트너십: 공공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토론 촉진, 제도적 - 역량 강화, 민주적	- 대규모 교육펀딩 제공 - 보건 및 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성 촉진	- 도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모델 촉진 - 생물 다양성 보존

				정부 수립 지원 및 협력	스포츠와 사회적 연계 촉진***	
--	--	--	--	---	---	--

자료: AFD. 2018. AFD Group 2018-2022 Strategy: Towards a World in Common 활용, 저자 작성, 재인용: 권유경 · 최혜진(2019), p. 31.

* AFD는 파리협약(Paris Agreement)에서 아프리카의 에너지에 60억 불 투자를 약속한 바 있음

** 2018년 프랑스가발위(CICID)는 SDGs 달성에 있어 범분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 AFD는 보건, 교육, 영양 등과 같은 SDGs 달성을 위한 상당한 요소의 촉진제로서 스포츠를 고려

□ 일본, JICA

- JICA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표 3-17> JICA ODA-대아프리카 지원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표	국익 우선의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국기업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될 수 있는 협력 추진						
분야 및 중점지원 국가	경제 분야 중 교통과 통신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아프리카지역 내 지원 규모 기준 상위국가는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이집트 순임						
최근동향	아프리카의 주민의식과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기본 토대로 최근(2019년 8월) TICAD 7을 요코야마에서 개최, 공동의 경제성장 지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대, 추진 결의						
기타 (최근 3년 다자성양자 지원기구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5		2016		2017	
	1	WFP	74.28 (23.9%)	WFP	60.69 (19.7%)	WFP	49.32 (25.4%)
	2	UNHCR	74.18 (23.9%)	UNHCR	56.2 (18.2%)	UNICEF	47.24 (24.3%)
	3	UNDP	36.41 (11.7%)	UNICEF	53.91 (17.5%)	UNHCR	39.27 (20.2%)
	4	IOM	22.36 (7.2%)	UNDP	51.5 (16.7%)	GAVI	19 (9.8%)
	5	GAVI	17.37 (5.6%)	IOM	23.21 (7.5%)	IOM	18.78 (9.7%)

자료: JICA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OECD 통계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JICA, 대아프리카 지원전략
 - JICA는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 종합전략 격인 TICAD*에서 발표되는 이행전략과 정확하게 일치시켜 추진. 7차 TICAD에서 제시된 우선 분야에서 활동
 - *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African Development)는 냉전 이후, 원조 피로(aid fatigue) 속에서 아프리카 개발이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

로 작용, 1993년 시작하여 5년 주기로 개최하며 일본의 대아프리카 정치·경제·외교·개발협력 등을 포괄, 종합전략으로서 역할. 이를 통해 아프리카지역과의 관계를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 일-아프리카 관계를 공고히 함

○ JICA의 아프리카지원, 지역별 전략 특징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49개국을 대상으로 지리적 구분을 탈피, 지역이 지닌 특성에 따라 북아프리카/사헬지역/콩고와 코트디부아르/수단-남수단/아프리카 뿔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불안정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추가 지원을 수행
- 모든 전략과 활동을 TICAD에 일치시켜 조직하고 활동하여 아프리카지역으로 하여금 협력 분야, 수원 및 협력 주체 등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상쇄시키고 협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지님*
- * 다양한 전략, 주체 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료들은 일본이 추진하는 TICAD의 주요 맥락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경향을 나타냄. 또한 JICA는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TICAD의 어떤 맥락과 연결되어있는지를 매년 연차보고서에서 제시
- 특히, JICA는 TICAD 추진 과정에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뿐 아니라 원조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 강화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아프리카지역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에서 활동하는 타 공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시너지도 극대화하고자 노력함

□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지원 및 전략 특징

<표 3-18> 국제사회의 대아프리카 지원 및 전략 특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지원 배경	•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투자는 자국의 안보에 필수	• 글로벌과제와 국익의 연결성강조	• 가치있는 공존	• 공유재(Common Goods)의 보존, 보호를 통한 모두가 영위가능한 세상 건설	• 국익우선
최대지원 지역 및 아프리카 국가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아프리카/북아프리카의 핵심)	• 아프리카 • 소말리아	• 아프리카 • 튀니지	• 아프리카(2018년 최우선협력지역으로 명명) • 모로코	• 아시아 • 마다가스카르
주요 지원 대상 및 대상의 구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중앙/동/서/남 • AU를 별도 구분, 협력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중동 및 북아프리카/사헬 지역	• 전체아프리카 • 서/중앙/남/동/아프리카 뿔 및 초국가 • AU를 별도 구분, 협력	• 전체아프리카 • 최우선협력지역으로 명명 후, 전체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음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중동 및 북아프리카/사헬 지역/콩고 및 코트디부아르/수

					단-남수단/아프리카 뿔
전략의 특징	• 주인의식을 기반으로한 파트너십 강조 • 안보위협을 야기하는 정치적 불안정 감소에 중심 • 지역특성에 초점을 광역전략	• 국익에 도움되는 원조 지향 •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유도	•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아프리카지역의 자생력 배양 • AU 및 지역기구와의 파트너십 강조	• 전환(Transition)을 키워드로 한 6가지 영역(에너지/디지털기술/경제/정치 및 시민의식/인구 및 사회/지역과 생태에 집중 •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조	• TICAD에 전(全)일치된 전략 구사

자료: 저자 작성

4) UN 기구의 아프리카지원전략, 동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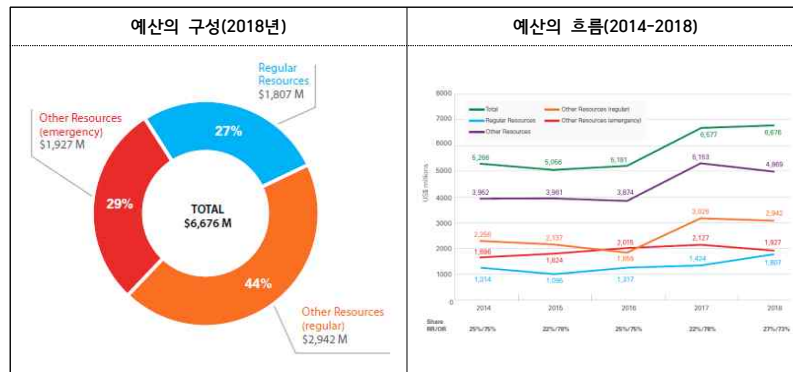
□ 분석대상 및 개요

- KOICA 5대 중점협력기관(UNDP, UNICEF, WHO, UNFPA, UNHCR)과 KOICA 측이 별도 요청한 UNFPA를 중심으로 이들의 대아프리카협력 전략 기초, 프로그램 주요 특징 등에 대해 분석하되, 2017년 KOICA 협력 규모(UNICEF, WFP, UNDP, UNHCR, UNFPA, WHO) 순으로 정리

□ UNICEF

- (개요) UNICEF는 아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개발협력을 수행하며, 중기 전략(2018-2021)을 통해 △아동들을 위한 결과를 창출하는 프로그래밍 △성평등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조직의 이념에 대한 결정자들과 대중으로부터의 지지확보 △자원과 파트너십 지원 동력 및 개발확대 △시장과 민간으로부터의 지원동력 확보 △UN과의 협력강화 △프로그래밍에서의 혁신력 강화 △자료와 증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추구 등을 추진
- 예산의 구성 및 내용
 - 전체 예산에서 특정 프로그램/지역에 국한된 펀드(Other resources)가 우세한 가운데(전체 예산의 73%, 2018년 기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며 주춤 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예산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3-3] UNICEF 예산의 구성과 흐름



자료: UNICEF. 2018. Compendium of resource partner contributions. p. 4.

○ 대아프리카 지원

- (규모 및 내용) UNICEF는 2017년 기준 예산 중 약 37%가 아프리카지역에 집행. UNICEF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서부/동남부로 크게 구분하여 접근

<표 3-19> UNICEF 아프리카 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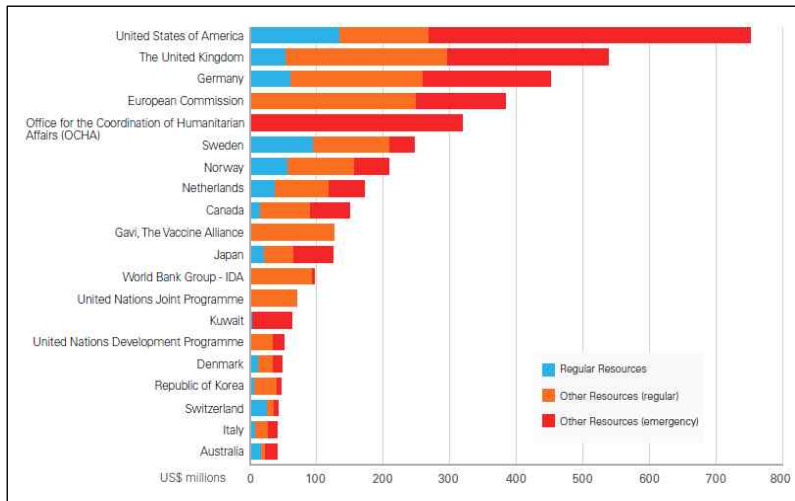
	중서부 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전략	5대 우선순위와 8개 주요 결과도출에 집중	13개의 프로그램 중심 운영
내용	■ 5대 우선순위 - 어린이 생존 - 교육 - 어린이 보호 - 수자원/위생 및 보건 - 아동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창출 및 제공 ■ 8대 주요 결과 - 예방접종 플러스: 6가지 주요 백신 예방 질병에 대한 기본 건강 관리 및 백신 무료 이용 - 발육 및 영양실조 관리:모유 수유 촉진, 보완 식품 및 미량 영양소 보충을 통한 저성장 예방 - 교육 접근성 향상 :교육, 조기 학습 프로그램의 확장, 직업훈련 및 국가 데이터 생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향상 - 양질의 학습 :향상된 교수 기술, 품질 표준, 생활 기술 프로그램 및 조기 학습 평가 강화 - 폭력과 착취 예방 관리: 성폭력 예방,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 및 분쟁 및 기타 재난 발생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관리	■ 13개 프로그램 - 청소년 발달 보호 및 참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행동 및 사회적 변화를 촉진 - 에볼라 예방 및 대응 : 집중지역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및 부룬디 - 아동빈곤퇴치: 정부가 아동 빈곤을 모니터링하고 비용 효율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진행 상황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젠더평등: 소녀역량강화 - HIV/AIDS 대응 - 아동을 위한 국내 자원의 개선: 아동 복지의 기초가 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의 규모와 영향을 극대화 - 양질의 교육 및 학습제공 : 모든 소녀와 소년 등 학습과정에서 배제될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양질의 교육, 학습 제공 - 발육저지요소 감소 - 위생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조혼:여성 생식기 절단 / 절단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지역 사회 동원의 영향을 받는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옹호 • 출생등록 :건강 시스템 및 원격 지역 사회를 통한 출생 등록율 증가, 민사 등록 및 중요한 통계 시스템 현대화. • 위생 및 야외 배변 관리: 위생시스템 구축	• 아동의 사회적 보호 • 생존 보호: 취약한 지역에서의 아동 사망률 감소 지원 • 식수환경: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지원
담당국가	24개국* * 카보베르데 제외	21개국* * 수단, 지부티, 세이셸, 모리셔스 제외

자료: UNICEF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지원 규모 별 최상위국가)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니제르, 우간다 (2017년 기준)
- (지정 기여 국가 금액별 순위) 상위 20개 공공부문에서 UNICEF의 펀드 약 67%를 차지하는 가운데, 정규예산의 41%, 기타 재원의 75%를 담당. 지정 기여의 경우 미국(6.1억 불), 영국(4.8억 불), 독일(3.8억 불), 노르웨이(1.6억 불), 스웨덴(1.4억 불) 순으로 높았음*
- * 아프리카지역 특화가 아닌 전체 금액 기준

[그림 3-4] UNICEF 펀드 기여



자료: UNICEF. 2018. Compendium of resource partner contributions. p. 6.

- (지정 기여에서의 시사점) UNICEF의 경우, 중서부/동남부의 지역 현황을 고려한, 다소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협력 시, 현장에서의 경험과 분야 전문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WFP

- (개요) '전세계의 기아종식'을 목표로 식량 지원을 통한 원조를 실시하는 WFP는 자신들의 전략계획(2017-2021)을 통해 SDGs 이행에 부합하면서 특히 '기아종식 SDGs 2'와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DGs 17'에 중점을 두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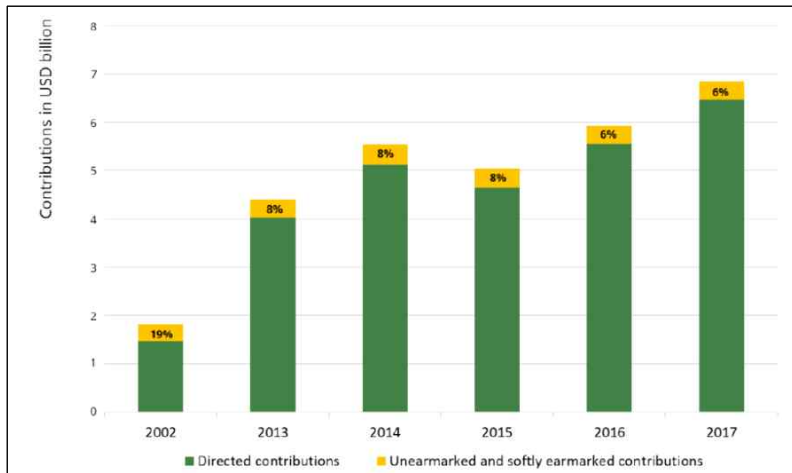
<표 3-20> WFP 전략계획(2017-2021) 개요

구분	내용	
전략	SDGs 이행에 부합하되 '목표 2번 기아종식'과 '목표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에 중점	
세부 전략	Strategic Goal 1 기아 제로 달성	Strategic Goal 2 SDG 이행을 위한 파트너
세부 내용	전략적 목표 1. 식량에 대한 접근 보호를 통한 기아퇴치 → 전략적 결과 1. 누구나 식량에 접근 가능토록 함(SDGs Target 2.1)	전략적 목표 4. SDG 이행 지원 → 전략적 결과 5.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SDG Target 17.9) → 전략적 결과 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일관성 지원(SDG Target 17.14)
	전략적 목표 2. 영양개선 → 전략적 결과 2.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함(SDGs Target 2.2)	전략적 목표 5. SDG 결과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전략적 결과 7. 개발 투자를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금융에 접근 지원 (SDG Target 17.3)
	전략적 목표 3. 식량안보달성 → 전략적 결과 3. 소작농들이 생산성 및 수입을 증대하여 영양 및 식량안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SDGs Target 2.3) → 전략적 결과 4. 식량 시스템 안정화 (SDGs Target 2.4)	전략적 결과 8. 지식, 전문기술 및 기술 공유, 국가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강화(SDG Target 17.16)

자료: WFP. 2017. Strategic Plan(2017-2021). pp. 4-5

- 예산의 구성 및 내용
 - 전반적으로 직접 기여(Directed contribution)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94%), 예산의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동행 상승

[그림 3-5] WFP 예산 구성



자료: WFP. 2018. Annual performance report. p.32

○ 대아프리카지원

- (규모 및 내용) 2017년 기준, 전체 예산 중 약 60%가 아프리카지역에 집행되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전략 추진을 위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연합(AU)의 'Agenda 2063'과 'Africa Risk Capacity(ARS) mutual insurance initiative'와 일치시켜, 사업 추진. 또한 아프리카지역을 남/서/중동부로 구분하며 DR콩고,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북동지역, 남수단은 긴급지원센터를 별도 운영
- (지정 규모별 최상위국가) DR콩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2017년 기준)
- (지정 기여 국가 금액별 순위)* 미국(25억 불), 독일(9.2억 불), 영국(5.8억 불), 캐나다(1.9억 불), 일본(1.7억 불)

* 아프리카지역 특화가 아닌 전체 금액 기준

- (지정 기여에서의 시사점) 전략 목표가 타 기관대비, 상대적으로 집중, 명확한 편이며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이 이행보고서 등을 근거로 볼 때, 세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전세계 6개 긴급지원센터 중, 4개가 아프리카지역에 포진*, 해당 국가와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지역 전문성 활용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나머지 2개 국가는 예멘과 시리아

[그림 3-6] WFP 전략적 목표 이행 현황

Strategic objective	Performance
1 - End hunger by protecting access to food	●
2 - Improve nutrition	●
3 - Achieve food security	●
4 - Support SDG implementation	●
5 - Partner for SDG results	●

자료: WFP. 2018. Annual performance report. p.32

□ UNDP

- (개요) UNDP는 SDGs 달성을 위해 매진하되, 전략(2018-2021)에서 3가지의 개발 과제와 6가지의 솔루션으로 접근,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아프리카연합의 Agenda 2063에 개발목표를 일치시켜, 개발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중점을 둬

<표 3-21> UNDP 3가지 개발 과제 및 6가지 솔루션 개요

구분	내용	세부 내용
3가지 개발 과제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 빈곤퇴치	이미 존재하는 빈곤과 다시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분야 통합솔루션 필요
	구조적인 변화의 가속화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책임감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성 증가, 진보적인 기술도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혁 필요
	충격과 위기에 대한 복원력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영향력 확대, 국가 위기 예방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 필요
6가지 솔루션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	사람들을 빈곤에 가두는 또는 빈곤으로 되돌려놓는 장벽과 취약점 해결을 목표, 경제-환경-건강 위험에 대한 복원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혼합적인 솔루션 사용
	효율적, 포괄적이고 책임있는 거버넌스 강화	여성, 장애인,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사회로의 성장에 대한 지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른 핵심 거버넌스 기능 강화, 법제도강화 등
	위기에 대한 국가 예방 및 복원력 강화	위기 예방 및 평화구축, 재난 위험 감소,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및 위기 대응에 관한 UNDP 개발 접근법과 전문성을 활용, 국가의 사전 위기 예방 및 위기 후 빠른 복원력 제고 지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생태계 파괴로 이끄는 시장, 정책, 거버넌스의 실패에 대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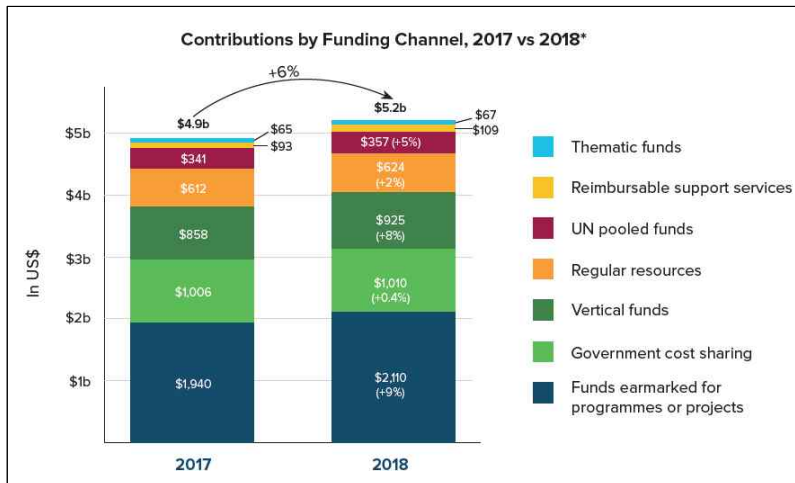
자연기반 솔루션 촉진	통해 생물 다양성 손실문제를 해결, FAO, UNEP 및 기타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된 통합조치 적용
에너지 격차 감소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증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및 에너지 효율성 증가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 강화	성불평등 및 구조적 원인 제거를 위한 ILO, UNFPA, UN-Women과 같은 타 기관과의 협력

자료: UNDP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KOICA 제공

○ 예산의 구성 및 내용

- 전체적으로 2017년에서 2018년 들어서며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특정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정 기여(Funds earmarked for programmes or projects)'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9%)로 상승하고 또 다른 지정 기여 유형인 Thematic Funds 또한 6% 증가

[그림 3-7] UNDP 예산 구성 비교 (2017년 vs. 2018년)



자료: UNDP 2018. Annual report.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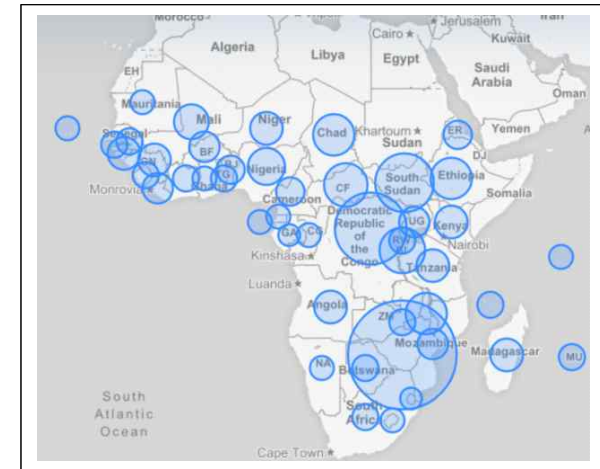
○ 대아프리카 지원

- (규모 및 내용) 2017년 기준, 예산 중 약 60%가 아프리카지역에 집행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등과 관련한 포괄적 성장 등 구조적 경제변환 촉진 △성평등 및 여성의 정치 및 경제적 역량강화 △충격과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남남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거버넌스 향상, 5개 주요 주제를 중심

으로 활동

- (지원 규모별 최상위국가) DR콩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부룬디, 말라위(2017년 기준)

[그림 3-8] UNDP 아프리카 프로젝트 맵 (2019년 기준)



자료: UNDP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지원 규모와 표적 마크의 크기 비례

- (지정 기여 국가 금액별 순위)* 독일(3.5억 불), 일본(2.3억 불), 미국(1.8억 불), 영국(1.4억 불), 스웨덴(0.9억 불)

* 아프리카지역 특화가 아닌 전체 금액 기준

- (지정 기여에서의 시사점) 독일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에서 즉각적인 안정화가 필요하나 치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곳 위주로 다자성양자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은 대아프리카전략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TICAD의 효율적 집행과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점이 돋보임. 이에, 치안 불안정 지역이나 국가적 맥락의 주요 프로그램의 현지에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UNDP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성 있음

* 최근 3년간 지정 기여 사업리스트 지원 규모 순 분석결과, 리비아, 말리, 카메룬 분쟁지역 등에서의 사업으로 유추

[붙임자료 2] 일본-UNDP TICAD Process Promotion Support Fund (TPPSF)

- (개요) UNDP는 TICAD의 아젠다 설정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TPPSF를 별도 구성하여 운용

- (주요 구성 내용) UNDP는 TPPSF를 통해 TICAD Process의 향상에 기여 해왔으며, 특히 △TICAD 전략 아젠다 설정과 완성, △TICAD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지역 프로젝트 발굴, 형성, 이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TICAD Process의 원활한 관리, △TICAD Process의 운영 및 물류, △TICAD Process 홍보 등의 역할을 지원

○ (기간 및 예산 규모)

- 전체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관계자 직접 면담 등의 추가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개된 자료에 의거 파악한 결과, 일례로 2013년 개최된 TICAD V와 2014년의 연이은 TICAD V 장관급회의(Ministerial Meeting)의 후속조치로써 정상 및 장관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기제로써 활용된 TPPSF의 2015년 연간활동계획(Annual Work Plan)을 통해 2015년 1~12월까지 12개월간 요청 예산이 약 89만 불 규모인 것으로 파악
- 이와 더불어, TICAD의 국제사회 공동주최자들에 의해 형성된 TICAD 특별 전담팀(Special Unit for TICAD)이 UNDP 본부 내의 아프리카지역국(RBA, Regional Bureau for Africa)으로 통합되면서 TICAD Process에 대한 UNDP의 전반의 포괄적 지원이 제공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함

[TICAD]

- 올해로 출범 26주년을 맞이하는 TICAD는 금년(2019년) 8월 TICAD VII를 앞두고 있으며, 1993년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 더불어 다수의 국제기구가 공동주최자(Co-organizers)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TICAD의 공신력 제고 및 아젠다 설정과 같은 TICAD Process의 이행과 관리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강화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음
- TICAD 공동주최자의 경우, 1993년 TICAD I 당시 : 일본 정부, UN, Global Coalition for Africa였으나 현재는 일본 정부를 포함 UNDP, World Bank(제3차 TICAD부터 참여), UN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Africa(OSAA), African Union Commission(제5차 TICAD부터 참여)로 다각적으로 확대
- TICAD의 공동주최자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UNDP의 경우, 지난 20여년 간 TICAD Process를 통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왔음. 특히, TICAD IV(2008년) 이후,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지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 중 약 8억 불이 UNDP를 통해 지원되었으며, JICA 본부 및 사무소 수준 모두에서 UNDP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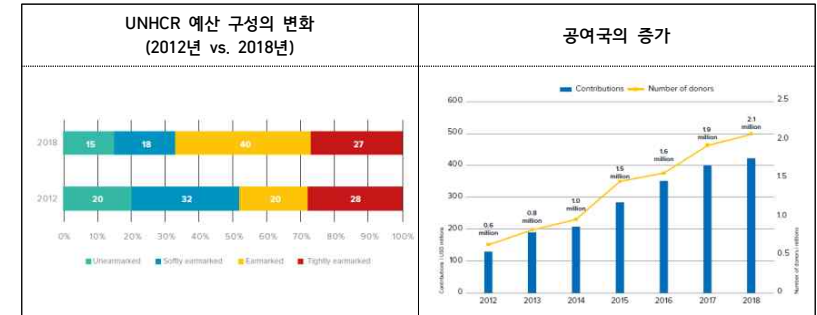
자료: UNDP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TICAD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UNHCR

- (개요) 비정치적,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영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HCR은 △Pillar 1. 피난민프로그램 △Pillar 2. 무국적(stateless)프로그램 △Pillar 3. 재통합프로그램 △Pillar 4. 국내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
- 예산의 구성 및 내용
 - 지정 기여(Earmarked, Tightly earmarked)가 2012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공여국이 증가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

[그림 3-9] UNHCR 예산 구성의 변화(2012년 vs. 2018년)와 공여국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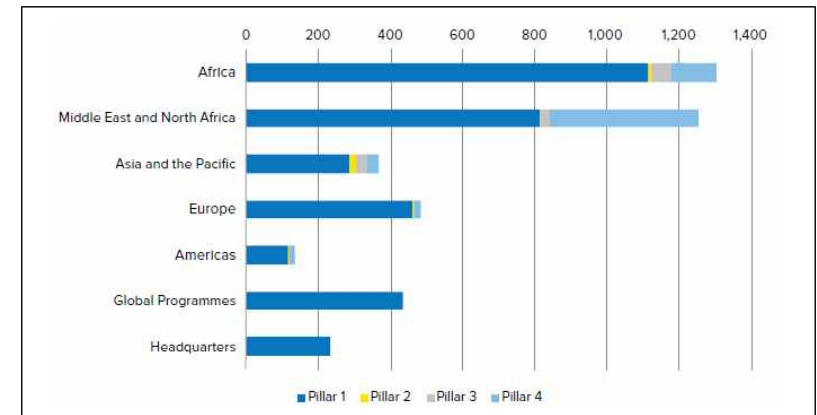


자료: UNHCR. 2018. Global report. p. 42, 44

○ 대아프리카지원

- (규모 및 내용) 2018년 기준, 예산의 약 30%가 아프리카지역에 지원되었으며 특히, Pillar 1에 해당하는 피난민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됨. UNHCR은 아프리카지역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서/남/동부 및 아프리카 뿔지역/중앙 및 대호수지역으로 구분, 접근

[그림 3-10] UNHCR 지역과 필라별 지출(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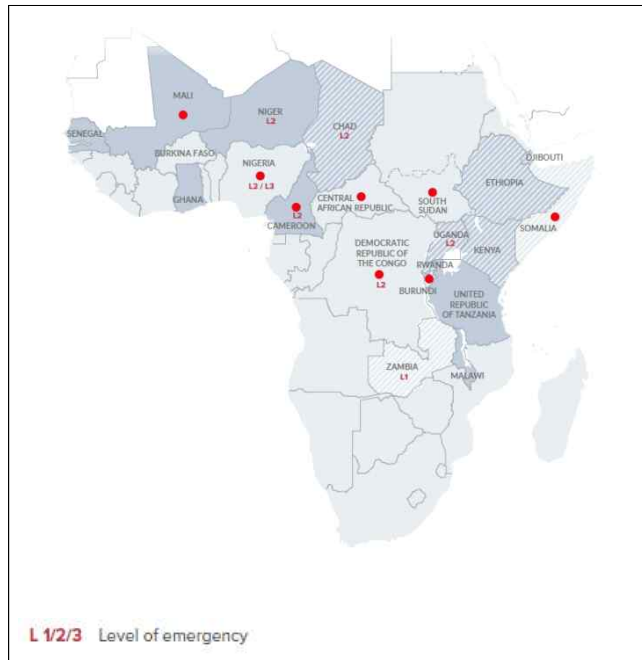
자료: UNHCR. 2018. Global report. p. 49

- 특히,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난민 수가 약 3배 증

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지원이 급증하는 수에 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급지원 단계를 설정 지원

- 2018년의 경우, 아프리카지역 중에서도 동부 및 뿔 지역에 대한 지원이 61%로 다른 지역보다 우세하였으며 소말리아와 남수단 분쟁으로 인한 난민프로그램 지원이 90%에 육박

[그림 3-11] UNHCR 집중 지원 아프리카국가



자료: UNHCR. 2018. Global report. p. 67

- (지원 규모별 최상위국가) 우간다, 에티오피아, 남수단, DR콩고, 차드(2018년 기준)
- (지정 기여 국가 금액별 순위)* 미국(8.1억 불), 독일(5.6억 불), 스웨덴(1.6억 불), 덴마크(1.5억 불), 영국(1.5억 불)

* 아프리카지역 특화가 아닌 전체 금액 기준

- (지정 기여에서의 시사점) UNHCR에서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특정 국가에 위치한 난민센터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 국가의 이동이 상당히 전제되는 내용을 다룸. 이에, 주제의 성격을 고려, 국가에 국한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역(광역)

프로그램 형식으로 접근 시 UNHCR과 협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

□ UNFPA

- (개요) 인구문제, 특히 성생식 보건과 관련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FPA는 2018년 모든 남성, 여성, 청소년을 위한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3-Zero Agenda” △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가족계획에 대한 필요 충족 △예방가능한 모성 사망에 대한 종식 △젠더기반 폭력 행위 근절을 중심으로 활동

- 예산의 구성 및 내용

- 2018년 기준 전체 12.9억 불 예산에서 UNFPA 고유업무(core resources)에 4.5억 불, 지정 기여(earmarked for specific programmes or initiatives) 8.3억 불로 구성

[그림 3-12] UNFPA 예산의 구성

Core resources	
Contributions to core resources	378.8
Other revenue	78.5
Total core resources revenue	457.3
Non-core resources	
Contributions to non-core resources, gross	876.8
Refunds to donors	(5.0)
Indirect costs	(47.5)
Other revenue	8.7
Total non-core resources revenue	833.0
TOTAL REVENUE	1,290.3

자료: UNFPA. 2018a. Annual Report. p.42

- 대아프리카 지원

- (규모 및 내용) 2018년 기준, 예산의 약 42%가 아프리카지역에서 집행되었으며

아프리카지역에서는 AU Agenda 2063과 맥락을 함께 하며 크게 중서부와 동남부로 구분하여 접근

<표 3-22> UNFPA 아프리카 지원 개요

	중서부 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전략	기존 “3-Zero Agenda”에 중서부 아프리카 특징을 고려, 추가 지원 전략	기존 “3-Zero Agenda”에 동남부 아프리카 특징을 고려하고 아프리카연합 추진 아젠다에 맥락을 함께하는 플래그십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중서부 아프리카 추가 고려사항 • 종교지도자 및 신앙 기반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구배당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 누공(Obstetric Fistula) 근절 • 사헬지역 여성 역량강화와 인구통계배당프로젝트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	■ 동남부 플래그십 프로그램 • 모성 사망률 감소 가속화 프로그램(CARMMA, Campaign on Accelerated Reduction of Maternal Mortality in Africa)** • 산모사망 예방프로그램(PremDES, Preventing Maternal Deaths in East and Southern Africa programme) • 남아프리카지역 대상 청소년 및 청년 성생식 보건 포괄 지원프로그램 (SYP, Safeguard Young People) • 성생식 건강서비스 및 HIV 통합관리(SRHR-HIV Linkages)
담당 국가	• 세네갈에 중서부아프리카 지역사무소를 기반으로 23개국 담당 : 볼리비아, 15(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토고; 영어권 5(감비아,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포르투갈어권 3(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스페인어권 1(적도기니)	• 남아공에 동남부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23개국 담당 :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코모로, DR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 남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자료 : UNFPA. 2018b. Regional office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nnual report; UNFPA ESARO 웹사이트 (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유엔인구기금이 정의한 인구통계학적 배당은 “노동 생산성 증가는 노동력증가에서 기인한다”를 기반으로 하며 젊은 인구증가, 다산율 감소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연관

**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이니셔티브 지원프로그램

- (지원 규모별 최상위국가) 모잠비크, 남수단, DR콩고,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 (지정 기여 국가 금액별 순위) 미국(1.2억 불), 캐나다(1.1억 불), 노르웨이(0.6억 불), 네덜란드(0.5억 불), 호주(0.5억 불)
- (지정 기여에서의 시사점)
: 전반적으로 성생식 보건에 대한 지원(49.5%)이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정

기여의 경우, 성생식 보건관련 예산이 약 1/3에 근접하게 배정. 상당수 공여국들이 UNFPA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성생식 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집행 효율성을 인정한다고 유추할 수 있음.

: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에서의 상이한 종교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 성생식 보건 분야 사업, ‘누공’과 같은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서의 협업 등은 UNFPA의 지역 및 분야 전문성을 활용,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동아프리카지역에서의 아프리카연합위원회 추진 이니셔티브에 일조 등은 국제사회 거의 모두가 동조하는 아프리카연합의 Agenda 2063에 일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

[그림 3-13] UNFPA 예산에 따른 주요 집행 분야 (2018년)

	Core resources	Non-core resources	Institutional budget	Total	Total by percentag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112.1	400.4	—	512.5	49.5%
Youth and adolescents	25.2	48.0	—	73.2	7.1%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9.8	132.8	—	162.6	15.7%
Data for development	40.3	71.8	—	112.1	10.8%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5.0	7.0	162.5	174.5	16.9%
TOTAL	212.4	660.0	162.5	1,034.9	100.0

자료: UNFPA. 2018. Annual Report. p.44

□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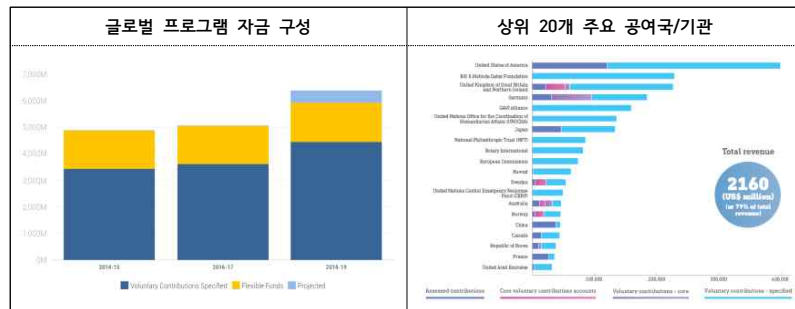
○ (개요) 세계 인류가 신체·정신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WHO는 보건거버넌스, 우선순위 설정, 파트너간의 조화, 조직 효율성을 강조

○ 예산의 구성 및 내용

- 예산은 크게 자체 운영프로젝트(projected)/자발적 공여(Voluntary Contributions Specified)/유동성자금(Flexible Funds)으로 구분되는데,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자발적 공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동성 자금은 유지

* 상위 20개 주요 공여국(기관)들이 전체 예산의 79%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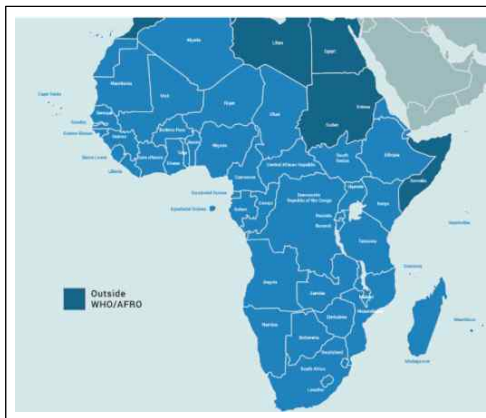
[그림 3-14] WHO 글로벌프로그램 자금 구성과 주요 공여국/기관



자료: WHO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WHO. 2019. Result report (2018-2019). p. 82

- 대아프리카 지원
 - (규모 및 내용) 2017년 기준, 예산의 약 24%가 아프리카지역에 집행되었으며* 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으로 △전염병 관리 △비전염병관리 △생애주기를 통한 보건 △보건시스템 구축 △소아마비 근절 △WHO 응급 보건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수행
 - * WHO의 경우, 본부에 25% 이상 예산을 사용, 지역프로그램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이 1순위로 지원이 높음

[그림 3-15] WHO 아프리카지역 활동 국가



자료: WHO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 리비아, 이집트,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지역은 국가사무소 부재

- (지원 규모별 최상위국가)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순(2017년 기준)
- (지정 기여 국가 금액별 순위)* 미국(6.3억 불), 영국(3.6억 불), 독일(2.1억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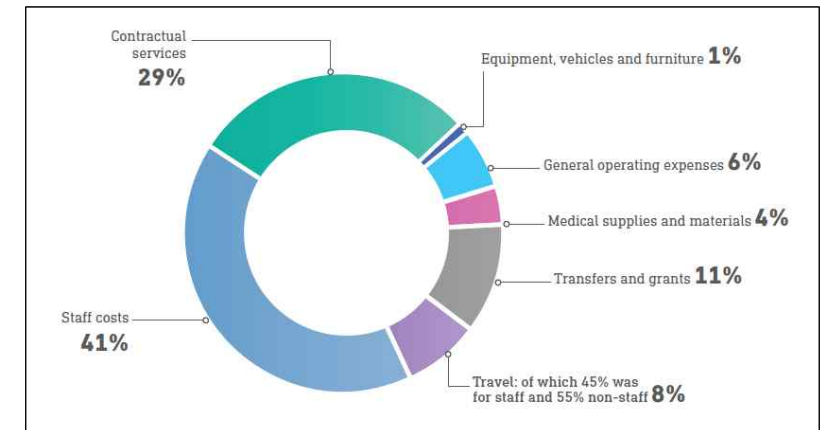
일본(1.2억 불), 캐나다(8,100만 불) 순(2018년 기준)

* 아프리카지역 특화가 아닌 전체 금액 기준

- (지정 기여에서의 시사점) WHO는 인건비 지출이 2018년 기준 41%로 프로그램 직접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글로벌 지역 지원 중에는 아프리카가 상당히 높으나 본부에 보다 집중된 예산을 사용, 긴급 전염성 질병 등 특수 전문성과 연관된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 2017년 대비 1% 증가

[그림 3-16] 2018년 WHO 프로그램 예산 지출 구성



자료: WHO. 2019. Result report (2018-2019). p. 85

□ UN 기구의 대아프리카 지원 및 기타

<표 3-23> UN 기구의 대아프리카 지원 및 기타 개요

	UNICEF	WFP	UNDP	UNHCR	UNFPA	WHO
주력 분야 키워드	아동	식량	빈곤	이주	성생식 보건	보건
아프리카 지원 비중*	37%	60%	60%	30%	42%	24%
아프리카 지역 구분	*사하라 이남 *중서부/동남부	*사하라 이남 *남/서/중동부	*사하라 이남	*사하라 이남 *서/남/동부 및 아프리카 북/중앙 및	*사하라 이남 *중서부/동남부	*아프리카전체

				대호수		
최대 수혜국가*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DR콩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DR콩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남수단	모잠비크, 남수단, DR콩고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공통 특징	지정 기여에 대한 상승					
다자성양자 비중*	46%	94%	38%	65%	59%	72%
지정 기여 공여국 규모 순*	미국, 영국, 독일	미국, 독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미국, 독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영국, 독일

자료: 각 기관별 연차보고서 및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UNHCR, UNFPA의 최대 수혜국(2018년 기준) 제외, 2017년 기준 자료

[붙임자 3] UN 기구별 재원 및 다자성양자 재원 표기 구분 정리

각 국제기구별 1년 총 기금에서 지정기여 재원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모두 상이하여 본문에서 다른 6대기구를 중심으로 재원 구분 및 표기를 작성

구분	총 재원 구분	다자성양자 재원 표기
UNICEF	- Regular Resources(RR) - Other Resources(OR) - Emergency - Regular	- Other Resource(OR) · Regular
WFP	- Directed Contribution - Unearmarked & softly earmarked contributions	Directed Contribution
UNDP	- Thematic funds - Reimbursable support services - UN pooled funds - Regular resources - Vertical funds - Government cost sharing - Funds earmarked for programmes or projects	Funds earmarked for programmes or projects
UNHCR	- Unearmarked - Softly earmarked - Earmarked - Tightly earmarked	- Earmarked - Tightly earmarked
UNFPA	- Core resource - Non-core resource - Institutional budget	Non-core resource
WHO	- Specified voluntary contribution - Flexible Funds - Projected	Specified voluntary contribution

자료: OECD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4. 한-아프리카포럼, 정부의 신(新)아프리카전략 및 국내 ODA 환경

1) 한-아프리카포럼³⁾

□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중요성 대두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추진 배경) 대외환경 변화와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지역과의 외교 관계 중요성 등이 고려
 - 아프리카지역의 성장 가속화, 정치적 안정, 소비시장으로서의 급부상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는 아프리카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지니는 중요성* 등이 함께 작용
- * 아프리카국가들은 UN 회원국(193개국)의 28%(54개국) 차지,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해서 아프리카국가와의 외교 관계 강화가 매우 중요해짐
 - 200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로 기존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아프리카로 다변화. 이를 통해 한국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한-아프리카포럼의 정례화가 시작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한-아프리카포럼의 추진

- 2006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발표, 당해 1차 한-아프리카포럼을 개최
 - 이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AU)과 공동으로 2차, 3차 한-아프리카포럼을 2008년, 2011년에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4차 포럼을 에티오피아(2016년)에서 추진한 바 있음
 - 5차 한-아프리카포럼을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 1~4차 한-아프리카포럼 주요 특징

- 한-아프리카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지역 간의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협의체로 주로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3) 권유경·최혜진(2019). KOICA의 동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35-37에서 일부 보완함

- 2차부터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매회 차 아프리카지역의 환경변화, 아프리카연합의 추진 정책 및 국내정책 등을 고려, 분야를 선정하고 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상호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협력분야가 세분화 되는 양상
-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4차 한-아프리카포럼을 계기로 개최지를 한국과 아프리카지역을 오가며 진행하기로 합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증대

□ 4차 한-아프리카포럼(2016-2021)

- (개요) 2016년 12월 7일 AU 본부가 있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4차 한-아프리카포럼은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안보 촉진 △한-아프리카 공동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2개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고 평화안보/경제·사회/인적자원개발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

〈표 3-24〉 4차 한-아프리카포럼 협력 프레임워크

분야	협력 분야	프로그램	비고
경제 협력	1.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가치 부가	모든 RECs에서 국제가치 사슬과 연계된 산업, 제조 허브 개발 아프리카의 산업개발을 위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1.2	무역, 산업개발 및 투자	아프리카 내 무역증진을 위한 지역 상품 교환 프로그램 한-아프리카 무역, 투자 네트워크(한-아프리카간 무역 증진)
	1.3	천연자원, 재고(inventory) 및 개발	지구과학, 광업 정보시스템, 가치 부가 등 관련 아프리카의 기관 역량 강화
	1.4	농업생산	곡물 수확 후 손실 방지 및 기업형 농업 실현을 위한 투자 지원 영세 농민의 생산능력, 자생력 함양: 현지화된 곡물 종자 사용 및 지속가능한 생산 실현
	1.5	블루이코노미, 항만, 수산운송	아프리카의 운송 산업 재정 지원, 해운대학, 우수 연구센터 지원 프로그램 아프리카의 운송 산업개발 프로그램 블루 이코노미 지향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1.6	공중보건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 Centers(PHEOC) 설립 지원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CDC) 가동 지원	
			공공보건 분야 정보시스템 강화	
			모자 및 청소년 건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인적 자원 개발과 과학 기술	2.1	인적자원개발	범아프리카대학과 한국 대학간 네트워크 한-아프리카 장학 프로그램	
	2.2	과학기술	한-아프리카 기업가 포럼을 통한 과학, 기술, 혁신 한-아프리카 우주 교육, 훈련, 연구 네트워크 사이버안보 정책, 법령 개발 지원 및 사이버 범죄 대응 협력	미래부
청년 개발과 여성 역량 강화	3.1	청년개발	아프리카 청년들의 기술개발, 기업가 정신 육성 및 교류 사업	
	3.2	여성 역량 강화	여성교육 : 소녀들의 학업 완수 지원사업	
평화 안보	4.1	아프리카 평화안보	AU 대테러 교육연구센터(ACSRT) 회의장 신축	
	4.2	평화지원	말리 레벨 II 의료시설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5.1	모니터링과 평가	한-아프리카간 공동의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협의회	

자료: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자료 활용, 저자 작성, 재인용: 권유경·최혜진(2019), pp. 36-37.

* 본 내용의 상기 협력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AU간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소요예산 등은 한-AU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됨. 이후 AU와의 정례협의를 통해 실제 이행프로그램은 지속 논의 중으로 상기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4차 포럼 이후 추진된 「1차 한-AU 정책협의(2017)」 내용 중 KOICA 추가 논의

- (한-AU 공동연수 사업) 한-AU 협력제고의 일환으로 한국의 축적된 행정 경험이 AU 회원국의 제도 및 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한-AU 공동연수 사업 추진
 - 공동연수 분야는 에티오피아 소재 KOICA 사무소와 AU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Modernizatio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for Promoting Trade) △전자정부 역량 강화(E-Government Policy Development) △행정혁신(Public Administration Innovation) 3가지로 선정
- 또한 「협력프레임워크」 내 AU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2019년 KOICA 사업으로 1-2 건 추가, 추진하기로 결정

□ 향후 한-아프리카포럼 전망

- 「2차 한-AU 정책협약(2018)」에서 △청년교류, △인적자원개발, △농업, △평화·안보 분야를 중점으로 향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2019. 07) 외교부 장관의 AU 집행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아프리카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체결, 한-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청년교류를 더욱 증진하기로 협의
- 5차 한-아프리카포럼은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4차 포럼에 대한 이행 점검, 평가를 바탕으로 한 1~4차 포럼 결과를 고려할 때 개발협력 분야는 양적·질적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KOICA는 4차 포럼에서 KOICA에 해당하는 분야를 기본으로 KOICA의 대내외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의 확대,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정부의 중장기 新아프리카 전략: 한-아프리카 비전 2030

□ 수립배경

- 외교부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新아프리카 외교를 추진하고자 2030년 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한-아프리카 비전 2030'을 2019년 하반기에 수립

□ 비전

- 동 전략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와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는 보완적 역할 지향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한-아프리카 상생발전의 동반자관계”를 제시
 - 우리 정부의 기존 아프리카 정책 및 비전을 계승 발전하고, 문재인 정부의 3P(사람, 평화, 번영) 외교철학을 구현하되, 아프리카 지역의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및 AU의 '아젠다 2063' 달성 지원을 명시

□ 목표 및 추진 방향

- 동 전략은 △평화·안보 증진, △상생번영, △상호이해와 교류확대의 세 가지 전략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

- 특히, 상생번영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서 개발협력 사업의 가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분야 연계 확대 방안 모색을 강조
 - 세부 추진 방향으로 ①비교우위(인적자원개발, 보건, 농업, 산업화)와 SDGs 달성을 위한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협력사업의 국가 브랜드화를 위한 상징적 이니셔티브의 발굴·추진, ②인도주의 성격의 지원 지속, ③對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AU와의 협력 증진과 '한-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의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 가이드라인으로의 활용을 제시
 - 또한, 정부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KOTRA·KIND 등 기관 간 정책·사업 연계/효과성 제고를 강조

□ 추진 체계

- 상기 전략의 추진 체계로 △조정부처 아프리카 정책 추진체계 수립, △정상외교 등 고위급 교류 확대, △對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AU, 지역경제기구 및 제3국과의 對아프리카 협력기반 구축, △아프리카 정치·경제 상황별 맞춤형 전략 추진을 내세우고 있음
- 특히, 한-AU 협력기금 확대, 공동관심 분야의 협력사업 발굴과 시행, 권역별 지역경제기구와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통한 對아프리카 협력기반 구축을 제시

3) 국내 ODA 환경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6-2020)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방향)
 - UN의 SDGs가 기존 MDGs의 사회개발 위주의 의제에서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 개발협력의 범위와 유형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된 점을 고려, 국내 ODA에 이러한 개발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 또한 개도국 내 대규모 사업 증가 및 기후변화·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 부족한 개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제고

- ODA 효과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부응

○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비전 아래, SDGs 이행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적인 ODA/내실있는 ODA/함께하는 ODA'로 추진 방향을 설정, 유무상의 통합, ODA 콘텐츠 강화,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재원 운용계획)

-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을 0.2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 아래, 유·무상 비율은 40:60, 양·다자 비율은 75:25, 비구속성 비율은 유상은 55%, 무상은 95% 수준까지 확대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 지원, 분야별로는 SDGs의 방향에 부합되게 배분하되, 개도국 소녀 보건 및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지원

○ (기타)

- 또한,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원조 집행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KOICA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2019)

○ (개발협력 대내외 여건 및 방향)

- 개발수요의 증가와 함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민간 참여확대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및 혁신적 파트너십 도입 △개발협력을 자국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경향 등을 다룸

- 특히,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 및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해외 진출 등에 기여하는 ODA 추진 필요를 언급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기여' 비전하에, 세부적으로 △글로벌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국민이 참여하는 ODA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

○ 세부 주요 내용

- (글로벌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종합적인 추진의 청사진을 담은 ODA 로드맵을 마련하고 글로벌가치 이행에 있어 SDGs 이행에 기여, 인도적 지원 확대, 다자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다룸.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서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중점협력 5대 기구*에 집중 지원하는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 UNDP, WFP, UNICEF, WHO, UNHCR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분절화 된 ODA 사업 추진의 통합성, 효율성을 강조하며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 (국민이 참여하는 ODA)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범국민 참여확대, 민관협력 사업 확대 및 내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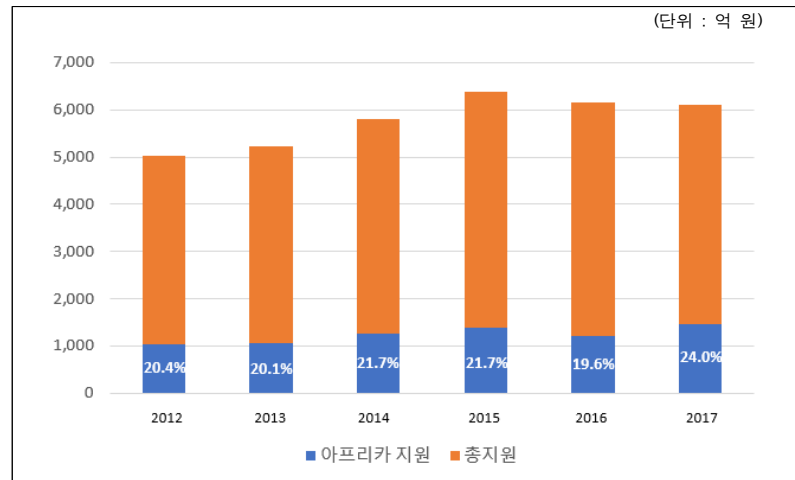
IV.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분석과 필수고려사항

1.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현황 및 시사점

□ KOICA의 대아프리카 협력

- (국가 및 권역구분) 아프리카는 AU 회원국 기준 55개국*이며, UN과 같은 국제사회의 국가요건 기준에 따라 서사하라의 국가 인정 여부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54개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 기준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구분하여 접근하거나, 동/서/남/북/중앙의 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KOICA에서는 북부 5개국을 중동중앙아실에서, 중서부 25개국을 서아프리카실에서, 동남부 24개국을 동아프리카실에서 담당
- (지원 개요)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이 수립된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KOICA의 대아프리카 지원총액은 약 6.6억 달러 KOICA 전체 지원 실적의 약 21.3%(6년 평균)를 차지

[그림 4-1] KOICA 아프리카 협력 추이 변화(2012~2017년)



연도	KOICA 전체 협력금액*	아프리카지역 협력금액*	아프리카지역 협력 비중(%)
2012	5,013	1,023	20.4
2013	5,227	1,048	20.1
2014	5,805	1,257	21.7
2015	6,372	1,383	21.7
2016	6,164	1,210	19.6
2017	6,102	1,463	24.0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상위 협력국가) 해당 기간 동안 상위 10위권 내 국가에 지역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DR콩고 순으로 많은 협력이 이뤄졌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점협력국에 해당

<표 4-1> KOICA 대아프리카 협력 상위 10개국 현황(2012~2017년)

순위	국가명	협력 금액		비율 (%)	비고
		금액 (천 USD)	금액 (백만 원)		
1	[동남] 에티오피아	98,977	110,616	14.6	중점협력국 1,2기
2	[동남] 르완다	65,081	72,489	9.6	중점협력국 1,2기
3	[동남] 우간다	53,456	59,796	7.9	중점협력국 1,2기
4	[동남] 탄자니아	53,216	59,527	7.9	중점협력국 2기
5	[중서] DR콩고	45,183	50,291	6.7	중점협력국 1기
6	[중서] 가나	38,848	43,147	5.7	중점협력국 1,2기
7	[중서] 세네갈	36,613	40,533	5.4	중점협력국 2기
8	[북] 모로코	31,986	35,800	4.7	
9	[북] 튀니지	29,613	33,048	4.4	
10	[동남] 케냐	28,429	31,939	4.2	
아프리카 협력 총액(7,386억 원) 대비 비중(%)				71.1%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표 4-2> KOICA 대아프리카 54개국 협력 추이(2012~2017년)

(단위 : 천원)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합계
1	에티오피아	18,038,908	15,141,586	15,749,787	20,818,731	16,680,821	24,187,024	110,616,860
2	르완다	7,151,027	10,085,997	14,501,614	15,884,853	12,677,154	12,189,243	72,489,891
3	우간다	2,938,728	9,247,628	8,642,502	11,086,372	11,726,589	16,154,428	59,796,250
4	탄자니아	11,397,106	7,990,885	8,143,343	11,148,712	10,202,674	10,645,057	59,527,780
5	DR콩고	5,420,486	5,248,821	11,198,365	9,229,772	8,535,161	10,658,987	50,291,595
6	가나	7,562,360	6,442,542	9,309,881	6,852,220	5,763,162	7,217,230	43,147,398
7	세네갈	4,805,452	6,491,745	10,377,738	6,276,096	5,071,510	7,510,512	40,533,054
8	모로코	6,836,099	5,678,159	4,030,053	6,234,728	5,579,438	7,441,786	35,800,266
9	튀니지	5,655,430	6,560,661	4,602,147	5,082,484	5,475,279	5,671,998	33,048,002
10	케냐	5,183,183	3,638,899	3,453,794	4,132,612	7,341,951	8,189,034	31,939,475
11	카메룬	5,273,004	4,527,897	5,829,792	4,487,929	4,178,514	5,962,223	30,259,362
12	나이지리아	4,337,378	4,769,893	2,628,574	5,694,160	4,810,646	6,673,055	28,913,708
13	모잠비크	1,156,594	2,398,709	4,070,083	4,769,162	4,727,500	6,673,029	23,795,078
14	코트디부아르	115,892	536,915	2,499,831	3,235,375	6,680,210	5,554,733	18,622,958
15	알제리	1,892,676	3,813,796	3,601,456	4,068,288	2,617,889	695,035	16,689,142
16	이집트	4,563,986	3,075,422	3,572,984	1,839,575	1,368,860	1,402,979	15,823,808
17	수단	1,950,091	1,938,767	2,764,103	4,026,611	2,063,491	2,179,909	14,922,975
18	짐바브웨	1,424,389	2,800,188	4,210,905	2,238,946	499,712	149,993	11,324,135
19	앙골라	879,597	728,591	894,634	1,799,518	3,740,037	2,200,120	10,242,501
20	말라위	677,468	1,153,405	1,939,246	2,718,722	394,157	766,200	7,649,201
21	라이베리아	37,727	57,563	16,499	1,477,609	1,684,207	26,146	3,299,755
22	말리	257,783	41,324	347,980	590,579	989,482	476,822	2,703,973
23	마다가스카르	330,876	546,614	527,149	395,923	438,867	324,211	2,563,641
24	시에라리온	44,706	145,045	19,869	332,657	893,180	734,188	2,169,649
25	부룬디	361,646	131,527	524,747	496,071	255,204	208,407	1,977,605
26	니제르	488,526	26,483	528,046	603,595	242,665	7,599	1,896,916
27	지부티	963,889	343,330	0	91,415	0	219,960	1,618,595
28	토고	132,067	89,980	335,772	564,455	221,677	240,380	1,584,334
29	남아공	223,698	178,705	55,405	247,575	81,254	492,928	1,279,567
30	부르키나파소	184,024	134,375	167,207	358,853	225,619	74,804	1,144,884
31	남수단	149,525	0	175,114	32,241	370,434	240,200	967,516
32	가봉	140,823	75,064	171,503	253,988	176,440	41,364	859,185
33	에스와티니	322,932	48,360	118,444	178,023	134,532	25,132	827,425
34	베냉	148,832	110,373	100,802	141,356	268,822	20,308	790,497
35	잠비아	70,654	38,828	52,987	100,778	221,098	271,410	755,757
36	리비아	471,730	159,332	29,338	0	0	0	660,402
37	레소토	212,132	12,259	14,544	157,765	159,639	23,785	580,126
38	콩고공화국	38,719	144,494	22,721	126,401	129,088	117,082	578,508
39	적도기니	52,683	85,026	32,090	32,428	213,098	0	415,327
40	보츠와나	0	10,013	126,920	0	135,137	121,755	393,827
41	소말리아	0	0	86,794	235,060	0	0	321,854
42	기니	38,908	56,781	131,287	0	0	85,334	312,311
43	차드	107,250	10,588	76,796	14,451	32,451	43,537	285,076
4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33,196	44,789	11,278	38,429	6,524	32,192	266,412
45	감비아	39,187	31,687	39,543	91,508	0	19,664	221,592
46	코모로	0	31,687	0	77,100	16,225	6,528	131,542
47	세이셸	114,613	0	0	0	7,898	0	122,511
48	기니비사우	0	0	0	58,164	0	40,797	98,961
49	나미비아	0	8,721	9,890	17,766	19,272	26,597	82,248
50	모리셔스	19,077	11,651	12,452	0	0	16,187	59,369
51	카보베르데	0	0	23,627	0	0	0	23,627
52	모리타니아	0	0	0	0	13,458	0	13,458
53	에리트레아	0	0	0	0	0	6,755	6,755
	다국가협력	0	0	0	0	6,977,095	4,713,278	11,690,373
	합계	49,836,461	50,687,664	58,234,165	63,318,420	68,462,578	69,727,975	360,267,265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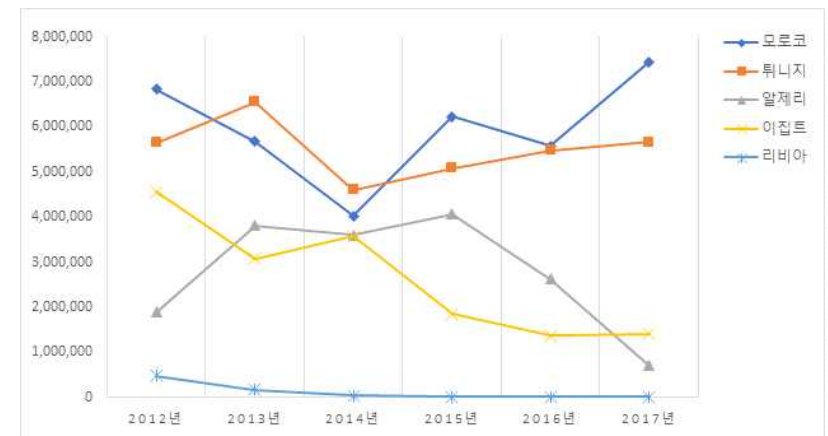
* 54개국 중 상투메프린시페(중서부의 도서국가)는 KOICA 통계조회시스템 상 2008년 이후 KOICA의 협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북부) 2012~2017년간 북부 5개국에 대한 협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모로코(35.1%), 튀니지(32.4%), 알제리(16.4%), 이집트(15.5%), 리비아(0.6%) 순으로 협력이 이루어짐
- 6년간의 추이를 보면, 모로코와 튀니지에 대한 협력을 연도별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경우 2015년부터 협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집트 역시 2014년 이후 협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리비아는 2015년 이후 협력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
- 북부 지역에 일부 국가에 대한 협력의 변동이나 급감은 아랍의 봄 이후, 북부 이슬람권 국가들(또는 마그레브)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표 4-3〉 KOICA 북부 아프리카 협력 추이(2012~2017년)

(단위 : 천원)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합계
1	모로코	6,836,099	5,678,159	4,030,053	6,234,728	5,579,438	7,441,786	35,800,266
2	튀니지	5,655,430	6,560,661	4,602,147	5,082,484	5,475,279	5,671,998	33,048,002
3	알제리	1,892,676	3,813,796	3,601,456	4,068,288	2,617,889	695,035	16,689,142
4	이집트	4,563,986	3,075,422	3,572,984	1,839,575	1,368,860	1,402,979	15,823,808
5	리비아	471,730	159,332	29,338	0	0	0	660,402
합계		19,419,921	19,287,370	15,835,978	17,225,075	15,041,466	15,211,798	102,02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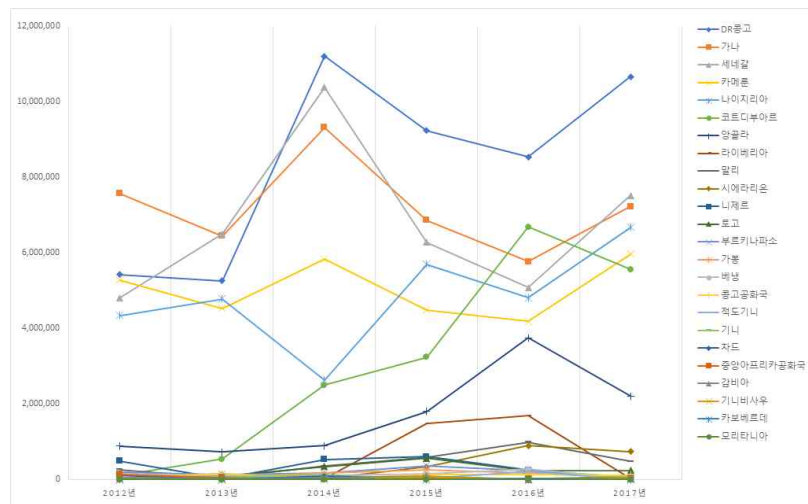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중서부) 2012~2017년간 중서부 25개국에 대한 협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DR콩고(21.1%), 가나(18.1%), 세네갈(17.0%), 카메룬(12.7%), 나이지리아(12.1%) 순으로 협력이 이루어짐
- 25개국 중 상위 5개국에 국가별 협력총액의 81%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모두는 KOICA 현지사무소 소재 국가
- 대체적으로 사무소 소재 국가에 협력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사무소 설립이 늦었던 코트디부아르는 사무소 소재국 중 협력 규모 후발주자에 위치
- 라이베리아의 경우, 2015, 2016년 사무소가 부재한 타 국가들 대비, 월등히 지원이 많아졌다가, 2017년 기존 수준으로 변화. 이는 2014년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로 인해, 긴급지원이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표 4-4> KOICA 중서부 아프리카 협력 추이(2012~2017년)

(단위 : 천원)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합계
1	DR콩고	5,420,486	5,248,821	11,198,365	9,229,772	8,535,161	10,658,987	50,291,595
2	가나	7,562,360	6,442,542	9,309,881	6,852,220	5,763,162	7,217,230	43,147,398
3	세네갈	4,805,452	6,491,745	10,377,738	6,276,096	5,071,510	7,510,512	40,533,054
4	카메룬	5,273,004	4,527,897	5,829,792	4,487,929	4,178,514	5,962,223	30,259,362
5	나이지리아	4,337,378	4,769,893	2,628,574	5,694,160	4,810,646	6,673,055	28,913,708
6	코트디부아르	115,892	536,915	2,499,831	3,235,375	6,680,210	5,554,733	18,622,958
7	앙골라	879,597	728,591	894,634	1,799,518	3,740,037	2,200,120	10,242,501
8	라이베리아	37,727	57,563	16,499	1,477,609	1,684,207	26,146	3,299,755
9	말리	257,783	41,324	347,980	590,579	989,482	476,822	2,703,973
10	시에라리온	44,706	145,045	19,869	332,657	893,180	734,188	2,169,649
11	니제르	488,526	26,483	528,046	603,595	242,665	7,599	1,896,916
12	토고	132,067	89,980	335,772	564,455	221,677	240,380	1,584,334
13	부르키나파소	184,024	134,375	167,207	358,853	225,619	74,804	1,144,884
14	가봉	140,823	75,064	171,503	253,988	176,440	41,364	859,185
15	베냉	148,832	110,373	100,802	141,356	268,822	20,308	790,497
16	콩고공화국	38,719	144,494	22,721	126,401	129,088	117,082	578,508
17	적도기니	52,683	85,026	32,090	32,428	213,098	0	415,327
18	기니	38,908	56,781	131,287	0	0	85,334	312,311
19	차드	107,250	10,588	76,796	14,451	32,451	43,537	285,076
2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33,196	44,789	11,278	38,429	6,524	32,192	266,412
21	감비아	39,187	31,687	39,543	91,508	0	19,664	221,592
22	기니비사우	0	0	0	58,164	0	40,797	98,961
23	카보베르데	0	0	23,627	0	0	0	23,627
24	모리타니아	0	0	0	0	13,458	0	13,458
25	상투메 프린시페	0	0	0	0	0	0	0
	합계	30,238,600	29,799,976	44,763,835	42,259,543	43,875,951	47,737,077	238,675,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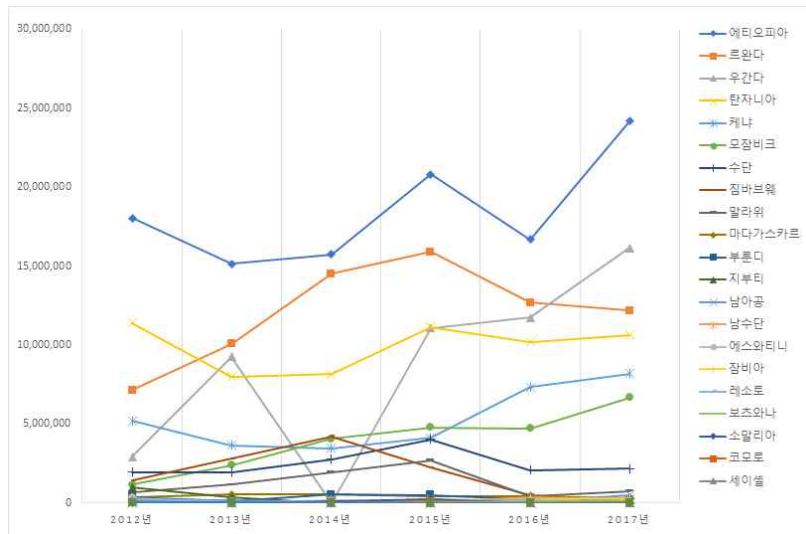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동남부) 2012~2017년간 동남부 24개국에 대한 협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에티오피아(27.4%), 르완다(18.0%), 우간다(14.8%), 탄자니아(14.7%), 케냐(7.9%) 순으로 협력이 이루어짐
- * 모잠비크는 중점협력국이지만, 상위 6위에 해당하는 협력을 기록(5.9%)
 - 24개국 중 상위 5개국에 국가별 협력총액의 82.8%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부 지역의 국가별 협력은 지난 6년간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동남부 지역은 한국의 아프리카 중점지원협력국 총 7개 중, 5개(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가 집중된 지역이며 이들 5개국은 연속 2번째 중점협력국 선정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합계
1	에티오피아	18,038,908	15,141,586	15,749,787	20,818,731	16,680,821	24,187,024	110,616,860
2	르완다	7,151,027	10,085,997	14,501,614	15,884,853	12,677,154	12,189,243	72,489,891
3	우간다	2,938,728	9,247,628	8,642,502	11,086,372	11,726,589	16,154,428	59,796,250
4	탄자니아	11,397,106	7,990,885	8,143,343	11,148,712	10,202,674	10,645,057	59,527,780
5	케냐	5,183,183	3,638,899	3,453,794	4,132,612	7,341,951	8,189,034	31,939,475
6	모잠비크	1,156,594	2,398,709	4,070,083	4,769,162	4,727,500	6,673,029	23,795,078
7	수단	1,950,091	1,938,767	2,764,103	4,026,611	2,063,491	2,179,909	14,922,975
8	짐바브웨	1,424,389	2,800,188	4,210,905	2,238,946	499,712	149,993	11,324,135
9	말라위	677,468	1,153,405	1,939,246	2,718,722	394,157	766,200	7,649,201
10	마다가스카르	330,876	546,614	527,149	395,923	438,867	324,211	2,563,641
11	부룬디	361,646	131,527	524,747	496,071	255,204	208,407	1,977,605
12	지부티	963,889	343,330	0	91,415	0	219,960	1,618,595
13	남아공	223,698	178,705	55,405	247,575	81,254	492,928	1,279,567
14	남수단	149,525	0	175,114	32,241	370,434	240,200	967,516
15	에스와티니	322,932	48,360	118,444	178,023	134,532	25,132	827,425
16	잠비아	70,654	38,828	52,987	100,778	221,098	271,410	755,757
17	레소토	212,132	12,259	14,544	157,765	159,639	23,785	580,126
18	보츠와나	0	10,013	126,920	0	135,137	121,755	393,827
19	소말리아	0	0	86,794	235,060	0	0	321,854
20	코모로	0	31,687	0	77,100	16,225	6,528	131,542
21	세이셸	114,613	0	0	0	7,898	0	122,511
22	리비아	0	8,721	9,890	17,766	19,272	26,597	82,248
23	모리셔스	19,077	11,651	12,452	0	0	16,187	59,369
24	에리트레아	0	0	0	0	0	6,755	6,755
합계		52,686,536	55,757,759	56,537,321	78,854,438	68,153,609	83,117,772	403,749,983

〈표 4-5〉 KOICA 동남부 아프리카 협력 추이(2012~2017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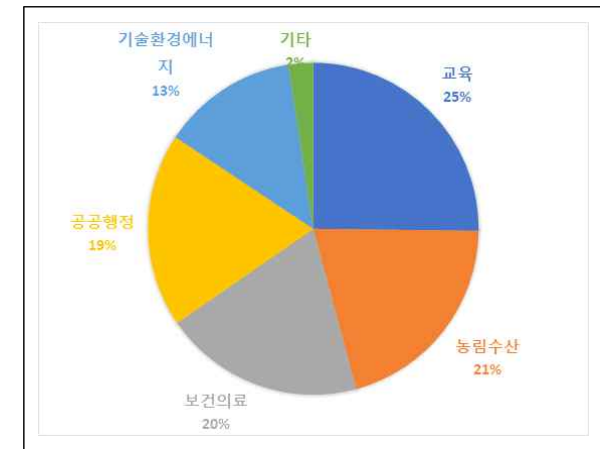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사업 분야별

- (개요) KOICA의 대아프리카 지원(모든 유형 포함)에서 지원 규모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교육이 25.2%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20.6%), 보건의료(19.6%), 공공행정(18.9%), 기술환경에너지(13.3%)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그림 4-2] KOICA 대아프리카 지원 분야별 개요(2012~2017년)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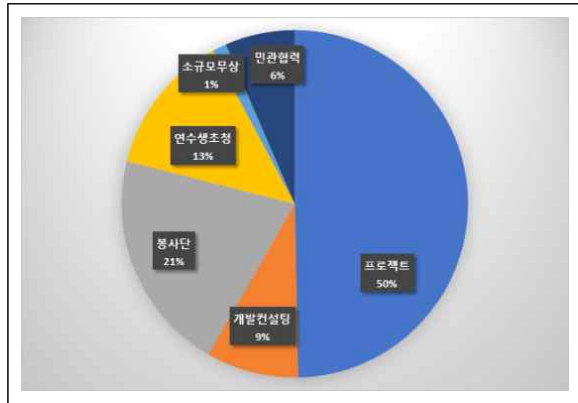
□ 사업 유형별4)

- (개요)
 - 유형별로는 프로젝트가 49.6%로 가장 많았고, 봉사단(20.6%), 연수생초청(13.2%), 개발컨설팅(8.6%), 민관협력(6.5%), 소규모무상원조(1.3%)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그림 4-3] KOICA 대아프리카 지원 유형별 개요(2012~2017년)

(단위: %)

4) KOICA 통계조회시스템에서 유형별로 분류되는 자료 중 다자, 다자성양자(Multi-Bi), 소규모, 기타 지원을 제외한 순수 양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사업 규모(지원액)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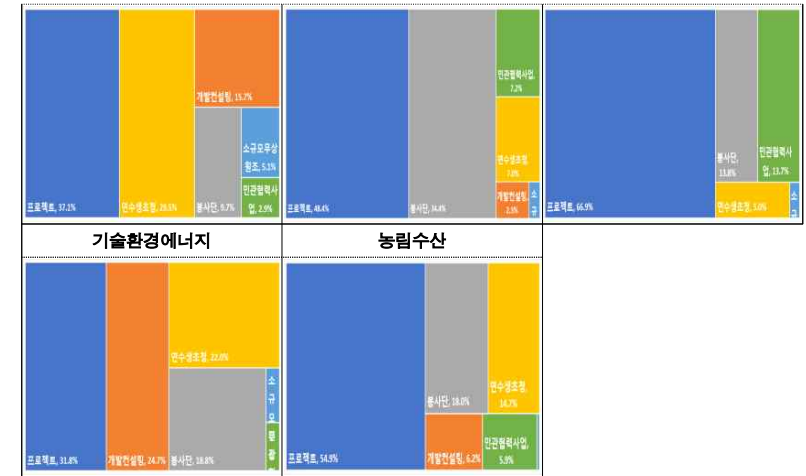
○ (분야별 유형)

-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이 가장 높은 가운데, 프로젝트(66.9%)와 민관협력(13.7%)은 보건의료가, 봉사단은 교육(34.4%), 연수생은 공공행정(29.5%), 개발컨설팅은 기술환경에너지(24.7%)가 높게 나타남
-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별협력사업(프로젝트+개발컨설팅)과 봉사단 유형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는 국별협력사업과 연수생 중심으로, 농림수산물과 기술환경에너지는 국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봉사단, 연수생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
 - (공공행정) △프로젝트(37.1%) △연수생(29.5%) △개발컨설팅(15.7%) △봉사단(9.7%) △소규모무상원조(5.1%) △민관협력사업(2.9%)
 - (교육) △프로젝트(48.4%) △봉사단(34.4%) △민관협력사업(7.2%) △연수생(7%) △개발컨설팅(2.3%) △소규모무상원조(0.7%)
 - (보건의료) △프로젝트(66.9%) △봉사단(13.8%) △민관협력사업(13.7%) △연수생(5%) △소규모무상원조(0.7%)
 - (기술환경에너지) △프로젝트(31.8%) △개발컨설팅(24.7%) △연수생(22%) △봉사단(18.8%) △소규모무상원조(1.4%) △민관협력사업(1.3%)
 - (농림수산물) △프로젝트(54.9%) △봉사단(18%) △연수생(14.7%) △개발컨설팅(6.2%) △민관협력사업(5.9%) △소규모무상원조(0.2%)

[그림 4-4] KOICA 대아프리카 지원 분야별 유형 개요(2012~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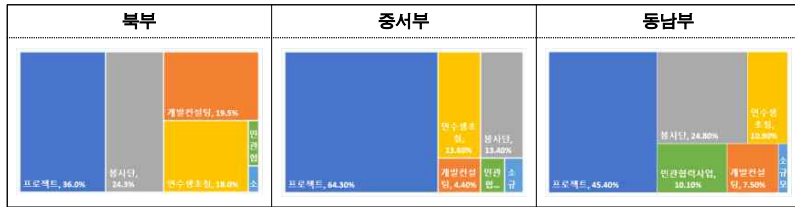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	----	------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 (권역별 분석) 3개 권역 모두에서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권역별 환경에 따라 특정 유형의 지원이 강세를 보이는 등 편차가 있음
- (북부) 프로젝트(36.0%) 지원이 가장 많으며, 봉사단(24.3%), 개발컨설팅(19.5%), 연수생초청(18%), 민관협력(1.4%)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북부는 프로젝트 외에도 봉사단, 개발컨설팅, 연수생초청이 각각 2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서부) 프로젝트 지원의 비중이 64.3%로 절반 이상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연수생(13.6%), 봉사단(13.4%), 개발컨설팅(4.4%), 민관협력(2.5%), 소규모무상원조(1.9%)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동남부) 프로젝트(45.4%) 지원이 가장 많으며, 봉사단(24.8%), 연수생(10.9%), 민관협력(10.1%), 개발컨설팅(7.5%), 소규모무상원조(1.3%)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그림 4-5] KOICA 아프리카 권역별 사업유형 분석(201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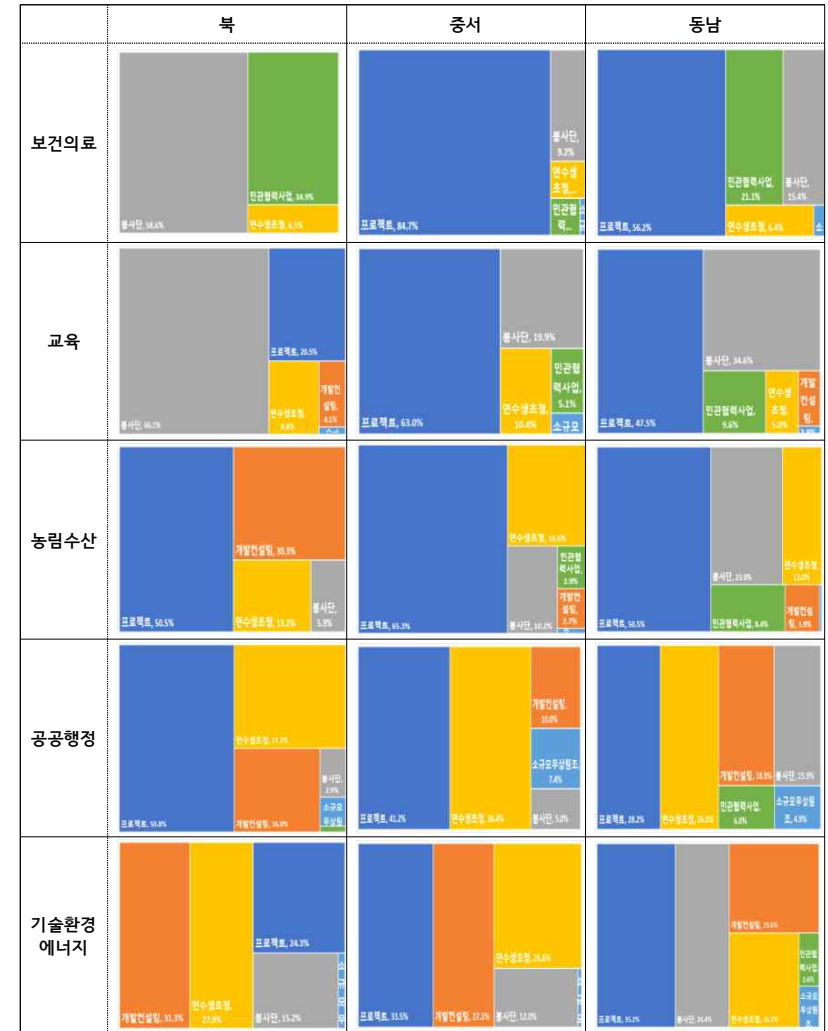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지역 분야별 유형)

- 북아프리카지역은 공공행정과 농림수산 각각프로젝트 50.8%, 50.5%로 우세하나, 보건의료분야에서 프로젝트는 없고, 기술환경에너지는 개발컨설팅이 가장 높으나 (31.3%) 연수생, 프로젝트, 봉사단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에는 봉사단이 66.1%로 우세
- 중서아프리카지역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우세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프로젝트가 84.7%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세이며 공공행정분야와 기술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연수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각 36.4%, 26.6%) 편임
- 동남아프리카지역은 타 지역 대비, 분야별로 사업유형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농림수산과 보건의료에서 프로젝트가 50%를 상회하며,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며, 교육에서는 프로젝트와 봉사단이 80%이상을 차지

[그림 4-6] KOICA 아프리카 권역 분야별 사업유형 분석(2012~2017년)

(단위: %)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 프로젝트의 분야별 개요

- KOICA의 대아프리카협력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2012~2017년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총 113건이 시행

- (건수) 보건의료(31건), 교육(28건), 농림수산(22건), 공공행정(18건), 기술환경에너지(13건), 기타(1건)
- (지원액 기준) 보건의료(26.5%), 교육(25.1%), 농림수산(23.4%), 공공행정(14.3%), 기술환경에너지(9.3%), 기타(0.1%)

○ (북부) 4국에서 13건의 프로젝트가 시행됨

* 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프로젝트 시행

- (분야별 건수 비교) 공공행정(5건) > 농림수산(3건) > 기술환경에너지(3건) > 교육(2건) 순으로 **공공행정 분야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서부) 10국에서 45건의 프로젝트가 시행됨

* 현재 중서부 지역 중 KOICA 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에서도 프로젝트 시행

- (분야별 건수 비교) 보건의료(15건) > 교육(13건) > 농림수산(8건) > 공공행정(6건) > 기술환경에너지(3건) 순으로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동남부) 10국에서 55건의 프로젝트가 시행됨

* 현재 동남부 지역 중 KOICA 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수단, 남수단, 지부티에서도 프로젝트 시행

- (분야별 건수 비교) 보건의료(16건) > 교육(13건) > 농림수산(11건) > 공공행정(7건), 기술환경에너지(7건) >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남

<표 4-6> KOICA 아프리카 권역별 프로젝트 건수 분석 개요(2012~2017년)

권역	분야(건수 높은 순)	세부 분야
북부	공공행정 (5건)	전산화/시스템구축(3건) > 정책/행정관리(1건),역량강화(1건)
	농림수산 (3건)	양식 및 생산기술(2건) > 자연보존(1건)
	기술환경에너지 (3건)	태양에너지(1건), 녹색기술연구(1건), 전자장비재활용(1건)
	교육 (2건)	직업훈련(2건)
중서부	보건의료 (15건)	식수공급 및 위생(7건) > 기초보건(4건) > 역량강화(3건) > 의료설비(1건)
	교육 (13건)	초등교육(6건) > 직업훈련(5건) > 교사훈련(1건),고등교육(1건)
	농림수산 (8건)	농촌농업개발(4건) > 양식 및 생산기술(2건) > 농업훈련(1건),기타(1건)
	공공행정 (6건)	역량강화(3건) > 시스템구축(1건),분쟁예방(1건),박물관건립(1건)
	기술환경에너지 (3건)	도로교통(1건), 전력에너지(1건), 식수환경기술(1건)
동남부	보건의료 (16건)	기초보건(10건) > 식수공급 및 위생(2건),감염병관리(2건) > 의료설비(1건), 보건행정(1건)
	교육 (13건)	직업훈련(6건) > 초등교육(4건) > 중등교육(1건),고등교육(1건),교사훈련(1건)

농림수산 (11건)	농촌농업개발(7건) > 양식 및 생산기술(2건) > 농수산물가공업(1), 농업지도(1건)
기술환경에너지 (7건)	식수환경기술(3건) > 태양에너지(2건) > 공황시스템(1건),재해경보시스템(1건)
공공행정 (7건)	전산화/시스템 구축(3건) > 역량강화(2건) > 분쟁대응(1건), 기타(1건)
기타 (1건)	녹색성장정책(1건)

자료 :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활용, 저자 작성

□ 사업 수행의 최근 양상

- 순수 양자사업 중심에서 다자성양자(Multi-Bi)가 2016년부터 추진되며 이는 대아프리카지역의 확대와 국내외 ODA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개발협력 기본법(2016-2020)에 따르면 지역별로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2019)에는 다자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특히,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중점협력 5대 기구(UNDP, WFP, UNICEF, WHO, UNHCR)에 집중 지원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또한 국외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의 지역적 경험, 역량을 활용,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

- 최근들어 양자사업에서 다자기구를 활용한 다자성양자(Multi-Bi)사업이 추진, 확대되는 양상.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 KOICA 사무소 미소재 국가로 양자원조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 혹은 KOICA가 기존에 지원해보지 않았던 분야(여성 주관 치료 등)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

- 특히, 2019년(현재) 동서아프리카실 내 다자성양자 사업 예산은 전체 프로젝트 사업의 동/서 각 26%, 20%대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사업유형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

<표 4-7> KOICA 동서아프리카실 내 다자성양자 사업 예산 현황(2019년)

(단위: 원)

동아프리카실			서아프리카실		
연번	사업명	예산한액	연번	사업명	예산한액
1	모잠비크 UNICEF 장애자아주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보건인식 개선 강화사업(16~19/700만불)	678,000,000	1	가나 UNICEF 여성청소년 권익과 교육 및 보건 증진 사업(17~20/550만불)	3,283,000,000
2	프랑스 UNDP 유스 커넥트 어니셔티브 확대 지원사업(19~22/800만불)	2,227,000,000	2	코트디부아르 UNFPA 여성·누공지름 및 예방 2차 사업(16~19/630만불)	0.0
3	프랑스 산업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14~19/250만불)	0.0	3	나이지리아 UNFPA 보르노주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성생리 보건 및 생리 강화사업(18~21/800만불)	2,409,000,000
4	루간다 UNICEF 거점보건지 역 중점학교 식수 시설 보급 및 육성교육 사업(19~22/800만불)	1,897,664,000	4	마라고 주정부시·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건 강화사업(17~20/200만불)	792,000,000
5	루간다 UNICEF 보건 및 지역 여성 역량강화사업(19~22/700만불)	498,000,000	5	말리 UNESCO 교육을 통한 여성청소년 역량강화(16~20/510만불)	1,596,000,000
6	케냐 UNICEF 루르카나주 거점보건지 역을 위한 식수위생개선사업(19~22/550만불)	1,453,000,000	6	감비아 UNESCO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개발 사업(19~22/300만불)	800,000,000
7	수단 UNDP 리베리아 주 해양관광업프 발전 지원 관개개발 사업(19~22/640만불)	2,200,000,000	7	세네갈 UNICEF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18~22/450만불)	2,369,000,000
8	탄자니아 UNESCO 교육을 통한 탄자니아 여성청소년 역량강화(16~20/510만불)	1,967,000,000		합계(A)	11,229,000,000
9	탄자니아 인도마루 보건보건 향상 지원 농업산과산업에서비즈니스(BONGIC) 강화사업(19~23/630만불)	2,371,831,000		서아프리카지역 2019년 전체 사업 예산 총계(B)	55,145,088,000
	합계(A)	13,292,495,000		서아프리카지역 2019년 말티베어 사업 예산 비율(A/B*100)	20.36%
	동아프리카지역 2019년 전체 사업 예산 총계(B)	50,308,000,000			
	동아프리카지역 2019년 말티베어 사업 예산 비율(A/B*100)	26.42%			

자료: KOICA 제공

□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분석결과로 본 기존 프로젝트 분야별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분석대상 및 방법

- 2012~2017년 사이 아프리카지역 내에서 진행된 각 분야별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중, 외부공개로 수집 가능한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
-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단어(node)와 선(link)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자료에서는 △연결 중심성(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 그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지표) △N-gram 네트워크(연결 중심성을 분석하여 선정된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내 다른 단어와의 링크를 시각화) 2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 다만, 본 자료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종료·영향평가가 시행된 것이 아니고 수집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아 권역별 구분된 특징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내용을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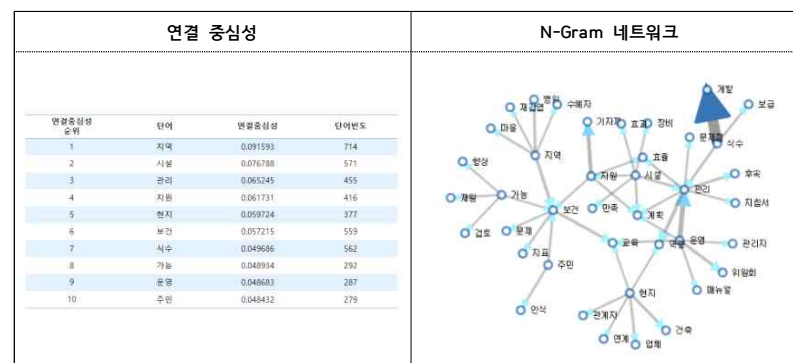
[보건의료 분야]

- (개요 및 우수사항) 전반적으로 모자보건, 식수위생이 주요 사업 요소로 진행된 가

운데 대체적으로 사업 결과에 대한 수혜자, 수원국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그러한 배경에는 적절한 사업지역 및 수혜자 선정,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배경인 것으로 나타남

- (개선 필요 및 향후 고려필요사항) 모자보건, 식수위생 사업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순 시설, 기자재 및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Gram 네트워크에서 보다시피 식수 개발 부분에서 이러한 지적이 강하게 나타남. 더불어 시설 지원을 했을 경우 후속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관리 대안(현지 주민 운영위원회 활용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속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4-7] 보건의료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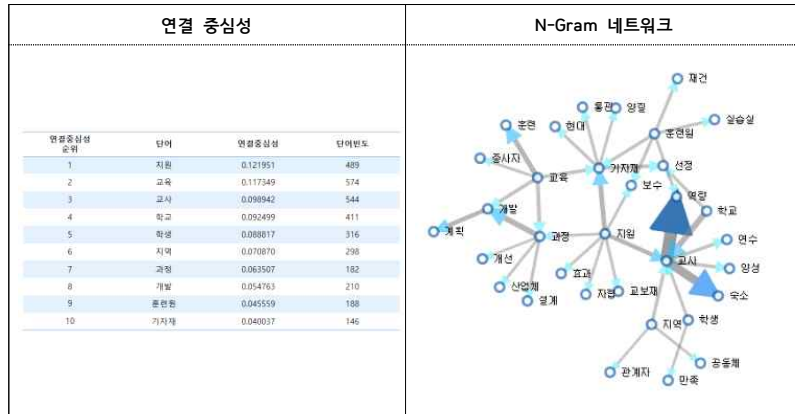
자료: KOICA 대아프리카지역프로젝트(2012~2017년)의 각 분야별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활용, 저자 작성

[교육 분야]

- (개요 및 우수사항) 전반적으로 기초교육환경 개선과 직업교육훈련이 주요 사업 요소로 진행된 가운데 대체적으로 본 사업들은 아프리카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선 정책, 전략에 일치시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음. 사업결과, 대부분 자원의 투입과 사업의 운용은 효율적이었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개선 필요 및 향후 고려 필요사항) 사업 투입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달성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공하는 등의 건축 부분이 포함될 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또한 적

합한 수혜자 선정만큼 교사의 역량 또한 주요 사업 성공요소로 거론되었으며(연결 중심성에서 3순위, N-Gram에서 '교사-역량'은 강한 연결성을 나타냄) 기타 적합한 과정 개발, 현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 개발, 아프리카지역 현실을 고려한 숙소재공 등이 고려, 보완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남

[그림 4-8] 교육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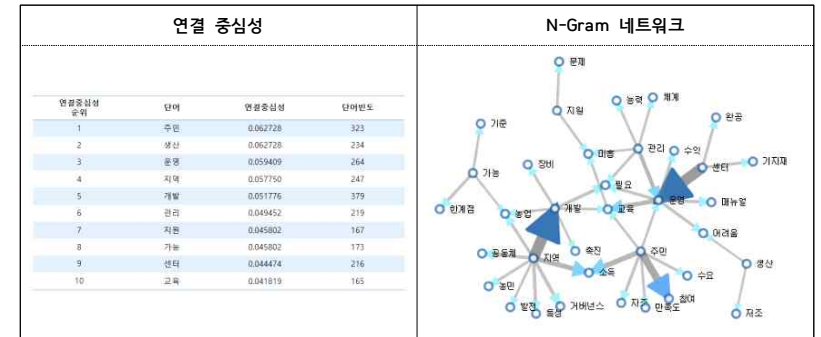


자료: KOICA 대아프리카지역프로젝트(2012-2017년)의 각 분야별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활용, 저자 작성

[농림수산 분야]

- (개요 및 우수사항) 전반적으로 농촌종합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이 주요 사업 요소로 진행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본 사업들은 수원국의 발전정책 부합 측면에서 일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주민'은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며 N-Gram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사업결과 만족도와 강하게 연결됨. 또한 대부분 이 분야의 사업들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소득 및 생산성 증대, 공동체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개선 필요 및 향후 고려 필요사항) 공동체의 역량, 거버넌스 수준, 수혜자의 적극적인 의지 등 지역개발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당한 요소들이 산재하여 일반화된 매뉴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의식개선에 치중하거나 거나 자체적인 관리 센터 등 적절하고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4-9] 농림수산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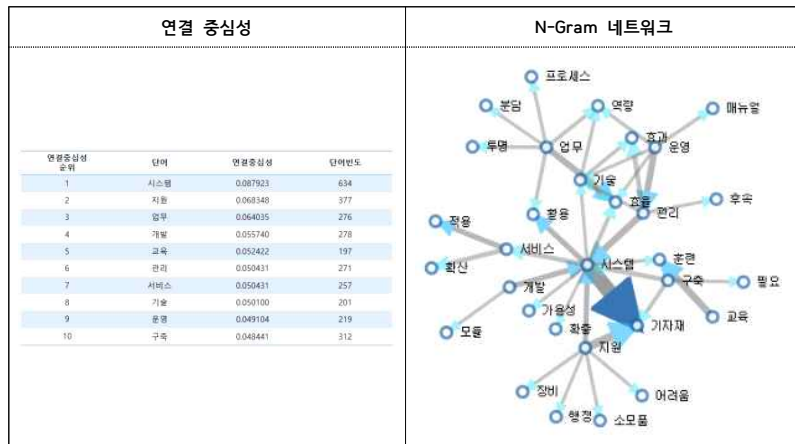


자료: KOICA 대아프리카지역프로젝트(2012-2017년)의 각 분야별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활용, 저자 작성

[공공행정 분야]

- (개요 및 우수사항) 전반적으로 전산 인프라, 행정현대화 등이 주요 사업 요소로 진행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본 사업들은 연결중심성과 N-Gram 네트워크 분석결과, 시스템 및 기자재는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시스템 및 기자재 지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기술효율로 인한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타남. 또한 자국 내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서비스 확산 등으로 향후 사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동적 산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수원국은 희망적으로 평가함
- (개선 필요 및 향후 고려 필요사항) 후속관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합한 매뉴얼 제공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제공, 행정 소모품에 대한 연속적 지원의 어려움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됨

[그림 4-10] 공공행정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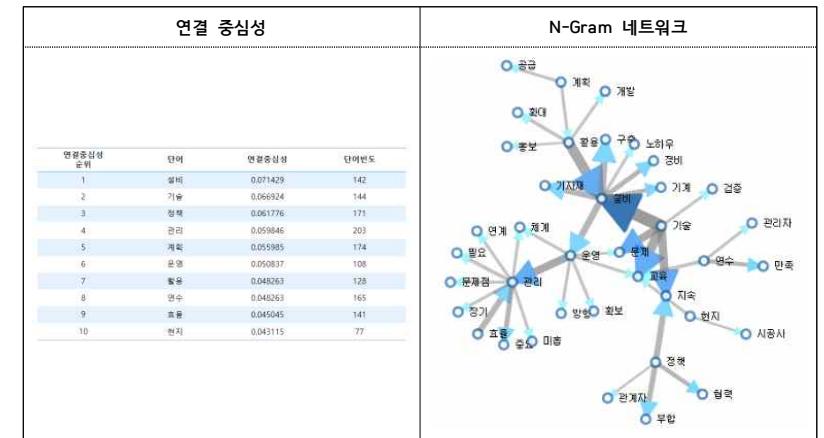


자료: KOICA 대아프리카지역프로젝트(2012-2017년)의 각 분야별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활용, 저자 작성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 (개요 및 우수사항) 대표성을 지닌 사업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해당 분야에 사업들은 수원국들의 새로운 개발수요와 맞물려 해당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발견됨. 사업의 각 내용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설비 설치, 기술제공, 교육 노하우 공유 등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개선 필요 및 향후 고려 필요사항) 현지 시공사의 역량에 따른 사업 효과성이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기술을 현지상황에 고려하여 적용하고, N-Gram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자재, 설비, 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연수가 보완되어야 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미흡에 대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드러남

[그림 4-11]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언어네트워크 분석



자료: KOICA 대아프리카지역프로젝트(2012-2017년)의 각 분야별 종료·영향 평가보고서 활용, 저자 작성

2. KOICA 내 정책 및 전략

1) 중장기 경영목표

□ KOICA의 개편된 중장기 경영목표

- 국내외 사회적 가치를 전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설정된 새로운 미션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과 비전인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 추진

<표 4-8>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요약

신(新)미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신(新)비전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4대 전략방향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 촉진	융합과 협업의 파트너십 선도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
4대 전략목표	중점협력국 SDGs 달성 기여	개발파트너십 재원 2배로 확대	역량있는 개발협력 인재 2만명 양성	청렴도 1등급, 고객만족도 S등급 달성

12대 전략과제	SDGs 달성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과 이행	민간 개발협력 활성화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책임경영체제 확립
	정부 개발정책 및 전략연계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다각화	개발협력 인재 일자리 저변 확대	인권경영 실현
	개발협력사업 관리체계 내실화	혁신적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지식정보 개방 강화	국민중심 열린조직 운영

자료: KOICA 제공

- (핵심가치) 기존의 KOICA(Knowledge, Openness, Innovation, Collaboration, Accountability)에서 '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로 재설정
- 또한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을 위해 전략방향과 연계한 핵심업무(개발협력 프로젝트, 개발협력 역량강화,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국별맞춤지원', '개발사업 파트너십 강화', '개발인재 양성'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재편

2) 분야별 중기전략⁵⁾

□ 개요

- 국제논의, KOICA 중장기전략, 국가 차원의 접근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으로 신규사업 형성, 발굴, 기획,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
- 교육·보건·공공행정·농촌개발·물·교통·에너지 7개 분야*와 성평등·기후변화대응·과학 기술혁신 3가지 범분야로 구성 2016-2020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
 - * KOICA 통계에서는 물·교통·에너지가 '기술환경에너지'로 통합, 분류 가능함
- 최근에는 7개 분야 내 물·교통·에너지와 기존 범분야인 과학기술혁신까지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로 포괄하여 표현되고 기존 범분야에서 성평등과 기후변화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권부문이 2017년부터 추가, 강조되는 경향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구성

5) 권유경·최혜진(2019). KOICA의 동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PP 50-53에서 일부 보완함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은 7개 분야와 3개 범분야에 대해 문제 정의 및 국제논의 동향, KOICA의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비전/미션/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프로그램, 성과프레임워크로 구성, 제시함

<표 4-9> KOICA 7개 분야 중기전략 2016-2020 개요

분야	비전	목표	프로그램
교육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 기초학력 증진 및 교사 역량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지원 - 재난 및 분쟁지역 교육 접근성 제고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강화 - 기술교육 선도모델 구축
보건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식수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식수위생 - 영양
		양질의 필수 모자청소년 보건 서비스 제공	- 성생식 모자청소년 보건 -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 - 비전염성 질환
공공행정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인적역량 강화 -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여 행정서비스 효과성 강화 - 조세 행정 현대화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재원 동원을 위한 조세역량 강화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금융·무역·산업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경제의 경쟁력 강화
		정치·행정 체제의 책임성 향상	-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부패방지 및 투명성 향상 - 공정한 선거제도 및 투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강화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 사법 부문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로 법치주의 증진 - 여성·취약계층의 인권·시민권·사회권 보장 - 평화 증진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치안역량 강화
		거버넌스 주류화	- 모든 분야에서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를 확대하여 수원국 정부의 역량강화에 기여 - 분야별 사업에서 거버넌스 원칙을 반영하여 정책행위자들의 역량 강화
농촌개발	농촌 지역주민의 포괄적 웰빙이 보장된 삶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민조직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농업 가치사슬 확대 - 소농 중심 농민 협동조직 육성, 식품공급 시스템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주민참여형 소득증대, 생활 인프라 개선,

			현지적합하고 현대화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	- 지속가능한 농업수행, 생태녹화조림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산림보존, 복원 및 황폐화 방지
물	인간의 기본권리로서의 물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을 향상	-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구축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 향상 -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등 물 환경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 - 안전·위생 교육 및 관리제도 등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역량 강화
		수자원 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수자원 정보시스템 및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자원 이용 효율성 증대 -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등 관리역량 강화
		물 관련 재해관리를 통한 국가 재해대응 능력 향상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해대응 의사 결정력 향상 - 재해대응에 효과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가 재해 위험 저감 능력 강화
교통	모두를 위한 경제사회발전	교통 접근성 향상	- 모두에게 공평한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 지원 - 교통약자(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 생활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형평성 증진 - 경제산업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국가 간 지속가능하며 회복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 지원	-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자동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건강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여 -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대중교통 구축 지원
		개발 자원 마련을 위한 역할 강화	- 개발 자원 마련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참여 유도 및 개발 자원 마련 방안 제시 -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 개발컨설팅 품질의 국제적 수준 제고
에너지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에너지 소외 계층의 접근성 개선	- 소규모 분산형 전력망 - SHS(Solar Home System) - 클린쿡스토브(Clean Cookstove)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수력 중심) - 분산형 전력망 - 계통연계형 발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제도 컨설팅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	- 난방 및 열효율 개선사업 - 송배전 자동화 및 효율 개선사업 -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자료: KOICA.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재인용: 권유경 · 최혜진(2019), pp. 50-52.

<표 4-10> KOICA 3개 범분야 중기전략 2016-2020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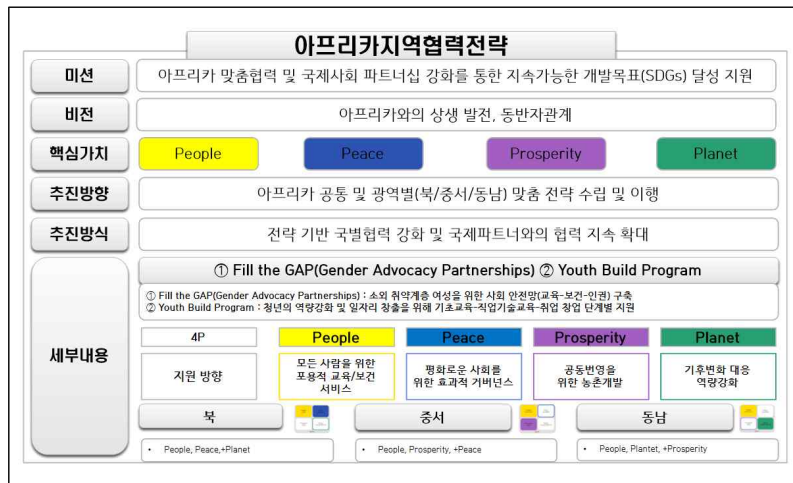
분야	비전	목표	프로그램
성평등	여성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경제적 역량 강화	- 토지·재정·인프라 등 물적 자원의 성평등한 분배 시스템 구축 지원 - 재정서비스·기술/지식 등 양질의 직업기회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성평등한 사회적 지위향상	- 모든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개선·인식 제고 - 평화·안보문제 해결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강화 지원
		성평등한 기본권 확보	-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보장 및 자기결정권 확보지원 - 젠더 기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지원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모	감축 및 적응사업, 기후사업 주류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능력배양사업,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 자원 접근성 제고	글로벌 개발 자원 연계, 파트너십 및 협조금융
과학기술혁신	개도국 스스로 성장 가능한 혁신기반 경제 구축	과학기술혁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	- 과학기술혁신 정책컨설팅 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과학기술혁신 기반 산업발전 지원	- 과학기술기반 창·취업 및 기술이전 지원 - 산학연 연계 활동 지원 -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강화 지원
		개도국 경제·사회 문제의 혁신적 해결 활성화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 민간부문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자료: KOICA.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재인용: 권유경 · 최혜진(2019), p. 53.

V. KOICA의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1. 전략 틀

[그림 5-1] KOICA의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틀



자료: 저자 작성

2. 전략의 구성요소

□ 미션

- 아프리카연합이 강조하는 아프리카 주도의 발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권역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력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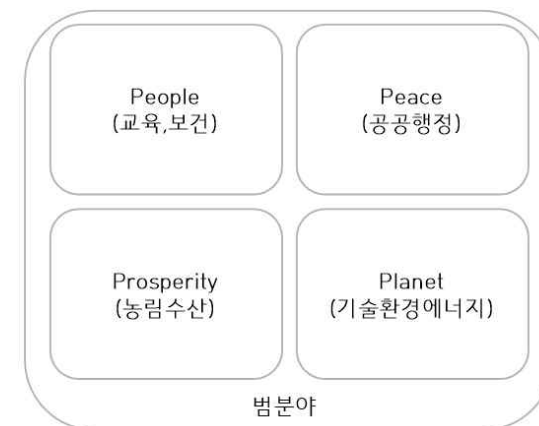
□ 비전

-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 아프리카지역 개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진행하고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KOICA가 아프리카와의 상생발전, 동반자 관계를 지향

□ 핵심가치(4P)와 주요 5대 분야

- **(People)** '사람이 가치있는 아프리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 요소로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교육, 보건 영역을 매칭
- **(Peace)** '평화롭고 안정된 아프리카'로 견고한 민주적 가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으로서 굿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공공행정 분야를 배치
- **(Prosperity)** '번영하는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지역의 고질적 절대빈곤인구를 감소시키고 포괄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아프리카의 근간산업인 농업(농림수산)으로 연결
- **(Planet)**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아프리카'로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파트너로서 강력한 아프리카로 발돋움하도록 국제적 공동 현안에 대한 위기 대응력, 기술혁신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환경에너지분야 지원을 지향

[그림 5-2] 4P와 KOICA 주요 5대분야 및 범분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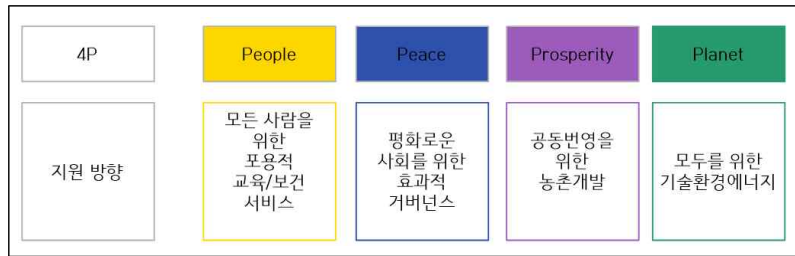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추진 방향

□ 추진 방향 설정 및 기타

- KOICA의 경영전략, 글로벌 가치(SDGs), 분야별 중기전략의 중점방향과 아프리카 연합의 'Agenda 2063'에 부합하도록 4P의 방향을 설정하되, 5대 주요 분야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배치하였음. 또한 KOICA에서 4P에 사용하고 있는 고유 색상을 동일하게 활용함

[그림 5-3] 4P의 추진 방향



자료: 저자 작성

4. 추진 전략

1) 쏘아프리카 공통 추진

■ 'Fill the GAP'

(1) 추진 배경

- 아프리카연합의 비전 협력 및 「KOICA의 SDG5 이행 글로벌 플랫폼 구축 기본 계획」 및 「KOICA 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 (2019-2020)」에의 일치

○ (아프리카연합 Agenda 2063)

- 향후 50년 동안 아프리카대륙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 주도로 추진 중인 아젠다 2063은 총 7개의 포괄적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
- 또한 '아프리카 주요 평화이니셔티브'에서도 여성개발 아젠다는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개발의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GEWE(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전략 추진을 통해 모든 아젠다에서의 여성개발과 역량을 강조, 강화를 추진 중

○ (KOICA의 SDG5 이행 글로벌 플랫폼 구축)

- SDG5는 지속가능한 발전 2030 아젠다 내 채택되고 국제사회 공동비전으로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사람·평화·번영(3P, People, Peace, Prosperity)'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 국정 기조와 SDGs와의 접점,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의 적극적 기여를 위한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가운데 KOICA는 SDG5 이행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계획을 마련, 추진 중

○ (KOICA 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2019-2021) 중점추진 3대 분야)

- ① 여성의 경제적 자원과 권리 ②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리더십 ③젠더기반 폭력 해소, 건강 및 재생산권리 증진을 추진 중

(2) 추진 방향

□ 아프리카의 특수적 상황을 반영한

KOICA의 SDG5 이니셔티브 'Fill the GAP' 추진

○ (아프리카지역의 젠더불평등 현황) 젠더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에 따라 구분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GII는 생식보건·정치적 권한·경제참여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다루는 가운데 여러 다른 국제적인 젠더격차,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 중 아프리카지역의 가장 많은 국가를 다루고 있어 본 내용에서 활용하였으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표 5-1> 아프리카지역 젠더불평등지수에 따른 현황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DG3.1	SDG3.7	SDG5.5	SDG4.6	-
광역	HDI 순위	국가명	젠더불평등 지수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국회의서 점유율	최소 중등교육을 이수한 여성	노동참여율

			값	순위	정상출산 10만명 당 사망 수	15~19 세 여성 천명 당 출산율	여성의 비율	25세 이상의 비율		15세 이상의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북아프리카	123	모로코	0.482	119	121	31.1	18.4	28.0	34.8	25.0	74.1
	95	튀니지	0.298	63	62	7.7	31.3	41.2	52.7	24.3	70.6
	85	알제리	0.442	100	140	10.1	21.3	37.5	37.9	15.2	67.3
	115	이집트	0.449	101	33	50.0	14.9	58.2	70.7	22.2	73.7
	108	리비아	0.170	38	9	5.7	16.0	69.4	45.0	25.8	79.0
		북아프리카 평균	0.368	84	73	20.9	20.4	46.9	48.2	22.5	72.9
중서 아프리카	176	콩고민주공화국	0.652	152	693	124.2	8.2	36.7	65.8	71.4	73.5
	140	가나	0.538	131	319	66.6	12.7	54.6	70.4	74.8	79.2
	164	세네갈	0.515	124	315	72.7	41.8	11.1	20.1	45.5	69.9
	151	카메룬	0.569	141	596	105.8	27.1	32.5	39.2	71.2	81.2
	157	나이지리아	..	..	814	107.3	5.8	..	..	50.4	59.8
	170	코트디부아르	0.663	155	645	132.7	9.2	17.8	34.1	48.1	66.2
	147	앙골라	..	..	477	151.6	30.5	..	..	75.3	80.1
	181	라이베리아	0.656	154	725	127.5	9.9	18.5	39.6	53.9	57.4
	182	말리	0.678	157	587	169.1	8.8	7.3	16.4	60.8	82.5
	184	시에라리온	0.645	150	1,360	112.8	12.4	19.2	32.3	57.1	58.7
	189	니제르	0.649	151	553	192.0	17.0	4.3	8.9	67.5	90.7
	165	토고	0.567	140	368	89.1	17.6	26.3	52.5	75.8	79.4
	183	부르키나파소	0.610	145	371	104.3	11.0	6.0	11.7	58.2	75.2
	110	가봉	0.534	128	291	95.3	17.4	65.6	49.8	42.9	59.4
	163	베냉	0.611	146	405	86.1	7.2	18.2	32.7	68.7	73.1
	137	콩고	0.578	143	442	111.8	14.0	46.7	51.0	67.4	72.0
	141	적도 기니	..	..	342	155.6	19.7	..	..	55.7	61.8
	175	기니	..	..	679	135.3	21.9	..	..	63.0	65.4
	186	차드	0.708	158	856	161.1	12.8	1.7	10.0	64.8	77.6
	18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673	156	882	103.8	8.6	13.2	30.8	63.3	80.0
	174	감비아	0.623	149	706	79.2	10.3	29.0	42.3	51.2	67.7
	177	기니비사우	..	..	549	84.5	13.7	..	..	65.6	78.1
	125	카보베르데	..	..	42	73.8	20.8	..	..	49.6	71.5
	159	모리타니	0.617	147	602	79.2	25.2	12.2	24.5	31.0	67.7
	143	상투메 프린시페	0.538	131	156	94.8	18.2	31.1	45.2	41.3	75.4
		중서아프리카 평균	0.612	-	551	113	16.0	23.8	35.6	59.0	72.1
동남 아프리카	173	에티오피아	0.502	121	353	62.5	37.3	11.2	21.4	77.2	87.8
	158	르완다	0.381	85	290	25.7	55.7	12.6	17.0	86.0	86.3
	162	우간다	0.523	126	343	106.5	34.3	26.7	32.4	66.6	74.9
	154	탄자니아	0.537	130	398	115.1	37.2	11.9	16.9	79.5	87.4
	142	케냐	0.549	137	510	80.5	23.3	29.2	36.6	62.4	68.5
	180	모잠비크	0.552	138	489	135.2	39.6	16.1	27.3	82.5	74.6
	167	수단	0.564	139	311	64.0	31.0	14.7	19.3	23.6	69.9
	156	짐바브웨	0.534	128	443	104.1	36.2	55.9	66.3	78.5	89.1
	171	말라위	0.619	148	634	140.2	16.7	16.7	25.4	72.3	81.9
	161	마다가스카르	..	..	353	109.6	19.6	..	..	83.6	89.4
	185	부룬디	0.471	114	712	26.8	37.8	7.5	10.5	80.2	77.5
	172	자부티	..	..	229	18.8	10.8	..	..	49.5	68.5
	113	남아프리카공화국	0.389	90	138	42.8	41.0	74.2	77.4	47.9	62.0
	187	남수단	..	..	789	62.0	26.6	..	..	70.8	73.9
	144	에스와티니	0.569	141	389	77.0	14.7	30.0	32.7	42.7	67.2
	144	잠비아	0.517	125	224	82.8	18.0	39.2	52.4	70.1	79.7
	159	레소토	0.544	135	487	89.5	22.7	31.8	24.2	59.3	74.4
	101	보츠와나	0.434	98	129	30.0	9.5	88.8	89.6	65.6	78.4
	..	소말리아	..	..	732	100.1	24.3	..	..	18.6	74.3
	165	코모로	..	..	335	65.4	6.1	..	..	36.0	50.2
	62	세이셸	..	..	..	56.9	21.2	..	..	..	..
	129	나미비아	0.472	115	265	73.8	36.3	39.9	41.0	58.5	65.2
	65	모리셔스	0.373	84	53	26.6	11.6	64.3	67.3	45.1	72.7
	179	에리트레아	..	..	501	51.6	22.0	..	..	75.4	87.4
		동남아프리카 평균	0.518	-	396	72.8	26.4	33.6	38.7	62.2	75.8
		세계평균	0.441	-	216	44	23.5	62.5	70.9	48.7	75.3

자료: UNDP 웹사이트(검색일: 2019.10) 활용,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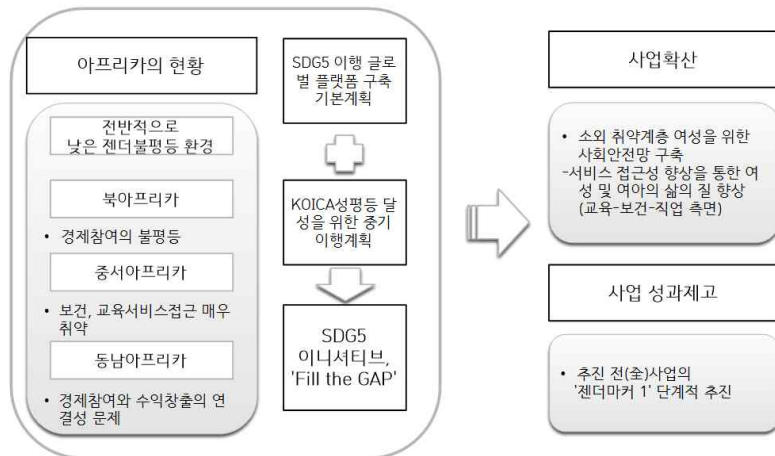
- (젠더불평등지수) 세계 평균(0.441) 대비, 북아프리카지역은 0.368로 세계평균보다 나은 상황을 보이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전체적으로 열악함. 특히, 중서아프리카지역은 0.6118로, 동남아프리카지역 0.518보다 전반적으로 보다 젠더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북아프리카) 교육 이수율에서 세계평균보다 낮지만 여성과 남성은 각각 46.9%, 48.2%로 격차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참여율은 여성 22.5%, 남성 72.9%로 극심한 성별 격차를 보임. 여성은 교육접근보다 경제참여에서 상대적으로 심한 불평등을 겪는 것으로 판단됨
 - (중서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젠더불평등 상황이 세계평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전체에서도 열악한 가운데 특히, 모성사망은 심각하며 청소년 출산율은 약 세계평균의 3배에 해당. 단, 여성의 경제참여에서는 세계평균보다 높아 참여율 자체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다소 완만한 것으로 사료
 - (동남아프리카) 중서아프리카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영역에서 불평등 정도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에 있어서는 세계평균보다 약 15%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됨. 여성의 정치적 권한 또한 세계평균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KOICA SDG5 이행 글로벌 플랫폼 구축계획)
 - 전략적 파트너십/재원확보/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수준별 차등지원 전략 중 아프리카지역 현황을 반영, 국별협력을 추진
 - 수준별 차등지원의 세부 내용
 - △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LMIC/UMIC)
 - △ 소외·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LDC, 사하라이남 등)
 - △ 성평등 달성을 위한 사회변화 기반 강화 활동 및 단체 지원(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필요국가)
 - (KOICA 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2019-2021))
 - 추진과제로서 사업 확산(사업의 다각화)/사업성과제고(성인지 관점의 내재화)/적극적 연대(플랫폼을 통한 시너지창출)을 삼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과 제고에서 성과관리 방안 중 하나로 젠더마커 내재화를 추진
 - (KOICA, SDGs5 이니셔티브 Fill the GAP 추진)
 - 「SDGs 이행 글로벌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및 「KOICA 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2019-2021)」에 의거, 이니셔티브 'Fill the GAP'을 수립,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3대 부문을 중점 지원

<표 5-2> KOICA, Fill the GAP 3대 사업 부문 및 사업 추진계획

사업분야	내용	중점분야 별 추진계획
여성과 경제	소외·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여성 및 여아의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체계 구축 - 자존감 및 자립 역량이 강화된 변혁의 주체로서의 ToT 여성그룹 양성
여성과 인권	구조적/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통한 사회변화와 변형 추구	- GBV 및 관련 정책 이행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부/시민사회 역량 강화 -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자조 그룹 형성 - GBV 피해자중심의 선사례 축적을 위한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이행 및 증거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성인지 역량 강화	- 성주류화 정책·제도 수립 및 현대화 - 성인지 통계시스템 포함 근거기반 제도 구축 - 사업수행 관리자·담당자 성인지 교육/성인지 행정역량 강화 (정부/민간)

자료: KOICA 제공

(3)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4) 중점 추진 내용

□ (사업 확산)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여아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젠더개발요소는 사업지역 사회문화적 요소들과의 상호영향이 큰 특성을 고려, 국가 현황에 맞게 세부조사 분석 보완을 통해 이행이 필수적임

○ (북아프리카)

- 교육받은 여성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고려, 직업교육훈련 시 여성 위주의 공과 선정* 등 여성의 취·창업을 적극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 * 국가 내에서 여성 특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부족할 경우 여성위주의 공과선정을 고려 가능. 그러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 기술과정자체에 여성 참여를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 구성 시, 국가의 젠더개발 현황 및 단계별 고려와 선정이 필요.
- 특히, 이 지역은 지역 내 5개국 간, 각 요소별 편차가 큰 만큼, 국가단위에서의 관련 세부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 후 국가현황에 맞는 설계, 이행

○ (중서아프리카)

- 여성의 성적·재생산 건강보장에 대한 집중 지원. 청소년출산율과 모성사망률이 비례하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 프로그램 진행 시, 청소년에 대한 성 기본권 교육 지원 포함
- 또한 해당 지역은 조혼과 같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강한 특성을 나타냄. 이에, 각 프로그램 추진, 이행 시 사회문화적 특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역주민 조직 등과의 이해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여성 참여를 제고 방안 등 고려되어야 함

○ (동남아프리카)

- 농업 노동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높으나 이것이 여성의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 농림수산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여성의 노동이 실질적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생산자원의 성평등한 분배 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 및 자문, 관련 분석을 포함, 개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사업 구성

<표 5-3> 교육-보건-직업 차원에서의 서비스 접근 향상의 예시

교육	보건	직업
- 여아대상 수학, 과학 교육강화 -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모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 여아교육의 경제적 장벽 낮추기(소녀대상 교육프로그램 재정지원)	-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제공(성생식보건교육 포함) - 조혼, 여성생식기절단(FGM)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성폭력 방지	- 새로운 커리큘럼 및 학습 리소스 개발을 통한 여성의 기술향상 및 시장 진입 완화 - ICT 및 회계능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육성

자료: 저자 작성

□ (사업 성과 제고) 추진 전(全) 사업의 ‘젠더마커 1’ 단계적 추진
 ⇒ 「KOICA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2019-2021)」에 일치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아프리카지역에서 추진되는 신규 전(全) 사업들의 ‘젠더마커 1’ 획득

- 아프리카지역의 젠더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세계평균 대비 열악한 점을 고려, 사업 발굴, 추진 전(全)단계에서 수혜자그룹,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 분석을 포함하여 빈부 및 성별로 인한 여성의 이중소외의 방지 및 수혜자로서의 적극 고려 유도
-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지역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이 ‘젠더마커 1’ 이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
- * 젠더마커 1의 기준 : △사업 구성 시 성분석(gender analysis)이 이뤄져야함 △사업기획 및 사업구성 요소가 성불평등을 야기하지 않아야함 △최소 하나의 명시적 목표와 이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데이터와 지표는 적용이 가능한 곳에서 성별분리되어야 함 △평가단계에서 사업을 통해 달성된 성평등 결과들에 대해 모니터링·보고 약속이 포함되어야함

■ ‘Youth Build Program’

(1) 추진 배경

□ 산업의 변화와 아프리카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고려 및 아프리카 연합의 비전 협력

- (산업의 변화와 아프리카지역의 독특한 특성)
 - 인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할 필

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삶 자체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4차 산업이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등을 특징으로 기존 산업혁명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비는 필수적
- 아프리카지역은 2001년 세계 최초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초월, 기존 타국가들의 ‘선(先)유선통신 개발, 이를 바탕으로 무선통신 발달’이라는 다른 국가의 공통적 발전경험과 순서의 공식을 뛰어넘어 바로 무선통신으로 진입한 경험을 보유.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아프리카지역은 대량생산, 자동화 시스템 등 충분한 기존 경제발달 패러다임을 기초로하는 산업구조, 사회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하는 4차 산업이 급격히 발달할 상당한 가능성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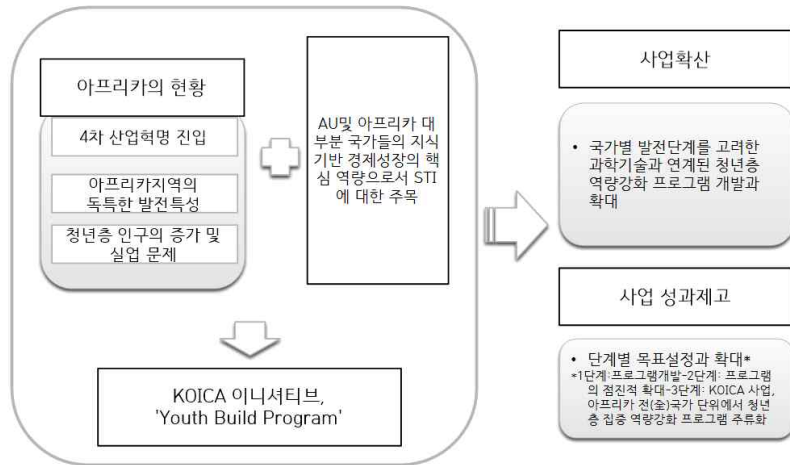
- (아프리카연합에서는 Agenda 2063의 성공적 이행 및 지식기반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전략이 시행)
- 아프리카연합에서는 아젠다 2063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및 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다기능적 도구, 범이슈로서 지식기반의 경제성장 가속화에 핵심 요소로 고려, 이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산업 발전, 인재 양성 등을 목표하고 있음

(2) 추진 방향

□ 과학기술혁신과 연계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아프리카지역의 청년층 인구증가와 실업문제) 아프리카지역에서 청년층인구는 빠르게 성장하여 2050년까지 현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8억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청년층 인구의 약 1/3은 실업 상태이며 고용되어 있다고 해도 취약한 상황으로 이들의 실업 문제해소는 아프리카지역 거의 대부분 국가의 우선 해결과제 중 하나.
- (과학기술혁신이 실업해소의 주안점으로 주목) 산업 및 인프라 발전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ICT와 관련한 산업 및 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 양성이 새로운 대안책 중 하나로 제시되는 양상

(3)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4) 중점 추진 내용

□ (사업 확산 및 성과제고) 국가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과학기술과 연계된 청년층 집중 역량프로그램 개발

- (아프리카 공통) 각 국별 과학기술 연계, 청년층 지원 정책, 전략,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이를 기본으로 국별 현황에 적합한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추진 계획 수립
- (스마트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중심의 고려) 스마트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는 'Transform Africa Summit(TAS)'에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모여 ICT를 통한 사회경제 발전 가속화 노력을 촉구하고 ICT를 국가 사회경제 발전 의제에 중심을 두는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역의 24개 국가가 활동 중임
- 특히, 스마트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회원국들은 이미 자국의 ICT 추진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와 관련한 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에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

※ 아프리카지역에서 과학기술연계,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은 지역의 공통 현안이자 점차 영역이 확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면밀한 조사 및 자료 축적을 바탕으로한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됨

2) 권역별 맞춤 전략 추진

(1) 추진 배경

□ 권역별 맞춤 전략의 필요성

- (1차 전략과 중점분야 이행의 일치도 및 사업 수행양상 분석결과, 상이한 사업 추진 양상)
 - II단원의 1차 전략과 지역, 분야별 중점프로그램 이행 일치도 분석 및 IV 단원의 KOICA 대아프리카지원 현황 분석결과, 권역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북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가운데 1차 전략 수립 이후(2012-2017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다수 수행된 보건의료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음.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공공행정 분야 사업은 북아프리카지역 내에서는 비중이 높게 진행됨
 - 전반적으로 북/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두드러진 분야의 차이 가운데, 공통적 요소로서 교육 분야는 전(全) 권역에서 다수 이행 및 중점프로그램과 가장 높은 일치를 보임. 하지만 교육분야에서도 권역별 구성요소는 북아프리카지역은 고등 교육 분야, 중서아프리카지역은 기초교육분야, 동남아프리카지역은 북과 중서아프리카지역의 특징이 혼합되어 시행되는 등 북/중서/동남의 상이한 권역적 특징이 나타남
- (개발환경 분석결과, 상이한 산업구조적 특징)
 - III 단원에서 시행된 개발환경 분석에서도 권역별 맞춤형 접근 필요성의 특징이 드러남. 특히, 경제적 특성에 있어, 북부가 중소득국 이상이 다수 포진되었으며 서비스업(52.8%), 산업(29.3%), 제조업(20.1%)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한편, 중서부와 동남부는 농업에 50%이상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특징은 유사하나 중서부가 3개 권역 중 GDP에서 농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반면 동남부는 GDP 중 서비스업의 기여가 50%를 상회하면서도 이 분야의 고용인구는 전체의 20%에 불과, 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적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서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냄

- 또한 사회분야에서도 절대빈곤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북부와는 달리, 중서부 지역은 3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절대빈곤인구를 나타내었으며 동남부지역은 절대적 빈곤인구 문제보다는 빈부격차,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1차 전략에서 전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전략을 구성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전략에서는 권역별 상이한 특성이 반영된 접근이 필수적으로 사료됨

(2) 추진 방향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의 핵심가치 4P의 연계

- 'KOICA의 경영전략(4P)-아프리카협력전략'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본 전략의 핵심가치를 KOICA의 경영전략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를 국가지원계획(CP) 및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맞춤형으로 접근, '전략-사업' 간의 연계강화, 성과중심의 관리 효율성 도모

□ 권역별 집중 영역 및 주요 구성: '과거-현재-미래'의 비교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권역별 집중영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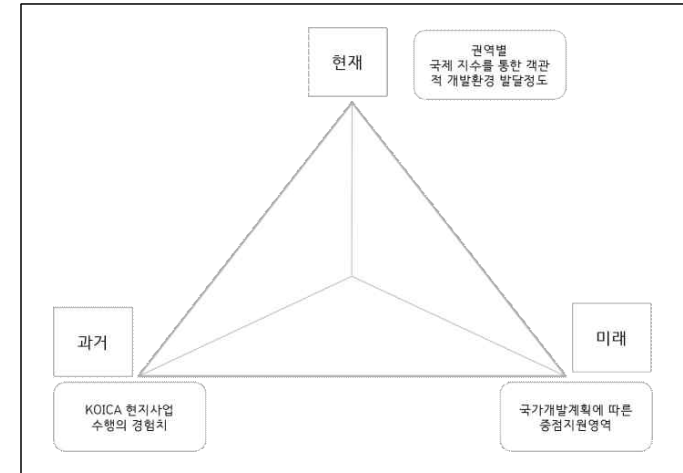
- 각 권역별 상이한 특징을 중심으로 4P 중 집중 지원 부분을 'KOICA의 사업분석(과거)-국제 객관적 지수를 통한 해당 권역의 현황(현재)-KOICA 국가지원계획(미래)'을 비교하여 도출
 - KOICA의 사업분석(과거) : KOICA가 아프리카지역 현지에서 수행한 2012~2017년 사업 중 집중되어 진행된 분야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하우(lessons learned)가 축적되어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집행효율성을 지닌다는 전제로 주요 분석틀로 선정
 - 국제 객관적 지수를 통한 해당 권역의 현황(현재) : Mo Ibrahim Index*에서 분야와 관계된 지표들을 국가별, 권역별로 선별, 취합하여 현재의 현황을 보는 객관적 지수로써 활용

* Mo Ibrahim Index는 아프리카지역 54개국을 대상으로 모든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지역 54개국에 대한 타 지수대비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지수들의 정규분포를 표준화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제공, 상이한 속성을 지닌 지표들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 기준으로 활용

- KOICA 국가지원계획(미래) : 지역전략과 국가지원계획(CP)간의 연계강화(cascading)가 이뤄질 수 있도록 KOICA가 지원하는 아프리카지역 각 국별 국가지원계획

에서 향후 설정하고 있는 다수 중점프로그램에 대한 고려를 하나의 틀로 포함하여 분석

[그림 5-4] 권역별 집중 영역 도출 모형



자료: 저자 작성

□ 권역별 집중영역

- 권역별 집중영역 도출 모형에 근거, 과거의 다양한 노하우를 지녔으나, 현재 해당 지역의 현황은 여전히 열악하며 권역 차원에서 각 국가지원계획(CP)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선정 비중 등을 백분율화하여 구성

○ 세부 분석

- (과거) 권역별 KOICA 지원 총액(2012~2017년, 모든 사업유형 포함)의 분야별 비중

<표 5-4> 권역별 KOICA 지원액 분야별 비중(2012~2017년)

분야	북부 (5개국)		중서부 (25개국)		동남부 (24개국)	
	지원액 (백만원)	환산 점수	지원액 (백만원)	환산 점수	지원액 (백만원)	환산 점수
	비중		비중		비중	
교육	48,096	0.23	106,640	0.22	222,941	0.27
	23.5%		22.6%		27.7%	
보건의료	7,292	0.03	125,926	0.26	160,842	0.20

	3.4%		26.7%		20.0%	
농림수산	30,921	0.14	92,285	0.19	187,165	0.23
	14.7%		19.7%		23.2%	
공공행정	59,981	0.28	89,815	0.19	133,996	0.16
	28.9%		19.0%		16.6%	
기술환경 에너지	54,853	0.26	49,876	0.10	95,197	0.11
	26.4%		10.4%		10.4%	
합계	204,043	1.00	467,144	1.00	805,698	1.00
	100.0%		100.0%		100.0%	

자료: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 (현재) 권역별 이브라힘 지수 활용 평균점수 (10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된 개발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

<표 5-5> 권역별 이브라힘 지수 활용 개발환경 점수

분야	Ibrahim Index 연계 분야 (활용지표)*	북부 (5개국 평균)		중서부 (25개국 평균)		동남부 (24개국 평균)	
		점수	환산 점수	점수	환산 점수	점수	환산 점수
교육	Education	54.38	0.54	40.50	0.40	48.53	0.48
보건의료	Health	80.42	0.80	63.87	0.63	69.20	0.69
농림수산	Rural Sector	54.24	0.54	45.45	0.45	56.46	0.56
공공행정	Safety & Rule of Law	49.72	0.49	51.70	0.51	54.18	0.54
기술환경에너지	Infrastructure**	62.84	0.62	39.46	0.39	45.92	0.45

자료: Mo Ibrahim Foundation, 2018, Ibrahim Index 2018 활용, 저자 작성

* Ibrahim Index는 매년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다자기구, 공여기관, 단체 및 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102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각 범주의 국가별 평균점수를 산정함. Ibrahim Index에서 사용하는 분야의 기준이 KOICA의 5대 분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각각의 범주가 포함하는 내용과 상세지표가 가장 유사한 분야를 점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 연계 분야별 주요 상세 활용지표(발표기관)는 아래와 같음

- Education (7개 지표) : 교육 만족도(AFR), 시장수요와 교육 적합도(WEF), 초등학교 졸업률(WB), 중등학교 등록률(UNESCO) 등
- Health (9개 지표) : 기초보건서비스 만족도(AFR), 위생 접근성(WHO&UNICEF), 전염성 질병 비율(WHO) 등
- Rural Sector (8개 지표) : 농업을 위한 토지 및 수자원 접근성(IFAD),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IFAD) 등
- Safety & Rule of Law (27개 지표) : 사법과정의 독립 및 투명성(EIU), 공공 및 사법 정보 접근성(GI), 정부 및 공무원 신뢰도(V-Dem, AfDB, WB, EIU) 등
- Infrastructure (6개 지표) : 교통인프라(WEF/EIU), 전력공급현황(WEF/AFR), 생활용수 공급 만족도(AFR) 등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의 기술환경에너지는 물,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분야로 이브라힘 지수에서 딱 맞게 분류되는 지표를 찾기가 어려운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분류상 가장 유사한 상세지표를 포함하는 범주(Infrastructure)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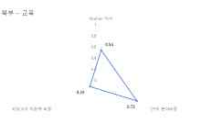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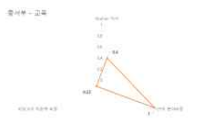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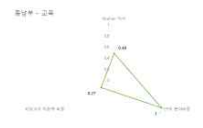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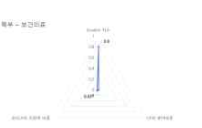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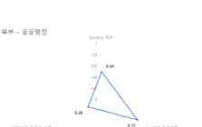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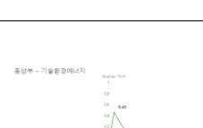
- (미래) 권역별 CP의 분야별 분포와 상대적 비중(16개 사무소 중심)

<표 5-6> 권역별 국가지원계획(CP)의 분야별 분포와 상대적 비중

분야	북부 (4개국)	중서부 (6개국)	동남부 (6개국)
	환산점수 (1점 만점) : 해당 분야 프로그램 국가수/권역별 국가수*100		
교육	0.75	1.00	1.00
보건의료	0.00	1.00	0.66
농림수산	0.00	0.50	0.50
공공행정	0.75	0.83	0.33
기술환경에너지	0.75	0.00	0.50

자료: KOICA 제공자료 활용, 저자 작성

<표 5-7> 권역별 집중영역 도출 모형

4P	북	중서	동남
P e o p l e	교육 	중서부 - 교육 	동남부 - 교육 
	보건 	중서부 - 보건 	동남부 - 보건 
P e a c e	공공행정 	중서부 - 공공행정 	동남부 - 공공행정 
P r o s p e r i t y	농림수산 	중서부 - 농림수산 	동남부 - 농림수산 
P l a n e t	기술환경에너지 	중서부 - 기술환경에너지 	동남부 - 기술환경에너지 

자료: KOICA 통계 웹사이트(검색일: 2019.08); Mo Ibrahim Foundation, 2018, Ibrahim Index 2018; KOICA, 2019, KOICA 제공자료(CP) 활용, 저자 작성

○ (People) 북아프리카지역의 보건의료를 제외, 전반적으로 3개 권역 모두에서 과거의 지원이 타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수행의 경험,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수원국의 현황 또한 0.5 내외로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국가지원계획의 우선순위로써 상당한 비중을 차지, 아프리카지역 공통 집중 영역으로 삼고자 함

○ (Peace) 권역별 전체 사업 비중에서 해당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 시, 북부와 중서부지역은 유사한 모형을 보임. 그러나 IV단원 권역별 사업 유형 분석에 의거하면 북부지역은 KOICA의 지원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압도적으로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음. 또한 ‘아랍의 봄’ 이후 북부지역의 굿거버넌스와 관련한 수원국 정부의 개선 수요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북부지역의 중점영역으로 Peace를 두고, 중서부지역의 경험노하우, 국가지원계획에서의 우선순위 비중 등을 고려, 준중점영역으로 두고자 함

○ (Prosperity)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유사한 모형을 보이는 가운데 동남부지역이 중서부 지역 대비, 사업 수행 경험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중서부 지역이 동남부 대비 현재 현황이 보다 열악하고 국가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동남부 지역이 산업 구조 전환 촉진의 맥락에서 농업을 다루고 개발환경 분석에서 GDP 기여가 증가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인력 개발을 우선에 두는 점을 고려, 중서부지역의 중점 영역으로 배정함. 단, 동남부 지역에서의 농림수산물과 관련한 사업수행의 경험, 노하우 등과 비약적이지 않은 현황 개선 상태 등을 고려, 준중점 영역으로 고려하고자 함

○ (Planet) 북부, 동남부가 유사한 모형을 보이는 가운데, 북부가 동남부 대비 상대적으로 사업경험노하우, 국가지원계획에서의 우선순위 비중 등이 앞서며 뿔아프리카(Horn of Africa)지역에서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한 재해, 재난 등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바, 중점영역으로 두고, 북부지역에서는 준중점 영역으로 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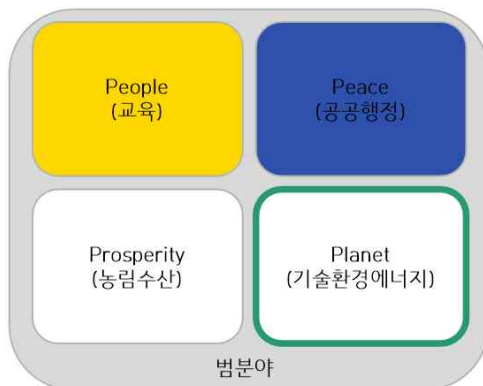
[그림 5-5] 4P-아프리카 공통 및 권역별 집중영역



자료: 저자 작성

(3) 권역별 맞춤 전략

A. 북아프리카 (People, Peace +Planet)



□ 기본방향

-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교육서비스 강화
- (Peace)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확립
- +(Planet) 모두를 위한 기술환경에너지 향상

□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People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Peace	▶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Planet	▶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핵심연구인력 양성

□ 중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People
 -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 산업별 노동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기술 수준 및 지원분야 도출, 산업 연계 강화
 - 아프리카지역 기술교육 선도모델 구축 및 아프리카지역 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확산
 - 산업수요를 반영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대비 개발된 인프라 및 인적 역량을 활용한 교류방안 모색
- Peace
 - 전자정부 행정시스템 현대화 지원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강화
 - 전자정부 전략 제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법제도 정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법제도 구축지원, 전자조달, 특허행정, 통계행정 등 정부 서비스 기능별 행정시스템 현대화
- +Planet

- 정책컨설팅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환경변화 대응 기여

□ 사업유형

- 각 P별 기존 선호 사업 유형과 추가 제안 사업유형을 제시

<표 5-8> 북아프리카지역 사업유형

	People	Peace	+Planet
KOICA 사업추진 경험근거, 선호 사업유형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개발컨설팅 연수생초청
추가 제안 사업유형	민관협력	민관협력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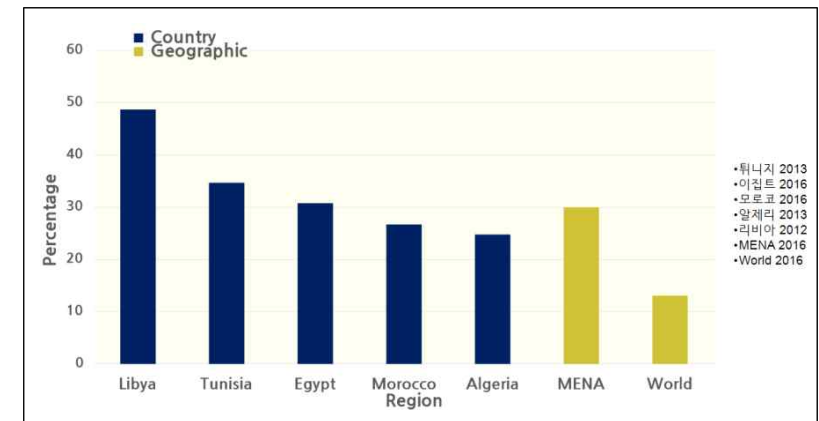
- 추가 제안 사업유형 배경
 - (People) 고용시장의 빠른 변화, 이에 대한 인력의 지속적 고용과 활용측면에서 실제 직접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기술을 교육시키고 산업현장에서 바로 가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추진 필요성 다대.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대비, 산업구조에 있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상대적 입지 등을 고려, 해당 지역 내 기업, 국외기업 모두에서 산학연계 추가 제안이 가능
 - (Peace) IV단원 언어네트워크 및 N-Gram분석에 근거, Peace(공공행정)분야는 시스템 및 기자재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요소로 특히, 이것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교육 제공, 행정 소모품에 대한 연속적 지원의 어려움 등이 개선해야 할 요소로 지적됨.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관련 시스템 및 기자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원조사업의 성격 상,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필요성 다대. 단, 북아프리카지역에서 다수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경우, 민관협력 시 야기될 수 있는 정보유출로 인한 자료 공유의 어려움 등 민관협력 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다각적 해결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사업 추진 시 핵심 고려사항

- 분쟁 예방 차원에서의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고려
 - KOICA는 지속적 평화개념의 대두에 따른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기반 사업추진 기본계획(2019-2021)을 구상, 추진 중. 특히, 이는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나 전후 재건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업 전반의 배제와 불평등에서 기인한 기저의 불만(grievances) 요소 제거를 통한 '예방(prevention)'에 초점을 둔 접근법 적용 확대를 추진. 같은 맥락에서 북아프리카지역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청년실업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 농후
 - Brookings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지역은 청년실업이 세계에서 25년 넘게 가장 높았으며(2017년 기준, 30%), 청년실업이 빈곤, 경제 저성장을 넘어 테러 등 사회 불안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집중 고려되는 MENAP지역*에도 속하는 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취·창업 지원이 필요

*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Pakistan

[그림 5-6] MENA지역(북아프리카포함)의 청년실업



자료: Brookings 웹사이트 (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 삼각협력과 남남협력 추진 고려*
 - * 삼각협력의 경우, 일부 남남협력과 혼재되어 사용되어 둘을 간략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5-9> 삼각협력과 남남협력 비교개요

	삼각협력	남남협력
정의	선진 공여국(공여국, provider)-신흥 공여국(주축국, pivotal provider) -후발개도국(수혜국, beneficiary) 간의 개발협력형태	수원국이자 공여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개발경제국(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과 그 외 수원국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개발협력 형태

등장배경	2000년 중반 이후 BRICS를 포함한 신흥국의 등장 및 선진 공여국들의 성장률 하락이 맞물려 활발해지기 시작	1950년대 개도국 정부들은 국가개발 장애요소를 뛰어넘기 위해 기술협력을 통한 개도국 간 벤치마킹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개도국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개도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유형	- 남남협력(주축국+수혜국) + 공여국 - 공여국-주축국 파트너십 + 수혜국 - 북남협력(공여국+수혜국) + 주축국 - 네트워크형(공여국-주축국-수혜국)	개도국간 공동의 개발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술협력/경제협력 촉진, 개발경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개발협력을 도모
특징	- 단점: 양자 협력 대비 추가적 거래비용이 발생 - 장점: 개도국의 개발효과성 증진 및 잠재적 협력 영역 확대	- 신흥경제국의 개발 경험을 수원국에 전수/반영하는 형태 빈번 - 개도국들은 선진공여국 및 다자기구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타 개도국에 대한 원조 가능
활용현황	기술 지원 및 전문가 파견, 재정적 지원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분야(농/축/수산업, 보건/의료, 정부와 시민사회(거버넌스의 순)	기술협력, 역량개발을 위한 단기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빈번함
주요국가	- 공여국: 일본, 독일, 스페인 - 주축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아시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주요 국가 및 남남협력 플랫폼 -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IBSA)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BASIC)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중국

자료: 손혁상(2019);임소진(2014);정형(2017) 활용, 저자 재구성

* 주로 OECD/DAC회원국을 의미

** 삼각협력의 ‘주축이 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주로 신흥 공여국을 의미

*** 신흥경제국은 신흥공여국으로도 지칭되며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중소득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의미. 2010년 이후 OECD DAC에 가입한 한국,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의 국가가 DAC 체제 안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불리기도 함. 하지만 주로 OECD DAC회원국이 아니며 남남협력의 공여국 역할을 하는 중소득국을 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는 추세

- (추진 방식) 삼각협력, 남남협력 둘다 주로 기술협력, 기술지원,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짐. 특히, 삼각협력은 양자협력 대비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대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개발 원조 진행이 가능하며 남남협력의 경우, 한국이 개발경험을 보유한 OECD/DAC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기술협력 및 역량개발 사업 수행 시 개도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비교 우위를 지닐 것으로 사료
- (추천방안)

삼각협력	남남협력
‘주축국-KOICA+수혜국’과 더불어 ‘KOICA-국제기구-수원국’ 형태로 이뤄지는 양자성 다자 또는 기여를	남남협력이 플랫폼에 기반, 실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개별국가보다 아프리카지역 내 회원국을 고려, 관련 지역기구와의

포함한 유형 모두 유연하게 적용 가능. 단, 북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주축국들의 역량, 의지 등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주축국-KOICA+수혜국’ 형태를 보다 권고	협력 추진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
--	--------------------

- (삼각협력/ 남남협력에서의 협력 추천국) 모로코*

* 모로코는 아랍 다자원조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임과 동시에 대아프리카 남남협력의 리더임을 공공연히 자처하며 ‘Morocco-Africa partnership’을 강조하며 국왕 Mohammed VI 즉위 후, 50여차례의 아프리카 개별 국가 방문을 통해 1,000개 이상의 협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모로코는 2015년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과의 MOU를 통해, 모로코의 개발경험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고 남남협력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강조하며 아프리카지역에서 온 16,000여명 이상의 유학생 약 90%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함. 또한 현재 국립전력국(National Office of Electricity)를 통해 차드, 감비아, 리비아,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에 기술협력 및 유상원조를 지원.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수행 경험이 다수임

[글자 4] 한국 추진 삼각협력 사례 분석(BEAR)

o 사업개요

- 사업명: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BEAR)
- 공여기관: 한국 교육부
- 수원국: SADC 5개국(보츠와나, DR 콩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 총 사업기간: 5년(2011-2016년)
- 예산: 한국의 유네스코 신탁기금 1,000만 달러
- 목적: 수원국의 직업교육 관련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
- 의의: 한국 교육부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 중 가장 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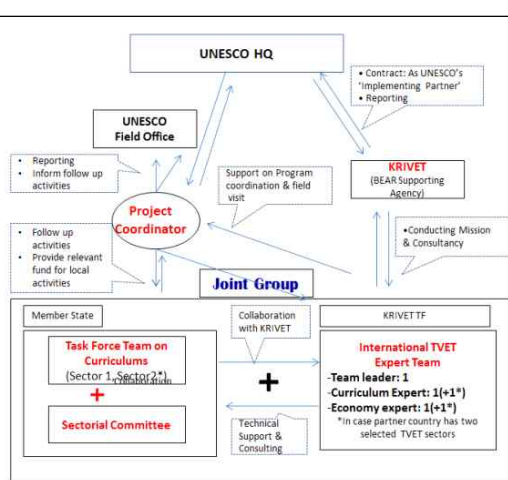
o 사업내용

- : 전체 BEAR 사업은 Result1, 2, 3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됨.
- (Result 1) 노동시장분석 및 커리큘럼개발
- (Result 2) 관련 교사 교육
- (Result 3) MIS 구축

o 사업추진구조

예) Result 1의 경우

- 참여자: 유네스코(총괄 및 모니터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수행), 수원국(수혜대상)
- 의사소통구조: 유네스코 본부 총괄 하, 지역사무소가 현지 코디네이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업수행을 주도하며, 현지 전문가와 합동팀을 구성, 추진
- 인력선발/선임: 유네스코 본부가 필요인력에 대한 모집공고, 인터뷰, 계약을 관리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분야 국내외 전문가 선임을 담당
- 국가 선정 과정: SADC 총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소개 후, 개별국가로부터 사업신청/수요서를 받음. 수집된 신청서에 기반하여 유네스코 본부 주도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최종 수혜국을 결정함. 수요조사팀 구성 시 한국의 직업교육전문가도 포함



○ 동사업 구조의 특징

- 장점
 - :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자간 네트워크가 느슨한 국가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역량과 네트워크, 물리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 현지에서 사업 추진 시,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위로 신규 사업 또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사업이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설득력을 지님.
 - : 한국 측 참여인력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글로벌 역량 강화가 이루어짐
- 단점
 - : 국제기구 내의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로 인해 비효율성 발생
 - : 상대적으로 국제기구가 해당 지역 정보 및 전문성의 우위에 있어 의사결정 시 한국 정부 또는 참여기관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현지 정부-유네스코 본부-한국 정부 간 행정 우선주의가 앞설 경우 실제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 5년의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와 지속가능성 및 확산을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한 현지 네트워크 및 사업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부가 유네스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국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후속사업을 실시
- 해당 국가들은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 없거나, 한국의 중점협력국 리스크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각협력 사업을 통해 1) 한국은 유네스코를 통해 해당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 실제 사업에 참여가능 한 현지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한국의 역량에 기반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삼각 협력을 통해 1) 수원국의 직업교육훈련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2) 국제기구, 국제원조 활동의 규범과 실재를 경험해 통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개발협력 인력과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 수행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원-원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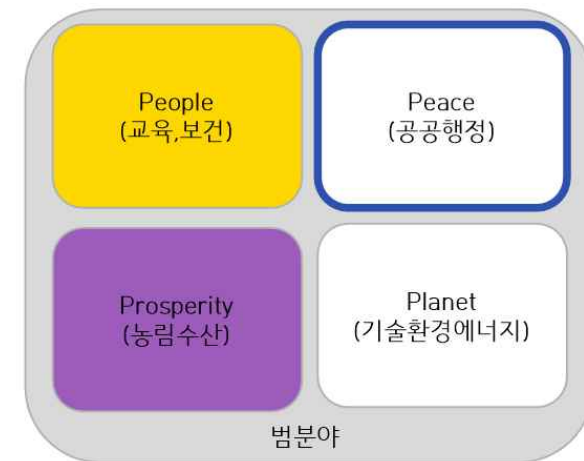
○ 한국의 대아프리카 삼각협력에 주는 함의

- 우리 정부가 사업수행 경험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사업 수행 시 국제기구와의 삼각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추진이 효율적일 수 있음. 또한 구축된 네트워크 및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양자 사업 추진의 발판 마련 가능

- 다만, 의사결정구조, 행정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전 협의가 필요함

자료: 김규태(2015); 조정윤(2015) 활용, 저자 재구성

B. 중서아프리카 (People, Prosperity, +Peace)



□ 기본방향

-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교육/보건서비스 강화
- (Prosperity) 공동 번영을 위한 기간 산업 지원
- +(Peace)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민주적이고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

□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People	▶	▪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 식수위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 양질의 필수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 제공
Prosperity	▶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Peace	▶	▪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 중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People
 -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지원
 - 여성, 장애, 학교 밖 아동, 빈곤계층 등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설립,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개발, 교보재 지원
 - 여학생 친화적 안전학습환경 조성 및 여아교육과 성역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 지원
 -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 산업별 노동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 기술 수준 및 지원 분야 도출, 기 지원된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생 추적조사 수행지원을 통한 성과관리 지원
 - 기술교육/직업훈련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국별교육과정, 직업정보 등에 대한 지식공유 체계 지원
 - 식수위생 개선
 - 안정적인 식수공급,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 보급, 주민주도형 통합 위생사업 지원
 - 성생식모자보건
 - 가족계획 상담 및 서비스 교육, 피임도구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모자보건 인력 양성,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가에 의한 분만 지원
- Prosperity
 -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구축
 - 소농 중심의 농업생산성 제고, 영농기술 개발 지원, 기술 지도, 관개 시설 등 인프라 지원
 - 가치사슬 확대 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과 정부가 참여하는 현지화된 농민조직 활성화 지원, 농촌여성 및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 사업 지원

- +Peace
 - 공무원의 인적 역량강화
 - 전자정부 행정시스템 현대화 지원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강화
 - 전자정부 전략 제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법제도 정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법제도 구축지원, 전자조달, 특허행정, 통계행정 등 정부 서비스 기능별 행정시스템 현대화

□ 사업유형

- 각 P별 기존 선호 사업유형은 아래 표와 같으며 관련한 특별한 개발환경 변화가 관찰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 유형 유지 권고

<표 5-10> 중서아프리카지역 사업유형

	People	Prosperity	+Peace
KOICA 사업추진 경험근거, 선호 사업유형	프로젝트 봉사단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프로젝트 연수생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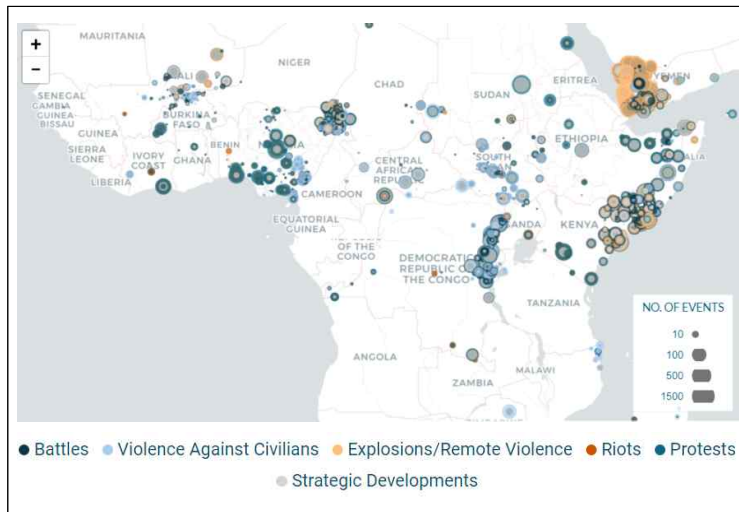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사업 추진 시 핵심 고려사항

- 분쟁 취약국 네트워크(INCAF) 활동과의 협력 우선 고려
 - KOICA는 지속적 평화개념의 대두에 따른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기반 사업추진 기본계획(2019-2021)을 구상, 추진 중. 특히, 이는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나 전후 재건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업 전반의 배제와 불평등에서 기인한 기저의 불만(grievances) 요소 제거를 통한 '예방(prevention)'에 중점을 둔 접근법 적용, 확대를 추진. 같은 맥락에서 중서아프리카지역에서도 분쟁 예방의 차원에서 우선 접근할 것을 권고
 - 중서아프리카지역의 분쟁은 아프리카 분쟁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이념적 원인보다는 주요 경제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음. 또한 '아프리카 뿔' 지역에 집중된 국가영역에 발생하는 반면, 중서아프리카지역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지역 전체에 퍼져있으며 투쟁, 폭동을 넘어 민간인을 겨냥한 폭탄 테러 등이 중점적으로 자행됨

- 중서아프리카지역의 지속적 분쟁 발생, 이와 연계된 협력 활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KOICA 평화기반 사업 추진 기본계획안에서 언급한 바대로 KOICA는 평화와 직접 관련한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그림 5-7] 아프리카지역 분쟁



자료: ACLED 웹사이트(검색일: 2019.10)

- 이에, 이 지역에서 직접적인 접근, 관련 사업을 바로 진행, 확대하기보다는 OECD/DAC 분쟁 취약국 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를 활용한 아프리카 주도의 평화안보 구축 노력에의 지지,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
- 특히, 한국이 INCAF에 대한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 INCAF 활동의 사례, 시사점을 충분히 학습한 후, 한국의 현황에 맞는 현장에서의 연대, 활동방안을 세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5-11> 분쟁 취약국 네트워크(INCAF) 활용 사업 추진 방안

구분	상세 내용
협력 방향	분쟁 예방(prevention) 중점
단계별 협력 방안	(1) INCAF 접촉, 정례 및 비정례 워크숍 참석을 통한 협력 활동에의 참여(음저버 등) (2) INCAF와의 협의를 통해 아프리카 주도의 평화안보 구축 노력 지지와 협력활동 전개 - 예. 평화구축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시민사회 대상 평화구축 캠페인활동 공동 지원 등 (3) 평화구축 분야 시사점 학습/경험 습득 후, 우리 현황에 맞는 현장에서의 연대, 활동방안 수립 필요 - KOICA의 역량 안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활동 또는 타기구/기관과 연계한 협력활동 발굴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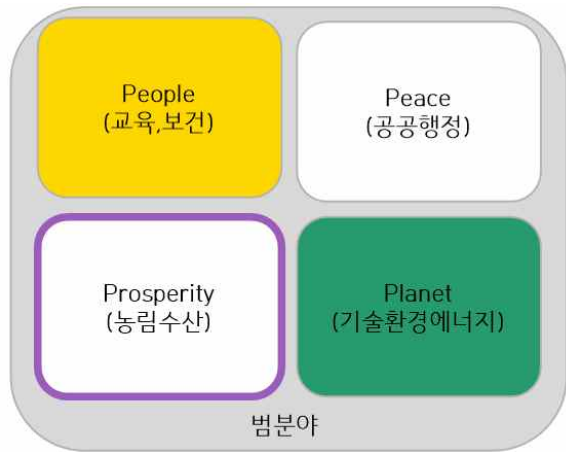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5] 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 INCAF는 OECD/DAC의 취약국가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로 2008년 12월, DAC이 분쟁, 평화, 개발협력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
- 현재 INCAF에는 OECD/DAC의 29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뿐 아니라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과 같은 다자개발은행, UNDP, UNOCHA, UNPBSO가 소속
- INCAF의 주요기능으로는 △본부와 파트너 국가들의 현장 수준에서의 모범적인 실천과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을 고취 △국제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세계적으로 또 현장에서의 결과를 점검 △분쟁과 취약성에 대한 원조국가의 대응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등이 있음
- INCAF는 시민 단체, 국제기구, 파트너국의 OECD 및 비 OECD 정부(특히 취약국)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시행
- 최근 INCAF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 유엔, 시민 사회 및 공여국 등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음
 - 2017년 1월 및 2월, INCAF는 다양한 코로스보더 리스크로 인해 불안정한 사헬 지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사바나의 경계에 있는 점이지대)의 취약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랑스 외무부, UN, 시민사회 등을 소집하여 워크숍을 진행

자료: OECD 웹사이트(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C. 동남아프리카 (People, Planet, +Prosperity)



□ 기본방향

-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 교육/보건서비스 강화
- (Planet) 모두를 위한 기술환경에너지 향상
- +(Prosperity) 공동번영을 위한 기간 산업 지원

□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People	▶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 양질의 필수모자청소년 보건서비스 제공
Planet	▶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Prosperity	▶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중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People
 -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 산업별 노동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 기술 수준 및 지원 분야 도출, 기지원된 직업 훈련기관의 졸업생 추적조사 수행지원을 통한 성과관리 지원
 - 기술교육/직업훈련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국별교육과정, 직업정보 등에 대한 지식공유 체계 지원
 - **성생식모자보건**
 - 가족계획 상담 및 서비스 교육, 피임기구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모자보건 인력 양성,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가에 의한 분만 지원
- Planet
 - **자연재해 예방 대응 능력 제고**
 - 수원국 기후변화, 자연재해 관련 우선순위에 연동 지원하되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역량 강화
- +Prosperity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주민의 수요에 기반하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마을 개발사업, 농촌개발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수원국 정부 행정 및 농촌지도기관이 주도하여 주민 역량강화, 성과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의 사업 참여 의욕 고취, 공동체에서 유지되고 작동되는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도입

□ 사업유형

- 각 P별 기존 선호 사업유형은 아래 표와 같으며 관련한 특별한 개발환경 변화가 관찰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 유형 유지 권고

<표 5-12> 동남아프리카지역 사업유형

	People	Planet	+Prosperity
KOICA 사업추진 경험근거, 선호 사업유형	(교육) 프로젝트, 봉사단 (보건) 프로젝트, 민관협력	프로젝트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자료: 저자 작성

□ 사업 추진 시 핵심 고려사항

○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지역 특별관리

- 아프리카 뿔 지역을 포함, 해당 지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 이는 식량안보 위협, 경제 취약성의 심화 등 국가 전반의 개발 과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
-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분쟁, 이주 등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이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려와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5-13> Horn of Africa 지역 주요 문제 개요

	현황	전망
가뭄	2018년 '아프리카의 뿔' 일대를 휩쓴 가뭄으로 1천 5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구호지원을 받음 - 올해 역시 1천 500만 명 이상이 기근의 위험	- UN 및 옥스팜, 2011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260,000명 이상이 기근으로 사망하였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 - UNHCR, 최근 소말리아의 우기가 평소보다 건조, 농민 및 목축업자들의 피해가 심각. 이로 인해 올해 9월까지 소말리아에서만 약 540만 명 식량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홍수	2018년 3월, 이 지역의 폭우로 인한 홍수로 180명 이상이 사망 70만 명 이상의 피난민 발생	현재 이 지역의 토양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수분 흡수력이 급감, 홍수의 연속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상황
식량안보	이 지역의 인구 중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황이며 에리트레아 및 소말리아의 경우 70% 이상	세계기상기구(WMO), 이 지역의 강우량 감소가 농업 및 목축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향후 이 지역의 식량안보는 보다 취약할 것으로 전망
분쟁 및 이주	에티오피아는 강우량의 불확실하여 물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나일강을 비롯한 수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을 두고 인접 국가들과의 긴장감이 조성됨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 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는 보다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간 긴장 및 분쟁의 요소도 동반 상승 예상

자료: 옥스팜 · FAO · WMO · UNEP 웹사이트(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 향후 동아프리카지역기구와의 협업

- 회원국 수가 타지역기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고 동부지역에 위치한 기구들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EAC, IGAD는 활발한 지역통합을 추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상당수 양자기관들이 동아프리카 지역 활동 시 이 두 기구와 협업하고 있음. 이에, KOICA에서도 모델사업의 홍보, 확산 등에 있어 향후 동아프리카지역기구와의 협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할 필

3) 국제파트너와의 협력 지속 확대

(1) 추진 배경

□ KOICA 중장기 경영전략

- KOICA는 전략방향과 연계한 핵심 업무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국별맞춤지원, 개발사업 파트너십 강화, 개발인재 양성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재편하였으며 지원수단을 재분류하여 주요사업과 전략방향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체제 정립. 특히,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존 '국별+파트너협력'에서 이 둘을 분리하여 국제사회 파트너십 강조 기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화를 개선방향으로 삼고 있음

<표 5-14> KOICA 중장기 경영전략방향과 연계한 핵심업무의 전략적 재배치



자료: 저자 작성

□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5-2010)과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등을 다루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매해 한국의 ODA 세부분야, 지역, 주요 내용 등을 다루는 종합시행계획안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서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

(2) 추진 방향

□ 지역전문성·분야전문성 활용 및 특별 프로그램에서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 III 단원 국제사회의 국제기구 협력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
 - => 지역전문성, 분야전문성 보유 국제기구 활용
 - 대부분 공여기관이 공개 가능한 수준의 자료에서 명확하게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다자성양자 활용 방향 및 전략이 잘 드러나는 편인 영국의 경우 다자기구의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역량을 높이 평가, 이를 활용하고 있음
 - 또한 GIZ의 경우, 국제기구 사업 중 추진된 다자성양자 사업의 특성을 보면 개발지원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나, 치안의 이유로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곳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KOICA 또한 타 공여기관에서 국제기구 특유의 역량과 장점으로 꼽은 영역을 활용, 아프리카지역의 치안 불안정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 개발환경 개선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KOICA 중장기 경영전략, 국내 ODA 관련 법 기조에 맥락을 함께할 필요성 농후
- II단원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시사점에 근거
 - => 급변하는 개발환경 수요를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에서의 국제기구와의 협업
 - KOICA의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평가에서 기 선정된 중점분야에 대해 상당히 일치된 사업 수행이 나타났으나 기후변화 혹은, 재난 대응 등 긴급하게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내용이 1차 전략 수립 당시에는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시의성 있게 발굴되고 진행되었던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오히려 전략에 대한 사업 시행 일치를 낮게 만들
 - 이에 권역별 맞춤 전략 추진을 중심으로 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환경을 고려, 기존 섹터 외에 해당 시점에 긴급하게 발굴,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사업 전문성을 지닌 국제기구와의 협업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 농후

(3) 추진 내용

A. 취약국 대상, 지역전문성 보유 국제기구와의 협업

□ 기본방향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의거, 국제기구 중에서도 중점협력 5대 기구(UNDP, WFP, UNICEF, WHO, UNHCR)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되, 아프리카지역 전문성, 취약국 활동이 다대한 기구와의 협력 강화

□ 주요 내용

- (추천 협력기구) 중점협력 5대 기구 중, UNDP와 WFP가 아프리카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타 기구에 비해 높으며 최근 활동 내용 감안 시, 우선 협력기구로 고려 가능
 - 특히, UNDP의 경우 독일이 최근 3년간 지원에서 즉각적인 안정화가 필요하나 치안상 이유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 위주의 다자성양자 사업, 일본의 대아프리카 전략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TICAD의 효율적 집행, 확산의 주요 기구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취약국 대상과 어떤 국가 및 기관의 전략의 대아프리카 수행 경험을 보유
 - WFP 또한 아프리카연합의 ARS(Africa Risk Capacity)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일치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역 내에서도 취약국에 해당하는 DR콩고,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북동지역, 남수단 등에 위급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한 경험을 보유

<표 5-15> 중점협력 5대 기구 대아프리카 지원 개요

	UNDP	WFP	UNICEF	WHO	UNHCR*
주력분야 키워드	빈곤	식량	아동	보건	이주
아프리카지원 비중	60%	60%	37%	24%	30%
최대 지원국가	DR콩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DR콩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남수단

자료: 각 기관별 연차보고서 및 웹사이트(검색일: 2019.09) 활용, 저자 작성

* UNHCR의 최대 수혜국만 2018년 기준. 나머지는 2017년 기준 자료

- (추천국가 및 지역)

- KOICA 사무소 소재 국가 중, 국가 내 치안의 문제로 국경분쟁지역, 난민캠프 등 접근 위험지역
- 사헬지역, Horn of Africa 국가 중 치안의 문제로 접근 위험지역

B. 특정유형, 사업전문성 보유 국제기구와의 협업

□ 기본방향

- KOICA가 그동안 지원해보지 않은 특수 분야, 유형의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내용의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의 협업 추진

□ 주요 내용

- (추천협력기구) 기존의 중점협력 5대 기구 외, KOICA는 최근 아프리카지역 내 다자성 양자사업으로 UNFPA와 협력하여 여성 누공치료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음.
- UNFPA는 아프리카지역에서 '3-Zero Agenda' 전략을 통해 가족계획, 모성사망, 젠더기반 폭력행위 근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지역 내에서도 중서부와 동남부의 지역적 특징에 근거하여 추가 지원 전략을 고려, 수행 중
- KOICA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에서 4P 중, 공통 'P'에 해당하는 'People'의 상당 사업들이 모자보건, 젠더 등의 속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구인 UNFPA와의 협력을 지속적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 (기타) 그 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UNOPS, 이주 분야의 UNHCR, 기후 관련 GGGI, 청년층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UNDP 등과의 협업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추천국가 및 지역)
 - (UNFPA) 낮은 젠더개발지수 환경을 지닌 국가 중, 모자보건 사업 수행 국가
 - (기타) 각 분야별 심층 조사 및 발굴, 공유를 통해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기구의 역량 점검, 협업 추진이 필요

C. 급변하는 개발환경 수요를 고려한 특별프로그램에서의 협업

□ 기본방향

-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수행 시, 수립 당시 고려하지 못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아프리카지역의 개발수요가 다대한 분야에 대해 관련 지역, 사업 전문성을 지닌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대응

□ 주요 내용

- (긴급 구호 및 지원과는 구분) 자연재난, 재해 등과 같은 긴급 구호와는 맥락을 달리하며, 아프리카지역의 정치·사회 맥락에서 급변하는 개발환경 속에서 수요가 다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가령, 현재 전략에서는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아프리카지역의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추세를 볼 때, 이와 관련한 이슈는 아프리카 내 핵심 추진 영역이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관세철폐, 교역 활성화, 인접국간의 네트워크 강화, 관련 법률, 제도의 지원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추천국가 및 지역)
 - 아프리카 전(全) 지역 및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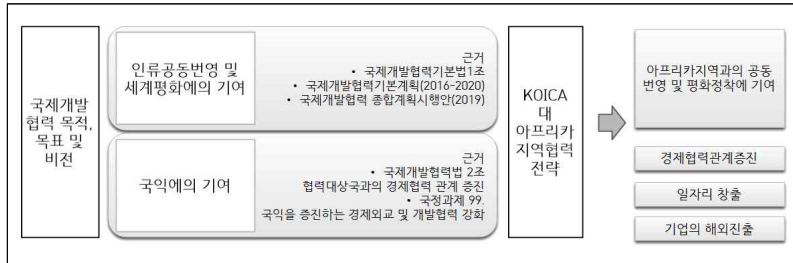
5. 기대성과 및 국익에의 함의

□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목적 및 비전과 일치된 아프리카지역전략의 수행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2019), 청와대 국정과제 및 목표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목적, 목표 및 비전은 크게 '인류공동번영 및 세계평화의 기여'와 '국익에의 기여'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익에의 기여는 국제개발협력법 2조에서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99번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국익기여 개발원조 내용을 다룸

- 금번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은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방향성에 일치, 밖으로(forward-looking)는 아프리카지역과의 상생과 공동번영,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발전을 안으로는(inward-looking)는 신성장 동력창출 및 인재양성을 지향함

[그림 5-8] 우리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에 일치된 아프리카지역전략 개요



자료: 저자 작성

□ KOICA의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의 기대성과 및 국익에의 함의

- 아프리카지역과의 공동번영 및 평화정착에 기여
 - KOICA의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의 개발환경, 아프리카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 국가별 개발환경 및 전략 등 복합적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지역 및 권역, 국가의 수요와 주인의식에 기반한 맞춤형협력을 추진. 이를 통해 아프리카지역과의 공동번영, 상생발전의 동반자 관계를 비전으로 방향 설정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
 - 또한 KOICA의 평가기반 사업 추진계획(안)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지역의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권역별 이슈와 연계, 아프리카지역의 평화·안보 구축 노력을 지지, 평화로운 아프리카 실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
- 국익에의 기여
 - (경제협력관계 증진)
 - ✓ 아프리카지역 내 국가별 양자협력을 통한 개별국가와의 관계 증진 및 AU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권역별 지역기구와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 공고화
 - ✓ 나아가 현재 아프리카연합에서 가열차게 추진 중인 AfCFTA 성공적 이행에 대한 지원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 증진 및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

- (일자리 창출)

- ✓ 양자협력 프로젝트 단위의 인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추진식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속 및 확대 과정에서 아프리카지역 전문성 갖춘 인재의 채용, 이들의 사업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로 인재를 유인하고 실제 취·창업 연결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인재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 (기업의 해외진출)

- ✓ 금번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의 4p 중 주요 사업 요소인 직업 및 기술교육 선도 모델 구축,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적정기술의 제공, 전자행정/조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진출 희망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이해의 제고, 산학연계를 통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확보 및 노동시장 현황 파악, 국제입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경험(reference)축적 등 기업 진출을 위한 기회와 정보의 동시 제공이 가능

6. 향후 추진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

- 정책적 방향성을 넘어선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포함된 전략 구성, 실행 지침의 제시
 - 본 원고에서 제시한 2차 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에서는 KOICA가 아프리카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국내외 개발환경 분석, KOICA의 중장기 전략, 각 국가지원계획 등에 일치시켜 구성하였으며 아프리카지역 내 권역별 맞춤형으로 중점추진내용에 대해 제시함
 - 이는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이후, 변화한 개발환경을 고려하여 KOICA의 대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정책적 협력 방향, 중점 추진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정립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본부와 현지사무소에서 실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내용을 바탕으로 KOICA 내부에서 조직 내 수행환경을 고려한 예산배분에 대한 로드맵, 수행 인력 및 전사적 추진 목표 제시 등 상세한 내용들이 보다 보강되어 공유될 필요성 농후

□ 사업분야 지정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

- KOICA는 5대 주요 분야(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범주화하고 이는 통계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연계
- 국제적으로 복합적인 개발환경을 고려, 주제 중심 프로그램 위주의 원조방식이 증가하여 과거와 같이 특정 분야 사업으로 지정,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들이 나타남
- 이는 최근 수립된 KOICA의 국가지원계획에서도 사업 성격상 주요 분야가 혼합되어 프로그램명으로 명기되었으나 향후 예산 계획 및 집행, 통계 처리 시 보다 우위의 분야를 고려하여 5대 유형 중 하나로 지정, 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이에 주요 공여국이 사회/경제/생산/인도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분야의 복합 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KOICA에서도 차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장기적 고려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지역 특수 상황에 대한 보다 심층적 고려와 접근

- AfCFTA
 -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연합에서 주도하며 WTO 이래 세계 가장 큰 무역지대 창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통합 프로젝트에 해당
 - 상당수 주요 공여기관들은 이러한 AfCFTA의 협상 과정에서 정책제언 및 협상력 제고 지원을 통해 AfCFTA 효과, 전망, 실행방안 논의 등 대외홍보 협의에 적극 참여, 향후 AfCFTA의 이행 시 정책 제언국으로서의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지원을 수행
 - 앞으로 AfCFTA와 관련하여 관세영역을 넘어선 네트워크, 국경 간 이슈 등은 무궁무진하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AfCFTA에 대한 접근과 협력 프로그램들이 고려되어야할 것임
- 지역기구와의 협력
 - 아프리카지역 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국가 단위로 구성, 최근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 거버넌스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지역기구는 전체 아프리카지역 내에서 8개가 활동 중
 - 상당수 공여기관들이 아프리카지역의 주인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들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 내에서 지역기구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장기적 파트너로서 이들을 고려, 협력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이 필요

□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향후 필요한 심층 연구에 대한 의견

-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지역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분석
 - 주요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비교우위 강조 및 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상징적 이니셔티브를 발굴 및 추진 중*임
- *미국 Power Africa, 중국 1만 마을 위성 TV보급 프로젝트, 일본 ABE Initiative 등
 - OECD/DAC회원국으로서 또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빠른 시간 내 전환한 상당한 개발경험을 보유한 우리도 아프리카지역 협력대상국과의 장기적 협력 방안 마련차원에서 사업의 가시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이니셔티브는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
 - 이에, 주요 공여국들의 아프리카지역 브랜드화 사업의 내용,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발굴, 우리의 브랜드화 전략에 응용할 필요성 농후
- 국제사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지역 효율적 국제기구 협업 사례 분석
 - 국제사회에서의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협력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이중에서도 공여국과 국제기구와의 협업 및 분업은 매우 일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한국의 주요 5대 협력 국제기구 및 KOICA의 별도 요청 기구에 대한 주력 분야, 아프리카지원에 대한 특징, 최대 수혜국가 등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다루었으나 보다 효과적인 협업강화를 위한 이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분석 내용으로는 섹터 뿐 아니라, 특정 사업에서의 우위 국제기구, 이들의 재원 활용 특징, 이들이 지니는 협업에서의 강점, 공여국과의 대표 모범 협업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권역과 주요 섹터에 대한 크로스 심층 분석
 -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권역별 개발환경 특징, 혹은 전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섹터의 개발환경 등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들이 일부 다루었지만 아프리카의 권역과 권역 내에서의 섹터에 대한 크로스 심층 연구, 분석은 거의 전무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 및 섹터에 대한 크로스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발환경 분석, 이를 통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이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추진사업 유형 융합을 위한 다각적 심층적 연구와 사업 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봉사단, 연수생초청, 민관협력, 소규모 무상원조 등으로 구분되며 KOICA 내 조직의 전담 업무에 따라 사업 발굴 시 별도 기획, 운영, 관리 되고 있음
 - 이는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사업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할 시 유형 간 연계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방안 설정 및 시행은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사업유형 혼합과 관련한 다각적 심층적 연구를 바탕으로 점차적 사업 유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참고문헌

[국문]

권유경·최혜진 (2019). KOICA의 동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김규태(2015). 아프리카를 위한 TVET과 ODA: BEAR의 정책적 함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과 사회발전 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5.18.)

손혁상(2019), 북한개발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북한의 개발수요와 주축국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1)

임소진(2014). 개발효과성 이론으로 본 신흥경제국의 남남협력 참여: BRICS, IBSA, BASIC의 남남협력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23권 2호.

정혁. (2017). 삼각협력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조정운(2015). BEAR의 실천적 함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과 사회발전 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5.18.)

한국국제협력단 (2019a). KOICA 국가지원계획(CP) 아프리카 16개국 - 내부문서

_____ (2019b). 국제기구 협력현황 및 기구평가 자료 - 내부문서

_____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2). KOICA의 동아프리카 지역전략 “Hope WITH Africa” (2012-2015). 한국국제협력단

[영문]

AFD (2018). AFD Group 2018-2022 Strategy: Towards a World in Common

AfDB (2019). African Economic Outlook 2019

Africa Trade Policy Centre (2019).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Questions &

Answers

AU (2019). List of countries which have signed, ratified/acceded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_____ (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 Framework Document

AU-UN (2018). Framework on Implementation of Agenda 2063 and Agenda 2030

Brookings Institute (2019). Foresight Africa 2019

DFID (2018). DFID's Approach to Value for Money in Programme and Portfolio Management – A Performance Review

_____ (2017a). Multilateral Development Review

_____ (2017b).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7 – Final 2016 UK ODA spend statistics

Elchenauer Vera and Reinsberg Bernhard (2015). The Use of Multi-bi Aid by France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FD

GIZ (2018). GIZ African Union Office Annual Report 2018

GSMA (2018). The Mobile Economy SSA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2015). How DFID works with multilateral agencies to achieve impact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8). The IFS Green Budget October 2018 – How the UK Spend its Aid Budget

Mo Ibrahim Foundation (2018). 2018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 Index Report

OECD (2019).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Africa

_____ (2018a).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2018 – Growth, Jobs and Inequalities

_____ (2018b).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Africa

_____ (2017).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Africa

SDG Center for Africa (2019). Africa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ee-Year Reality Check

_____ (2019). 2019 Africa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UNDP (2018). Annual Report

_____ (2017). Africa Policy Brief – Strengthening Strategic Alignment for Africa's Development

_____ (2016). Af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UNFPA (2018a). Annual Report

_____ (2018b). Regional Office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nnual Report

UNHCR (2018). Global Report

UNICEF (2018). Compendium of resource partner contributions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Future of Jobs and Skills in Africa – Preparing the Reg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FP (2018). Annual Performance Report

_____ (2017). Strategic Plan(2017–2021)

WHO (2019). Result Report (2018–2019)

[웹사이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ACLED 웹사이트. <https://www.acleddata.com>

AFD 웹사이트. <https://www.afd.fr>

AfDB 웹사이트. <https://www.afdb.org>

AU 웹사이트. <https://au.int>

Brookings 웹사이트. <https://www.brookings.edu/blog/africa-in-focus>

DFID 웹사이트. <http://www.dfid.gov.uk>

FAO 웹사이트. www.fao.org

GIZ 웹사이트. <https://www.giz.de>

IFC 웹사이트. <https://www.ifc.org>

JICA 웹사이트. <https://www.jica.go.jp>

OECD 웹사이트. <https://www.oecd.org>

OECD 통계 웹사이트. <https://stats.oecd.org>

Oxfam International 웹사이트. <https://oxfam.org>

TICAD 웹사이트. <https://ticad7.city.yokohama.lg.jp>

UNDP 웹사이트. <https://www.undp.org>

UNECA 웹사이트. <https://www.uneca.org/>

UNEP 웹사이트. www.unenvironment.org

UNFPA ESARO 웹사이트. <https://esaro.unfpa.org>

UN Sustainable Development 웹사이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USAID 웹사이트. <http://www.usaid.gov/>

World Bank 웹사이트. <http://www.worldbank.org/>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https://databank.worldbank.org/>

WHO 웹사이트. <https://www.who.int>

WMO 웹사이트. <https://public.wmo.int>